

오산 독산성 · 세마대지 시굴조사보고서

김아관
허미형

일 러 두 기

1. 조사대상 및 시기

- 대상지역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번지 일원
- 대상시기 : 삼국시대 ~ 조선시대
- 대상유적 : 산성

2. 도면

- 본문의 유구 도면은 1/40 축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편집상 1/30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본문 중에 별도의 스케일을 표시하였다.
- 본문의 유물도면은 1/3 축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유물의 성격에 따라 1/2, 1/1을 사용 하였는데, 별도의 스케일을 표시하였다.

3. 지도

- 본문 중에 삽입된 유적의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50,000/1과, 조선총독부 발행 50,000/1을 사용하였다.

4. 기타

- 본 발굴조사는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오산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사용된 금액은 오산시에서 부담하였다.
(조사비용 : 48,500,000원)

2001

烏 山 市
畿 甸 文 化 財 研 究 院

차 례

I. 머리말	7
II. 유적의 개관	9
1. 유적의 주변 환경	9
2. 역사적인 배경	9
3. 고고학적 환경	17
III. 조사경과	23
1. 발굴 전 상황	23
2. 조사경과 및 조사방법	23
IV. 조사내용	24
1. 성벽	24
1) 0+0 구간	24
(1) 현황	24
(2) 출토유물	28
2) 32+15구간	29
(1) 현황	29
(2) 출토유물	29
3) 9+17구간	33
(1) 현황	33
(2) 출토유물	34
4) 20+5구간	35
(1) 현황	35
(2) 출토유물	35
5) 25+0구간	37
(1) 현황	37
(2) 출토유물	37
6) 36+3구간	38
(1) 현황	38
(2) 출토유물	38
2. 성내부 트렌치 조사내용	40
1) 트렌치 1	40
(1) 현황	40
(2) 출토유물	42
2) 트렌치 2	46
(1) 현황	46
(2) 출토유물	48
3) 트렌치 3	52
(1) 현황	52
(2) 출토유물	52

4) 트렌치 4	63
(1) 현황	63
(2) 출토유물	63
5) 트렌치 5	69
(1) 현황	69
(2) 출토유물	69
6) 트렌치 6	72
(1) 현황	72
(2) 출토유물	72
7) 트렌치 7	74
(1) 현황	74
(2) 출토유물	74
8) 트렌치 8	76
(1) 현황	76
(2) 출토유물	78
9) 트렌치 9	79
(1) 현황	79
(2) 출토유물	79
10) 트렌치 10	84
(1) 현황	84
(2) 출토유물	84
11) 트렌치 11	88
(1) 현황	88
(2) 출토유물	88
12) 트렌치 12	92
(1) 현황	92
(2) 출토유물	94
3. 세마대지	97
1) 현황	97
2) 출토유물	99
4. 지표수습유물	100
V. 고찰	106
1. 인문지리적 위치	106
2. 『삼국사기』에 보이는 독산성의 비정문제	108
3. 문헌으로 본 조선시대 독산성	109
4. 역사고고학적 검토	112
5. 유물의 고찰	114
VI. 맺음말	120
附 1. 『조선왕조실록』 독산성 관련 기록 요약	171

도면 차례
도면 1. 독산성 현황도
도면 2. 0+0 구간 평 · 단면도
도면 3. 0+0 구간 출토유물
도면 4. 32+15 구간 평 · 단면도
도면 5. 32+15 트렌치 출토유물
도면 6. 32+15 구간 출토유물
도면 7. 32+15 구간 출토기와
도면 8. 9+17 구간 출토유물
도면 9. 9+17 구간 출토기와
도면 10. 20+5 구간 출토유물
도면 11. 25+10 구간 평 · 단면도
도면 12. 25+0 구간 출토유물
도면 13. 36+3 구간 평 · 단면도 토층도
도면 14. 36+3 구간 출토유물
도면 15. 트렌치 1 평 · 단면도
도면 16. 트렌치 1 출토유물
도면 17. 트렌치 1 출토기와
도면 18. 트렌치 1 출토기와
도면 19. 트렌치 2 평 · 단면도
도면 20. 트렌치 2 출토유물
도면 21. 트렌치 2 출토유물
도면 22. 트렌치 2 출토기와
도면 23. 트렌치 3 평 · 단면도
도면 24. 트렌치 3 출토유물
도면 25. 트렌치 3 출토유물
도면 26. 트렌치 3 출토유물
도면 27. 트렌치 3 출토기와
도면 28. 트렌치 4 평 · 단면도
도면 29. 트렌치 4 출토유물
도면 30. 트렌치 4 출토유물
도면 31. 트렌치 4 출토기와
도면 32. 트렌치 5 평 · 단면도
도면 33. 트렌치 5 출토유물
도면 34. 트렌치 6 평 · 단면도
도면 35. 트렌치 6 출토유물
도면 36. 트렌치 7 평 · 단면도
도면 37. 트렌치 7 출토유물
도면 38. 트렌치 7 출토기와
도면 39. 트렌치 8 평 · 단면도
도면 40. 트렌치 8 출토유물
도면 41. 트렌치 9 평 · 단면도

도면 42. 트렌치 9 출토유물
도면 43. 트렌치 10 평 · 단면도
도면 44. 트렌치 10 출토유물
도면 45. 트렌치 10 출토기와
도면 46. 트렌치 11 평 · 단면도
도면 47. 트렌치 11 출토유물
도면 48. 트렌치 11 출토기와
도면 49. 트렌치 12 평 · 단면도
도면 50. 트렌치 12 출토유물
도면 51. 트렌치 12 출토기와
도면 52. 트렌치 13 토층도
도면 53. 트렌치 13 출토유물
도면 54. 트렌치 13 출토기와
도면 55. 트렌치 15 평면도 · 토층도
도면 56. 지표수습유물
도면 57. 지표수습기와 및 이형토제품

사진 차례
사진 1. 독산성 원경 ① 동쪽에서 ② 남동에서
사진 2. 성벽 잔존상태 ① 북벽 ② 남벽
사진 3. ① 성돌의 치석흔적 ②, ③ 성내의 각종 건축 부재
사진 4. 성벽 0+0 구간 ① 발굴 전 전경 ② 발굴 후 전경 ③, ④, ⑤출토유물
사진 5. 성벽32+15 구간 ① 발굴 전 전경 ②, ③ 발굴 후 전경
사진 6. 성벽32+15 구간 출토유물
사진 7. 성벽32+15 구간 출토유물
사진 8. 성벽9+17구간 ① 전경 ②, ④ 출토유물 ⑤ 트렌치내 초석 세부 ⑥ 내벽
사진 9. 성벽 20+5 구간 ① 전경 ②, ③, ④, ⑤ 출토유물
사진 10. 성벽 25+0지점 ① 발굴 전 전경 ② 내벽 세부
사진 11. 성벽25+0 ① 전경 ②, ③, ④ 출토유물 성벽36+3 구간 ⑤ 발굴 전 전경
사진 12. 성벽36+3지점 ① 발굴 후 전경 ② 내벽 세부
사진 13. 성벽 36+3지점 ①, ② 토층 ③, ④, ⑤ 출토유물
사진 14. 트렌치 1 ①~③ 전경 ④~⑩ 출토유물
사진 15. 트렌치 1 출토유물
사진 16. 트렌치 2 ① 전경 ②, ③ 세부 ④~⑨ 출토유물
사진 17. 트렌치 2 출토유물
사진 18. 트렌치 2 ①, ②, ③ 출토유물 트렌치 3 ④ 전경, ⑤ 세부, ⑥유물출토상태
사진 19. 트렌치 3 출토유물
사진 20. 트렌치 3 출토유물

사진 21. 트렌치 3 출토유물

사진 22. 트렌치 3 출토유물

사진 23. 트렌치 3 ①, ② 출토유물

트렌치 4 ③ 전경 ④ 세부 ⑤ 유물출토 상태

사진 24. 트렌치 4 출토유물

사진 25. 트렌치 4 출토유물

사진 26. 트렌치 5 ① 발굴 전 전경 ② 발굴 후 전경 ③ 유구세부

사진 27. 트렌치 5 ① 유구세부 ②, ③ 트렌치 5 출토유물

사진 28. 트렌치 6 ① 전경 ②, ③세부

사진 29. 트렌치 6 출토유물

사진 30. 트렌치 7 ① 전경, ②~⑤ 출토유물

트렌치 8 ⑥ 전경, ⑦~⑩출토유물

사진 31. 트렌치 9 ① 발굴 전 전경, ② 발굴 후 전경, ③~⑩ 출토유물

사진 32. 트렌치 9 출토유물

사진 33. 트렌치 10 ① 전경 ② 세부 ③~⑥ 출토유물

사진 34. 트렌치 10 ①~⑦ 출토유물

트렌치 11 ⑧ 전경

사진 35. 트렌치 11 ①, ② 유구세부

사진 36. 트렌치 11 출토유물

사진 37. 트렌치 11 출토유물

사진 38. 트렌치 12 ①, ② 전경

사진 39. 트렌치 12 출토유물

사진 40. 트렌치 13 ① 전경 ② 토층세부 트렌치 14 ③ 전경

트렌치15 ④ 전경

사진 41. 트렌치 15 ①, ② 세부 트렌치 16 ③ 전경 ④~⑧ 세마대지

출토유물

사진 42. 지표수습 유물

사진 43. 지표수습 유물

사진 44. 지표수습유물

사진 45. ① 변응성 선정비 ② 우물지 1 ③ 우물지 2

지도 차례

지도 1. 유적 위치도 (1:50,000)

지도 2. 유적 위치도(近世 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지도 3. 해동지도 수원부

지도 4. 대동여지도(부분)

지도 5. 주변유적 분포도

I. 머리말

오산시에 위치한 독산성은 ‘禿城山城’ 혹은 ‘禿城’이라고도 하며, 壬辰倭亂 당시의 전적지로서, 광주의 南漢山城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시되던 지역이다. 이 城은 삼국시대 백제에 의해 初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高麗, 朝鮮時代에도 경기 남부지방의 중요한 城郭으로 기능했던 곳으로 조선 宣祖대로부터 純祖임금까지 꾸준히 수축되고 관리되어온 石城이다.

현재의 독산성은 1957년 洗馬臺址가, 1982년에는 城壁이 복원되었고 성내 동문에는 寶積寺가 위치한다. 오산시는 독산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9년 삼림욕장으로 개설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표조사결과¹⁾ 성내에 많은 건물지 등과 기타 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앞으로의 독산성 활용방안 및 중장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었다. 현장 조사는 2000년 10월 15일에서 2000년 12월 22일 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지역은 세마대 부근과 남문지 부근의 평탄대지였으며, 성벽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성내외벽 일부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현재의 복원성벽 아래에는 삼국시대 당시의 축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이 잔존함이 확인되었으며, 성내의 평탄지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곳곳을 축대로 넓힌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내의 부속시설이 조선시대에 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토기와 인화문 토기 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성내에 당시의 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 한병삼(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

김병모(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차용걸(충북대학교 교수)

유봉학(한신대학교 박물관장)

조 사 위 원 : 이남규(한신대학교 교수)

책임조사원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김아관(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 3팀장)

이창원(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 김환일(충북대학교 대학원 : 고고학전공)

윤승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고고학전공)

1) 한신대학교 박물관, 『독성산성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독성산성 내부를 중심으로』, 1999.

노성민(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이창만(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이도열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
김태홍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외

이번 조사는 오산시의 독산성에 관한 각별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는데 특히 오산시 문화공보실 김창덕 실장이하 임형빈님, 고영재님등 관계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오산시 향토사학자 여러분의 애 정어린 관심이 있었음을 밝혀두어 감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김아관이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였는데, 정해득(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역사적 배경을, 허미형(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이 유물원고를 나누어 작성하였다. 유물의 실측과 제도는 허 미형이 전담하였는데, 이도열, 김태홍, 고현수(한양대학교 대학원)가 보조하였다. 이밖에 보고서의 편 집은 고현수, 이도열, 유구의 사진은 김환일, 유물의 사진은 오철민(Hoo 스튜디오)이 전담하였으며 이 를 김성태가 수정·가필하였고 전체 보고서의 체제와 내용은 장경호가 최종적으로 검토·교열하였다.

II. 유적의 개관

1. 유적의 주변환경

독산성이 위치한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로 예로부터 서울과 충청도, 전라 도, 경상도 등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 상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오산시는 화성시에 둘러싸여 있는 형 태로 시의 동쪽만 평택시에 면하고 있는데 시의 수리적 위치는 동서 7° 14′, 남북 2° 48′이며, 면적은 42,75km²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0.4%를 차지한다.

오산시의 지형은 광주 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해 노년기의 완만한 구릉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쪽의 산지들도 대부분 해발고도 200m 이하의 낮은 산지이며, 특히 오산천 주변의 동쪽지형은 넓은 답작지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오산시내에 는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고, 대부분 시내의 하천들은 이들 하천의 분천이다.

독산성은 행정구역상 지곶동 산 155번지일대에 속하며, 오산시에서 비교적 높은 지형인 서부지역에 위치하는데, 인근의 낮은 구릉성 산지에 비해 높은 해발 208m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어, 산성입지에 좋은 환경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독산성 북벽 앞으로 광교산에서 발원하는 황구지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하천은 인근의 화성시로 흘러들어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한다. 황구지천 주변으로는 태봉산성, 수원 고읍성, 길성리토성등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인근의 초기백제유적으로 주목받은 화성 마하리, 당하리 유적등도 위치해 있어 이들 유적과 독산성의 관계가 주목된다.(지도 1, 2).

2. 역사적인 배경

1) 禿山城의 歷史的 變遷(지도 3)

독산성이 위치한 山峰의 명칭은 禿山, 石臺山, 香爐峰 등으로 지칭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禿城山²⁾ 이라 칭해졌으며, 권율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에게 포위되어 將臺에서 쌀로 말을 씻긴 일화로 인 해 洗馬山, 혹은 洗馬臺라고도 불리고 있다. 독산성은 수원과 오산 간을 에워싼 주변 평야에 우뚝 솟아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로 군사, 교통,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독산성 주변은 수원부의 읍치였던 용릉에서부터 독산성으로 이어진 넓은 들의 한 가운데로 황구지천 이 남행하여 흐르고 있다. 독산성 아래에는 황구지천을 건너 구 수원부 읍치와 이어지던 細籃橋가 있었 으나 유실되었다. 세람교는 한양에서 三南지방으로 내려가는 大路상에 위치했던 다리로서 독산성이 地

2) 오산시, 『오산시사(上)』, 1998, p28.

堞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록하였다.¹⁶⁾ 기문에는 성의 둘레가 1,010步로 기록되어 정조 대에 비해 6步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성의 둘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로는 4문과 暗門(1805년 건립)이 있으며, 정상에는 1787년(정조11) 세운 將臺가 있다고 하였다. 城堞이 이전 시기에 편찬된 읍지 기록보다 6첩이 늘어난 309堞으로 기록된 것은 정조대의 수축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運籌堂과 三門, 鎮南樓, 吏廳, 將校廳, 官廳, 四倉, 五倉, 軍器庫, 武庫, 東庫, 西庫, 保別軍, 寶積寺 등의 주요 건물이 기록되어 있고, 別將 1員, 留鎮將 1員, 弓箭監官 1員, 各倉庫監官 3人, 別軍官 6人, 城門將 4人, 哨官 5人, 衙前 21人, 通引 10人, 使令 7名, 官奴 7名, 官婢 2名, 巡牢 7名, 城門卒 4名, 山直 5名, 守城軍 2,226名, 納米軍 1,941名 등의 官員과 官屬이 소속되어 있었다.¹⁷⁾

독산성은 군사·행정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생활거주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李廷龜(1564~1635)가 지은 「鎮南樓重修記」에 의하면 성내에는 200여호의 居民과 寺刹, ㅈ자가 100餘區가 있었다고 한다.¹⁸⁾ 200호 정도의 많은 인원이 독산성에 거주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독산성으로 피신하였던 水原府民들이 戰後에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성내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조 대에도 독산성에는 성내에 51戶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¹⁹⁾ 『華城誌』 편찬 당시에는 성내

〈표 1〉禿山城의 主要建物

建物名	規 模	備 考	建物名	規 模	備 考
運籌堂	9칸	1787년 改建	三門	3칸	1790년 改建
		1790년 重修		行廊 11칸	扁額 禿城衙門
		1599년 重修			
		1676년 重修			
鎮南樓	6칸	1753년 重修	衙前廳	9칸	
		1790년 改建	(吏廳)		
		1831년 重修			
將校廳	9칸		官廳	4.5칸	1805년 建立
四倉	大廳 3칸		五倉		
	倉庫 60칸				
軍器庫	26.5칸	1805년 改建	武庫	3칸	官廳 所屬
附 火藥庫	2칸				
東庫		軍器庫 所屬	西庫		軍器庫 所屬
保別庫		軍器庫 所屬	寶積寺	21.5칸	현재의 洗馬寺
城內民家	126戶		城外民家	127戶	

출전 : 《華城誌》

16) 『華城誌』卷2, 山城. …間闕修築 城根半汰 女堞無遺 至於南門幾乎倒矣…

17) 『華城誌』卷2, 山城.

18) 李廷龜의 記文은 『東國輿地志』와 『華城誌』에 실려 있다.

에 126호, 성외에 127호의 民家가 거주하였다. 따라서 독산성은 독립된 생활공간이자, 官廳이 들어서 있던 경기남부 군사행정의 중심지로서 조선시대 산성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유적지이다. 성내에는 관청소재지와 민가 거주지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華城誌』편찬 당시 독산성에 설치되었던 각종 시설물은 〈표 1〉과 같다.(정해득)

3. 고고학적 환경

독산성이 위치한 오산시는 아직 종합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많은 유적의 수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시의 지형이 낮은 구릉성 산지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천지역이 발달한 점으로 볼 때 앞으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알려진 유적을 시대별로 개괄하여 보면 구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발견된 것은 없지만, 양산동²⁰⁾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된 바 있어 구석기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오산시에 소재한 것은 없지만 인근 화성시의 동학산 유적²¹⁾, 제부리패총²²⁾등이 확인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오산시내에 산포한 지석묘유적이 있는데, 외삼미동 지석묘 2기, 금암동 지석묘 9기, 수청동 지석묘 2기가 보고 되어 있으며²³⁾ 이중 향토유적 1호인 외삼미동 지석묘중 1기는 오산시내 유일한 탁자식 지석묘로 개석에는 15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삼국시대의 오산시는 지역적인 위치상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는 독산성내에서 수습된 백제토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오산시는 고구려의 한강점령이후에는 고구려에 속하다가 신라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이번에 조사된 독산성과 내삼미동 유물산포지, 화산유적²⁴⁾ 등이 있으며 이들 유적은 모두 백제토기가 수습된 유적으로 인근 화성시 소재의 마하리고분군등의 유적과 밀접한 관련을 상정할 수 있다. 신라의 한반도 통일 이후 고려시대까지 오산시는 7개의 군소현을 관할하는 水州의 진위현에 속하였는데, 진위현은 수원 남로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중앙에서 감무를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던 곳이다. 현재까지 이 시기의 유적으로 확인된 것은 생산 유적으로 조사된 양산지구 문화유적과 지곶동 고분군, 지곶동 유물산포지등이 있다. 이중 지곶동 유물산포지는 금동보살입상 1기가 수습된 곳으로 주변지역에 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곶동 고분군은 현재의 독산성 남쪽에 고려 왕릉이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조선시대에 오면 ‘오산’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태종과 세종의 거둥길에 수원부의 오산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며²⁵⁾, 임진왜란 당시에는 잘 알려진 대로 독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 『海東地圖』「水原府」.

20) 한신대학교박물관, 1998, 『오산 양산지구 문화유적시굴조사 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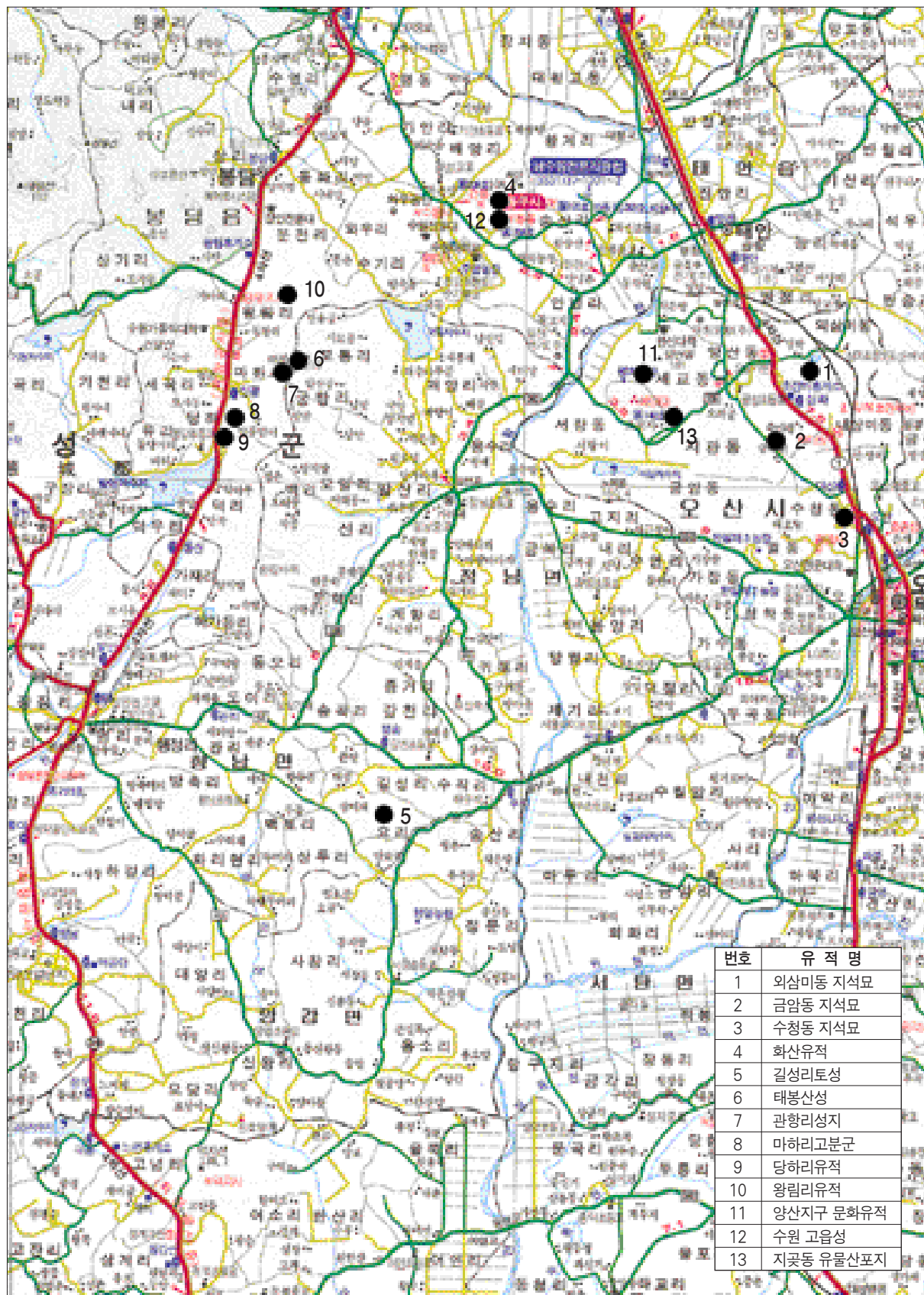
21) 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지방업단지내 동학산유적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0.

22) 경기도박물관,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1999.

23) 오산시, 『오산시사·하』, 1998

24) 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 화산유적 수습발굴중간보고서』, 1999.

25) 『태종실록』권 31, 16년 2월 癸未, 『세종실록』권 60, 15년 4월 乙未



지도 5. 주변유적 분포도

독산성은 왜란이후 다시 폐성이 되는 다른 산성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는데, 정조 때 현룡원과 화성이 축조되면서 그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남쪽 길목에 위치한 오산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해온 지역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의 수는 많지 않지만, 좀더 밀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독산성과 오산지역의 역사적 위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선사시대 유적

(1) 외삼미동 지석묘²⁶⁾

오산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낮은 구릉 상에 2기가 잔존한다. 이중 1기는 탁자식 지석묘로 개석에 15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개석의 크기는 170~260×75~230cm이며, 탁자식과 구덩식이 공존하고 있으나, 정식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부구조 등은 미상이다.

(2) 금암동 지석묘²⁷⁾

경기도 기념물 112호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9기가 잔존한다. 9기 모두 개석식 지석묘이지만, 하부구조 등은 아직 조사되지 못했다. 지석묘의 덮개돌은 200~500×130~320cm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주변에서 채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수청동 지석묘²⁸⁾

개석식 지석묘로 추정되는 2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훼손되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2) 역사시대 유적

(1) 화산유적²⁹⁾

수원 고읍성 발굴조사 당시 발견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백제고분이 조사되었다. 화산유적은 독산성에서 북쪽으로 4km정도 거리에 있는데, 현재의 읍·건능에 인접한 화산의 정상부에서 서·남쪽능선에 분포한다. 조사된 유적은 대형 석곽묘 2기, 소형 석곽묘 4기로, 대형석곽묘 1기는 730×580cm의 봉토에 폭 70~80cm 가량의 주구가 돌아가는 형식이다. 석곽의 크기는 430×100×104cm이며, 암반층을 파서 할석을 평적한 반지하식 형태이다. 출토된 유물은 3개체의 토기호와 등자, 혁금구가 있다. 다른 1기는 원상의 훼손상태가 심해 잘 알 수 없으나, 노출된 봉토단면에 기와를 5~6겹 쌓아 만든 단이 관찰됨으로서 葺瓦墳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화산유적에서 조

26) 주2) 오산시, 앞의 책, 1998.

27) 주2) 앞의 책, 1998.

28)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I』, 1999.

29) 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 화산유적 수습발굴 중간보고서』, 1999.

권오영, 『백제전기 기와에 대한 신지견』 『백제연구』 33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

사된 고분은 수장급의 분묘로 추정되므로 주변의 고금산, 마하리, 당하리, 왕림리 유적등의 중심유적으로서 한성백제기 지방세력 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2) 길성리 토성³⁰⁾

독산성에서 서남쪽으로 8km 떨어진 토성으로 성의 길이는 2.2km내외이며, 계곡을 둘러 포곡식으로 축성된 방형의 성이다. 성내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백제연질 토기편 등이 수습되며, 성벽은 판축법을 사용한 순수토성이다. 현재 성내에는 2개의 우물지가 확인되며 문지는 내성과 외성에 각각 3개씩 있다. 현재 길성리 토성은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초축 연대 등은 알 수 없지만, 초기철기시대 고지성 집락에서 유래하여 발전한 토성이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¹⁾

(3) 태봉산성³²⁾

화성시의 정남면과 봉담면 사이의 태봉산 정상에 있으며 주변에 관항리 성지, 마하리·당하리 백제 고분군이 있다. 독산성에서 서쪽으로 위치하며, 산 정상부에 축성된 테뫼형의 토성으로 성의 길이는 800cm 내외로 추정된다. 정식학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체성과 초축연대 등은 미상이나, 현재 성내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보이는 와편이 주로 채집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산재한 백제 고분군과의 관계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4) 관항리 성지³³⁾

태봉산성의 동쪽에 위치한 산성으로 토석혼축의 성이며, 현재는 71m정도만이 잔존한다. 성내부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와편이 주로 채집되며 태봉산성과 세트를 이루는 산성으로 추정되나, 산성의 성격 등이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다.

(5) 마하리고분군³⁴⁾

마하리 고분군은 태봉산에서 뻗어 내린 나즈막한 구릉의 최남단에 형성되어 있으며, 수 백기의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만이 1996~1999년에 걸쳐 서울대학교박물관과 호암미술관에 의해 3차례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조사결과 1996년 조사분에서는 석곽묘 5기가 확인되었고, 1997년 호암미

술관³⁵⁾이 조사한 지역에서는 목관묘 5기, 목곽묘 1기, 석곽묘 21기가, 1999년 조사분에서는 석곽묘 28기, 목관묘 9기, 옹관묘 1기, 석실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마하리 지역에서는 목관묘가 가장 선행하는 묘제이며, 고분내부의 출토유물은 유리제 구슬, 철기, 토기호 등이 있다. 부장된 토기호는 직구단 경호, 원저 단경호, 심발, 소호류 등이며 동시대의 타지역 고분에 비해 철기류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흥미롭다. 마하리 고분군의 묘제는 대략 3세기 후엽부터 목관묘와 목곽분이 공존하다 목관묘는 소멸하고 봉토가 있는 목관봉토묘와 석곽묘로 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³⁶⁾

(6) 당하리 유적³⁷⁾

인근에 위치한 마하리 고분군과의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지닌 유적으로 태봉산 서쪽능선에 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예정지역 문화유적 조사의 일환으로 백제 주거지 1기와 저수지로 추정되는 유구 1기, 생산 구덩이로 추정되는 구덩이, 백제시대 장방형 유구 1기, 조선시대 민묘 5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토기를 분석한 결과 당하리 유적은 2세기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2세기 후엽에서 3세기 전엽에 이르는 원삼국시대 문화층과 3세기 후엽의 원삼국시대 문화층과 백제초기 문화층이 공존하는 2시기로 나뉘어 지며³⁸⁾, 향후 등장하는 백제토기 생산유적 이전단계에 편년 되는 유적이다.

(7) 왕림리유적³⁹⁾

당하리, 마하리 유적 인근에 형성된 생활유적으로 태봉산의 남·서사면에 위치한다. 조사된 유구는 백제 옹관묘 1기, 주거지 9기, 민묘 3기, 미상유구 3기이며, 출토유물은 회색 연질토기 및 타날문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주거지는 암반을 정지하여, 벽과 바닥을 만들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주거지에는 화덕시설이 있고 수혈내부에 지름 20~30cm가량의 깊은 주공이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연질토기류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석제 방추자와 철도자등의 철기류도 수습되었다. 이 유적은 주변의 고분유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유적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8) 양산지구 유적⁴⁰⁾

독산성의 동북쪽 양산봉 아래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생산유구 1기, 조선시대 후기와요 2기와 소규모의 숫가마가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생산유구는 단조철기 생산시설, 배수로 외 기타유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0×480cm크기의 규모로 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수혈 부근에서 7개의 기둥 구멍이 노출되었다. 유구의 구조는 산란이 심해 잘 알수 없으나, 할석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

30) 정인숙, 『화성 길설리 토성의 분석적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화성군·한신대학교박물관, 『화성군 매장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1995.

31) 주30) 정인숙, 앞의 책, 1983.

32) 주28)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1999.

33) 주28)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1999.

34) 호암미술관, 『화성마하리고분군』, 1998.

김성남, 「화성 마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제2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문』, 1999, 한국 고고학회.

김성남, 『중부지방 3~4세기 고분군 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순발,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2001. p157.

35) 주34) 호암미술관, 앞의 책, 1998.

36) 김성남, 1999, 「화성 마하리 고분군 발굴성과」『제2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문』 한국고고학회, 182쪽

37) 숭실대박물관·서울대박물관·한신대박물관, 『경부고속철도 상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지도위원회 자료』, 1999.

숭실대박물관·서울대박물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화성 당하리 유적 I』, 2000.

38) 주37) 숭실대박물관 외, 앞의 책, 2000. p107

39) 주37) 숭실대박물관외, 앞의 자료, 1999.

40) 한신대학교박물관 1998 <<오산 양산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 보고서>>

정된다. 조선시대 후기 와요는 1호 가마가 950×200~600cm, 2호 가마가 910×190~650cm로 평요에 가까운 중간 규모의 조선시대 와요이다. 이 유구는 가가이에 위치한 용주사와 용건능은 물론이고, 독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생산 유구는 경기도에서 그 예가 드문 조사 예로서 독산성 내에서 수습되는 통일신라시대 유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9) 수원 고읍성⁴¹⁾

현재는 화성시에 속하는 유적으로 수원 화성이 건설되기 전 수원부의 치지가 있었던 곳이다. 성내의 면적은 약 25,000평, 서의 길이는 1.3km내외로 추정되며, 발굴조사결과 성내에는 관아터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비롯하여 3개의 건물지와 8개의 할석유구, 현릉원 재실 담장 기초석등이 확인된다.

원래의 관아터는 후대에 건설된 현릉원 시설들로 인해 멸실되어 현재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성내에는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조선시대 후기층까지 조사 되었는데, 기존에 수원 고읍성의 일부로 추정된 용·건능 북측의 성벽은 고읍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성격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원 고읍성에서 바라보는 독산성 북쪽에는 넓은 평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왕실의 능원관리구역인 火巢로 지정되어 禁養地區가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8) 지곶동 유물산포지⁴²⁾

독산성의 남쪽 아래 능선으로 금동 보살입상 1점이 수습된 곳이다. 유구의 성격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주변으로 잡석층 1단과 완파된 토기 1점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동보살입상은 관음보살상으로, 크기는 19.5cm, 머리 크기 4.8cm, 어깨 폭 4.3cm이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당초문이 투각되어 있으며, 보관의 관대는 머리뒤에서 리본형으로 결대되어 후면에 돌출되어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하반부에 내려 올수록 의습이 많이 겹쳐져 있고 수인은 오른손은 여원인을, 왼손은 시무외인을 맺고 있다. 주조된 시대는 대략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독산성내에서 출토된 청자류와 관련하여 성내, 혹은 현 남쪽능선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유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1) 화성군·한신대학교박물관, 『수원 고읍성』, 2000.

42) 이호관, 「화성 지곶리출토 금동관음상」, 『고고미술』 59호, 1965.
오산시, 주2) 앞의 책, 1998, p424.

III. 조사경과

1. 발굴 전 상황

독산성은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문화유적이다.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내 평지에는 잣나무 등 기타나무가 조립되어 있으며, 주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독산성의 체성은 복원된 성벽과 문지, 치등이 남아 있으며, 성벽 상부의 현재상태는 강회로 마감하였다. 동벽에서 남문까지는 성벽 복원과 기타 보수공사 시 약간의 지형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성문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 부자재는 성내에 흩어져 있었다.

현재 동문에서 남쪽으로 돌아 북문에 이르는 성내부에는 인위적으로 축대등을 쌓아 형성된 단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축대는 부정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경사지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세마대부근은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견고히 쌓아 올려 다른 건물지와 차별되고 있으며 장대지로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형변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부에 현존하는 건물은 없으며 현대에 복원된 사찰 ‘보적사’와 세마대가 남아 있다.

2. 조사경과 및 조사방법

독산성은 임진왜란 이후 고종 때까지 꾸준히 개축되고 관리되어온 산성으로 내부의 건물지들도 여러 번의 수축과정을 거쳤으며 성내 건물지들도 꾸준히 개·보수되어 왔다. 이번 조사시에도 성 내부에는 단을 이루는 축대 혹은 우물지 등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1982년 복원공사가 이루어진 현재의 성벽이 당초 축성보다 안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번 시굴조사는 성내외벽과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현 남문지 부근을 중심으로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였다. 먼저 성벽의 조사르 위해 임의의 기준점인 현 남문의 동쪽 벽면 부근을 No.0지점으로 설정하여 성의 서쪽방향으로 20m 단위로 각 구간을 구획하였으며 성의 외벽 2곳과 내벽 4곳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체성 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 복원성벽을 훼손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성내 건물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화성지』등의 문헌을 참조할 때 성내 건물이 167.5칸에 이르고, 성내에서 거주하는 민호가 200여 호나 되어 평탄지 대부분이 건물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조사방법은 그리드법을 이용하여 성 전체를 10×10m그리드로 구획하고 굴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내 기준점은 세마대지 정면 중앙부에 임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에 직교하는 남북선과 동서선을 설정하였다. 굴토지역은 운주당 등 중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남문지 부근과 서문지 일부 그리드중 일부에 2×10m 혹은 2×20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진행하였고, 지표하 30cm내외에서 석렬유구들이 노출되었다.

Ⅳ. 조사 내용

1. 성벽

독산성의 체성은 1982년 복원된 성벽 상단부와 원래 축성이 남아 있는 성벽 하단부로 나누어 관찰된다.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⁴³⁾ 성벽의 상단부는 복원 전 성벽의 상부가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는 城基도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일부에는 여담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여담은 막돌을 쌓아 만들었고 강회로 마감하였으며, 옥개부는 포방전으로 형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체 성벽의 길이는 1,100m, 내부면적 약 20,000평 성벽의 높이는 1.8m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성벽의 상단부는 복원성벽으로 원래 성벽에서 5~10m 안쪽으로 들어 쌓여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복원은 원 성벽의 기반을 그대로 두고 성벽을 일정한 높이로 해체한 후 새로 성벽을 쌓았으며, 원 성벽의 일부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북벽과 남벽의 성외벽 트렌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 성벽의 기반은 90×60cm 크기의 장방형 석재를 기반으로 장방형 혹은 정방형으로 치석한 석재를 면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상단부가 해체되어 확실치는 않으나, 복원상태를 고려할 때 일부는 편축하고 일부는 내외 협축한 듯하다. 협축시 내부는 잡석이나 흙을 사용해 충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절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수 없다. 현재 확인된 내벽은 풍화 암반층위에 약 3개의 성토층이 있고, 성벽쪽으로 20cm크기의 납작한 할석을 1줄 깔았다. 북쪽 성외벽의 기반석 아래에는 와적층이 40cm높이로 성벽을 따라 평탄한 단을 이루어 형성되어 있는데 산성의 수축시 폐기한 성내 기와로 인해 생긴 듯하다.

1) 0+0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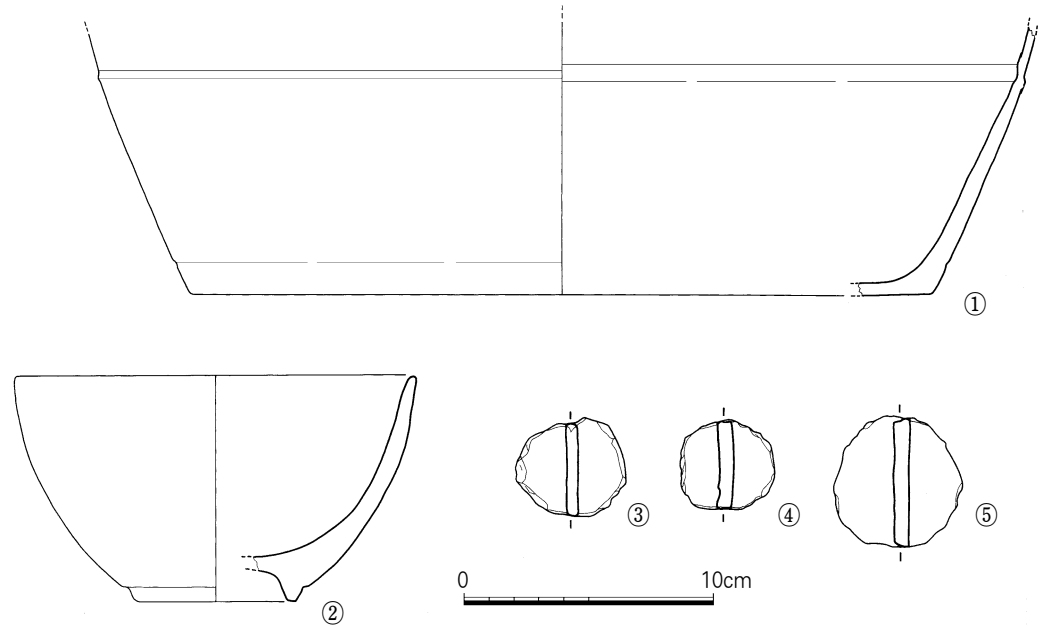
(1) 현황(도면 2, 사진 4 - ①, ②)

남문의 동쪽 외벽으로 설정한 폭 2m의 트렌치이다. 복원 성벽의 하단에서 원 성벽의 하단으로 추정되는 부분까지 굴토 하였는데, 복원 성벽의 안전을 고려하여 원 성벽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트렌치의 상면에는 성돌로 추정되는 20×40cm 내외의 할석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성벽의 기반석으로 추정되는 100×50cm내외의 석재가 현 복원 성벽의 3m 아래에 위치해 있어 원성벽의 기반석이 확인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트렌치의 석재는 제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추후 복원성벽의 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좀 더 조사해야 현상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2. 0+0 구간 평·단면도

43) 경기도, 『독산성 세마대지 조사 및 수리보고』, 1982.



도면 3. 0+0 구간 출토유물

(2)출토유물

① 토기 저부 (도면 3 - ①, 사진 4 - ③)

대형옹이나 동이의 저부로 보이는 평저의 일부이다. 속심은 갈색조이나 외벽은 흑색을 띤다. 바닥에서 기벽 쪽으로 8.5cm 지점에 한 줄의 침선이 돌아가고 있으며 바닥 부분과 연결해 있는 외기벽에는 바닥과의 접합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홈이 가로로 관찰되고 있다. 저경 30cm, 현재 높이 11cm이다.

② 백자대접 (도면 3 - ②, 사진 4 - ④)

구연과 기벽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굽에 이르는 기형의 대접이다. 일반굽 형태로 굽안바닥을 깊이 파내고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모래받침을 하고 번조하였다.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광택이 없으며 표면이 거칠다. 복원 구경 16cm, 높이 9cm, 굽경 6.4cm이다.

③ 원판형 토제품

이 구간에서는 토기편과 옹기편으로 거칠게 만들어진 원판형 토제품 3점이 수습되었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3-③	4-⑤	적갈색 옹기	거칠게 떼내고 마연	0.6×3.5
3-④	4-⑥	회백색 토기편	거칠게 떼냄	0.4×3.4
3-⑤	4-⑦	회청색 경질토기	떼내고 약간 마연	0.6×5.1

2) 32+15구간

(1) 현황(도면 4, 사진 5)

북벽의 성외 체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트렌치로 현 북문의 동쪽에 설정되었다. 폭 2m이며, 성벽의 기단부로 추정되는 석렬은 현 복원 성벽의 4m 아래 부분에서 확인된다. 기단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80~90×50~60cm의 장방형 석재로서 면석으로 사용된 전면만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기단 석재의 앞 쪽으로는 높이 1m, 폭 2.5m의 평탄 대지가 성벽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평탄 대지 안에는 다량의 삼국시대 와편이 섞여 있어 성안의 건축부자재를 폐기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탄 대지는 서문 쪽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인위적인 조성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독산성의 북쪽에 융·건능이 있어 일반인들이 살 수 없었던 것에 비추어 거주 등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경작흔이 발견되는 것도 근래의 일이어서 좀 더 조사해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개의 평탄 대지가 모두 성문 옆에서 확인되고 있어 산성에서 가장 취약한 성문에 별도의 방어 시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출토유물

①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5 - ①, 사진 6 - ①)

기벽에 전체적으로 승문을 타날하고 횡침선을 돌린 연질의 황갈색 토기 동체부편이다. 연질임에도 두께가 비교적 얇아 일부만이 남아 있다. 두께 0.4cm, 잔존 길이 3.5cm

② 인화문토기 동체부 (도면 5 - ②, 사진 6 - ②)

횡침선 1줄을 사이로 하여 상하에 음각의 점열문이 전체에 압인되었다. 상부의 점열문은 이중으로 찍혀 있으며 표면에는 자연유의 흔적이 남아 있다. 병이나 호의 동체부편으로 보이며, 안기벽에서 물레흔이 관찰된다. 단단한 경질을 이룬다. 두께 0.6~0.8cm, 잔존 길이 4.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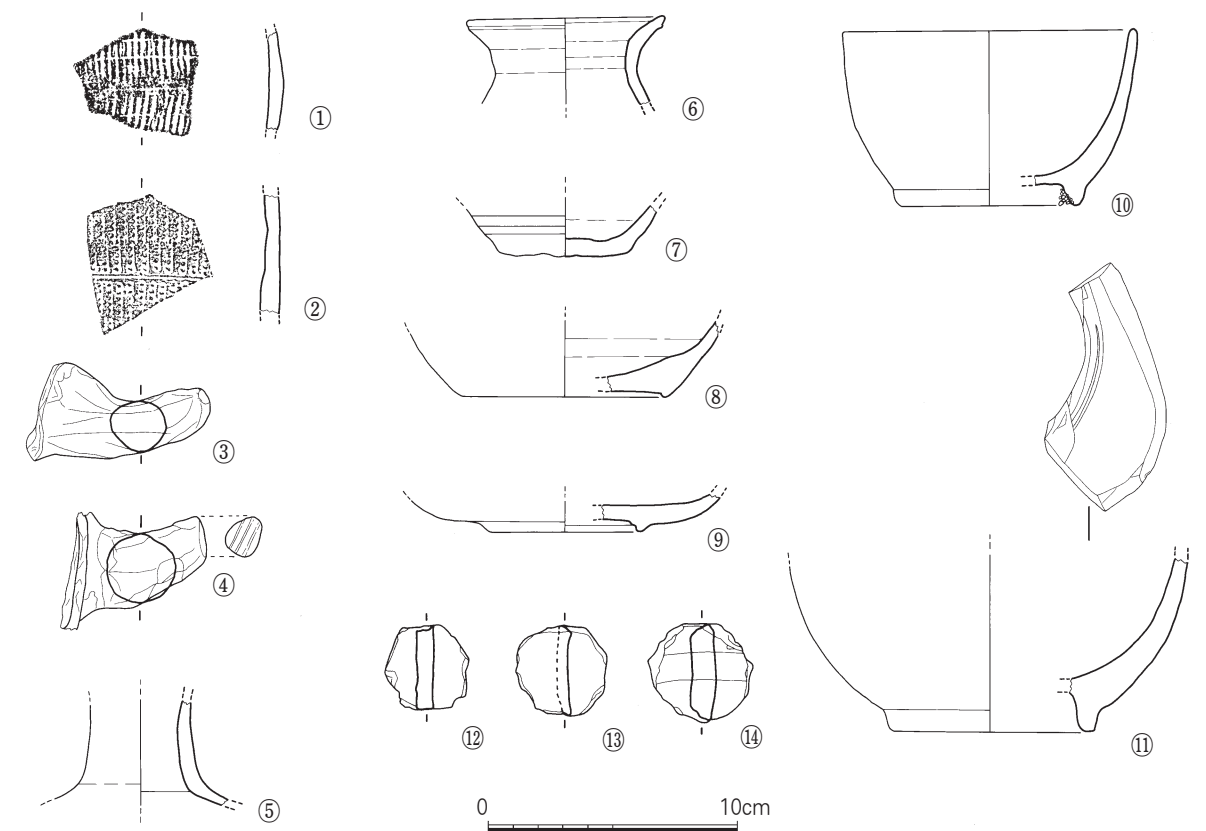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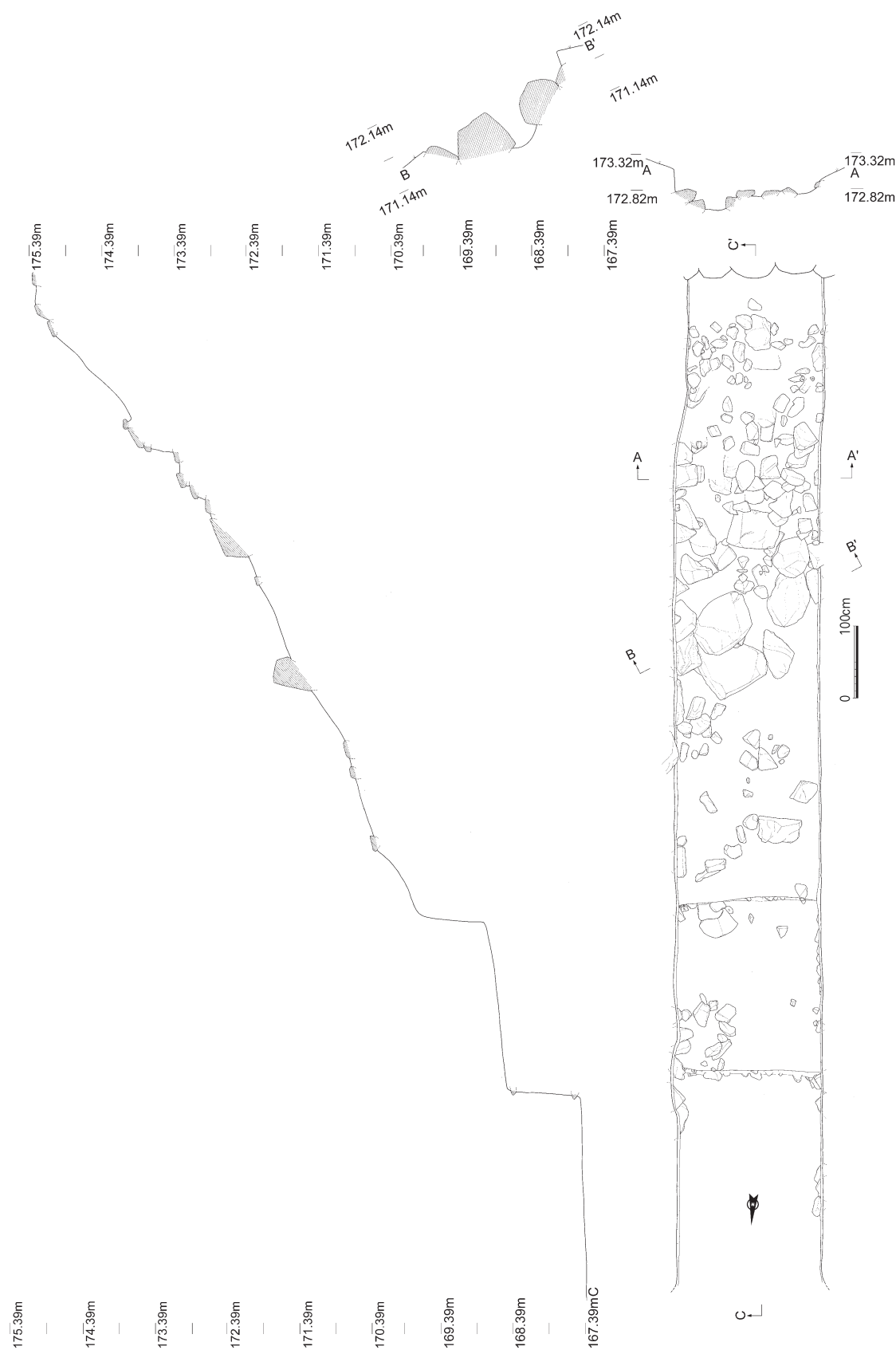
③ 우각형파수 (도면 5 - ③, 사진 6 - ③)

황갈색 모래 섞인 거친 태토를 이용하여 손으로 꺾죽 누르듯이 제작된 우각형 파수이다. 기벽은 모두 결실되고 파수 부분만이 남아있다. 단면 원형으로서 기벽과의 접합시 생긴 누름자국이 남아있다. 단면 지름 2cm, 길이 7cm이다.

④ 우각형파수 (도면 5 - ④, 사진 6 - ④)

두께 0.5cm인 기벽에 부착된 회청색 경질의 파수로, 기벽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손누름 자국 및 마찰흔이 접합부 전면에서 관찰된다. 파수의 끝부분을 눌러서 성형하였는데 여기서 승석문이 관찰되며 기벽 안쪽으로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단면 지름 2.8cm, 기벽으로부터 길이 5cm이다.

도면 4. 32+15 구간 평·단면도



도면 5. 32+15 지점 출토유물

⑤ 토기 구연부 (도면 5 - ⑥, 사진 6 - ⑥)

호의 구연부로 보인다. 회백색의 고운 태토로 단단하게 제작되었으며 외반된 구연부의 안팎으로 1줄의 홈이 돌아가는 특징이 보인다. 복원 구경 7.8cm, 잔존 높이 3.3cm이다.

⑥ 토기완 저부 (도면 5 - ⑦, 사진 6 - ⑦)

평저의 바닥과 기벽 일부만이 남아있는 소완의 일부이다. 바닥에서 기벽이 사선으로 넓게 벌어지는 기형의 황갈색 연질완으로서, 외벽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고 내벽 바닥에서는 그을음이 관찰된다. 바닥 지름 5cm, 잔존 높이 2.5cm이다.

⑦ 토기완 저부 (도면 5 - ⑧, 사진 6 - ⑧)

황갈색 연질 토기의 저부 및 기벽의 일부이다. 굽은 자기류의 안굽 형태와 유사하게 성형하여 굽안바닥을 0.2cm 깊이로 얇게 깎아내었다. 안팎으로는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속심은 회색, 외벽은 연갈색이다. 바닥 지름 8cm, 잔존 높이 3cm이다.

⑧ 병편 (도면 5 - ⑤, 사진 6 - ⑤)

흑갈유병의 경부편이다. 기본적으로 흑갈유를 안팎에 시유하였고 내벽 일부와 외벽부의 상단 부분에 산화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적갈색조가 나타난다. 내벽부의 물레흔은 뚜렷하고 외벽부는 흐리게 남아있다. 목부분 지름은 4~5cm, 잔존 길이 4.3cm, 기벽 두께 0.4~0.5cm이다.

⑨ 청자접시 저부 (도면 5 - ⑨, 사진 6 - ⑨)

황록색유가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된 청자접시의 저부이다. 바닥에 화문이 압인되어 남아 있으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발색과 용융상태가 양호하며, 빙렬이 관찰된다. 굽안바닥은 0.5cm 깊이로 얇으나 단정히 깎아내었다. 굽경 5cm, 잔존 높이 1.7cm이다.

⑩ 백자대접 (도면 5 - ⑩, 사진 6 - ⑩)

곧게 선 구연이 거의 수직으로 기벽을 이루며 내려와 바닥과 굽을 만난다. 태토는 양질이고 굽은 일반굽이며 회청색유를 안팎으로 전체에 두껍게 시유하였다. 굽안바닥에는 모래비짐이 붙어있다. 복원 구경 11.8cm, 굽경 7cm, 높이 7cm이다.

⑪ 청화백자 저부 (도면 5 - ⑪, 사진 ⑨, 사진 6 - ⑪, ⑪ - 1)

저부와 굽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 청화백자 대접의 일부이다. 굽은 일반굽의 형태이며 바닥에 원각 대신 청화 안료를 써서 2중의 원을 그려 넣었다. 잔존 높이 6.6cm, 굽경 8.2cm, 굽높이 0.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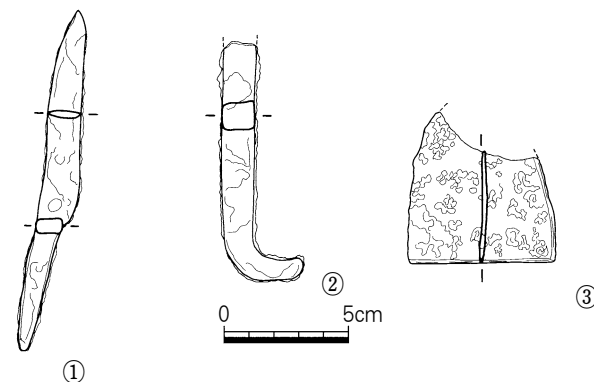
⑫ 원판형 토제품

이 구간에서는 3점의 원판형 토제품이 수습되었다. 그 자세한 속성은 다음 표와 같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5-⑫	7-①	회청색 토기편	크게 깨짐	0.6×3.2
5-⑬	7-②	회갈색 토기편	쪼쪼히 깨내고 마연	0.4(박리)×3.4
5-⑭	7-③	흑회색 토기편	쪼쪼히 깨짐	1×3.9

⑬ 철제 가위 (도면 6 - ①, 사진 7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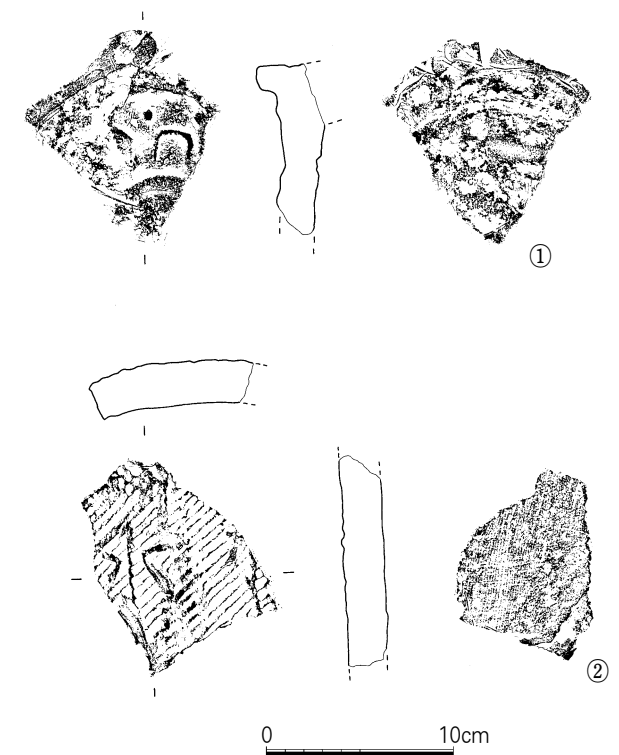
양날가위 중 한쪽 날 부분 만이 남아 있다. 표면이 전체적으로 부식되었으나 자름면의 날세움은 잘 남아있다. 몸통과 손잡이 중간 지점의 위치에 다른 날과의 연결을 위해 0.4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길이 5cm의 손잡이는 단면이 방형이고 날 부분은 이등변 삼각형에 가깝다. 길이 13cm, 폭 1.5cm이며 날 부분보다 손잡이 부분이 좀 더 두껍다.



도면 6. 32+15 지점 출토유물

⑭ 껍쇠 (도면 6 - ②, 사진 7 - ⑤)

일부가 결실되고 남은 껍쇠로 보인다. 1×1.2cm 굽기의 단면 방형 철제봉을 구부려 만들었으나 일부가 결실되어 원래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표면이 부식되어 있기는 하나 잔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현재 길이는 9.5cm이다.



도면 7. 32+15 지점 출토기와

⑯ 와 (도면 7 - ①, 사진 7 - ⑦)

숫막새 드림새의 일부이다. 고운 황갈색 태토를 가지며 반구형의 귀목문 자방에 바로 이어 한 줄의 圓圈을 돌렸고, 연꽃잎은 양각의 선묘수법을 이용해 표현하였으며 그 사이로 0.5cm 규격의 돌아오른 점문을 배치하였다. 다시 그 밖으로 1.2cm 두께의 주연을 돌려서 마무리하였다. 두께 2~2.5cm, 잔존 길이 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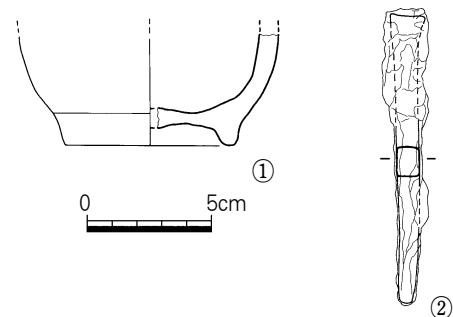
⑰ 와 (도면 7 - ②, 사진 7 - ⑧)

황갈색의 암키와편으로 등면에 '水'字銘文과 사선의 선문이 타날되었다. '水'字銘文은 따로이 구획을 마련하지 않고 등문양에 바로 겹쳐서 타날하여 표현하였는데 양각으로 도드라져 표현되었다. 배면에는 굽은 포문이 남아 있으며 와도는 안에서 1/3가량의 깊이로 긋고 부러뜨린 후에 파쇄면은 다듬지 않았다. 두께 2.2cm, 잔존 길이 10.3cm이다.

3) 9+17구간

(1) 현황(사진 8 - ①, ⑤, ⑥)

치 2의 서쪽, 성 내벽에 설정된 트렌치로 지표에서 10cm아래부터 암반층이 노출된다. 현재 확인되는 내벽은 복원 공사 시 쌓은 것으로 원 성벽과는 무관하다. 트렌치 내부에서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1기가 노출되었는데 직경 1m 내외이며 석재의 하단에는 작은 할석과 와편이 박혀 있다. 성 내벽 가까이



도면 8. 9+17구간 출토유물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이 평탄지를 이루고 있어 발굴조사 시 확장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출토유물

① 백자대접 저부 (도면 8-①, 사진 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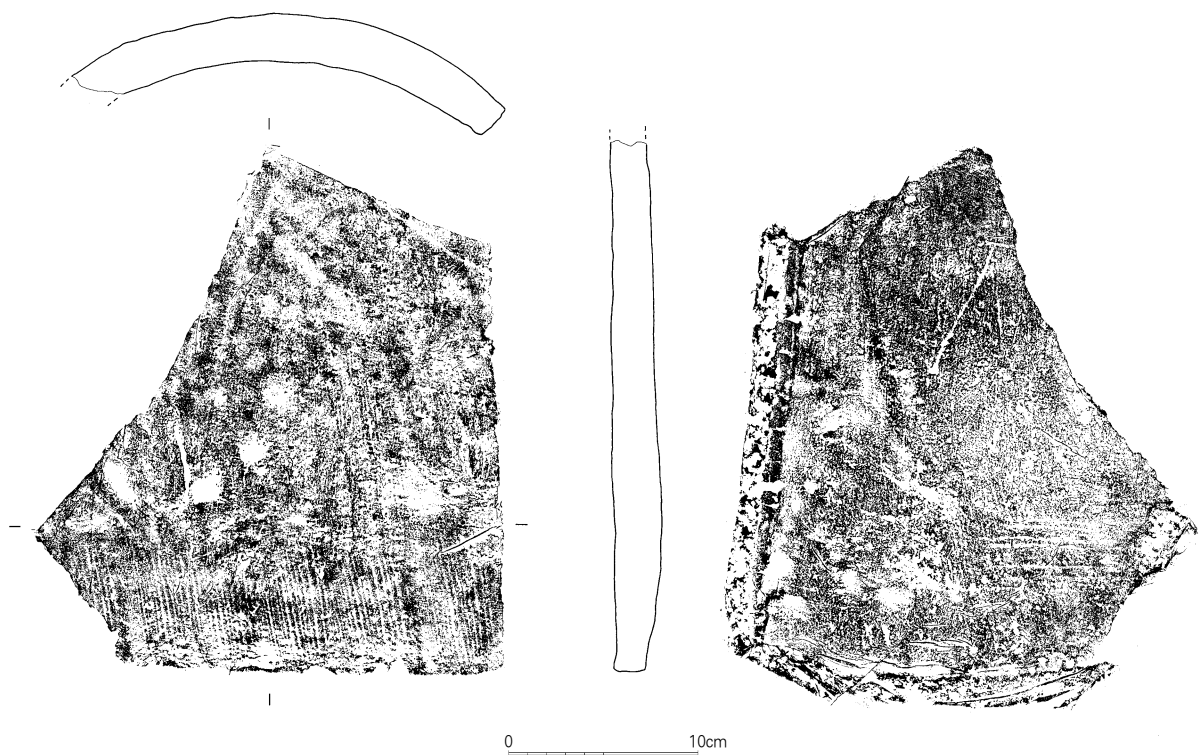
저부와 굽의 일부가 남아있는 백자대접이다. 기벽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굽에 이르는데 잔존하는 기벽의 최대폭이 10.2cm인데 비해 굽경이 6.7cm로 넓은 편이다.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잔존 높이 5.4cm, 굽경 6.8cm이다.

② 철정 (도면 8-②, 사진 8-③)

표면의 부식이 심하나 단면 방형의 철정으로 보인다. 상부는 두껍고 침부로 갈수록 몸체가 가늘어지는 형태이며 머리를 따로 만들어 덧붙이지는 않은 무개형 철정이다. 11.5cm의 길이에 동체부 폭이 1.2cm~0.6cm 규격이다.

③ 와 (도면 9, 사진 8-④)

무문의 등판에 빗질흔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암키와의 일부이다. 흑회색 표면에 검은 그을음이 있



도면 9. 9+17구간 출토기와

으며 배면에는 포문이 마찰흔과 함께 관찰된다. 하단 내면을 조정하였으며 틀에서 소성할 때 접착을 막기 위해 뿌린 것으로 보이는 모래흔적이 하단에서 관찰된다. 안쪽에서 와도를 그어 부러뜨렸으며 파쇄면은 다듬지 않았다. 두께 2~2.5cm, 잔존 길이 28cm이다.

4) 20+5구간

(1) 현황(사진 9-①)

치 3 부근의 성내벽에 설정된 트렌치로 원 성벽의 내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원 성벽의 내벽은 토층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성 내쪽으로 오면 지표 아래에서 바로 암반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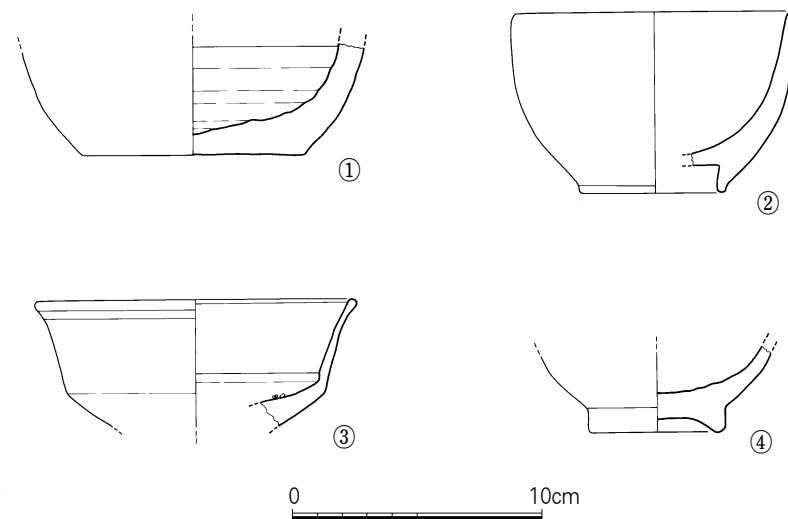
(2) 출토유물

① 백자 저부 (도면 10-①, 사진 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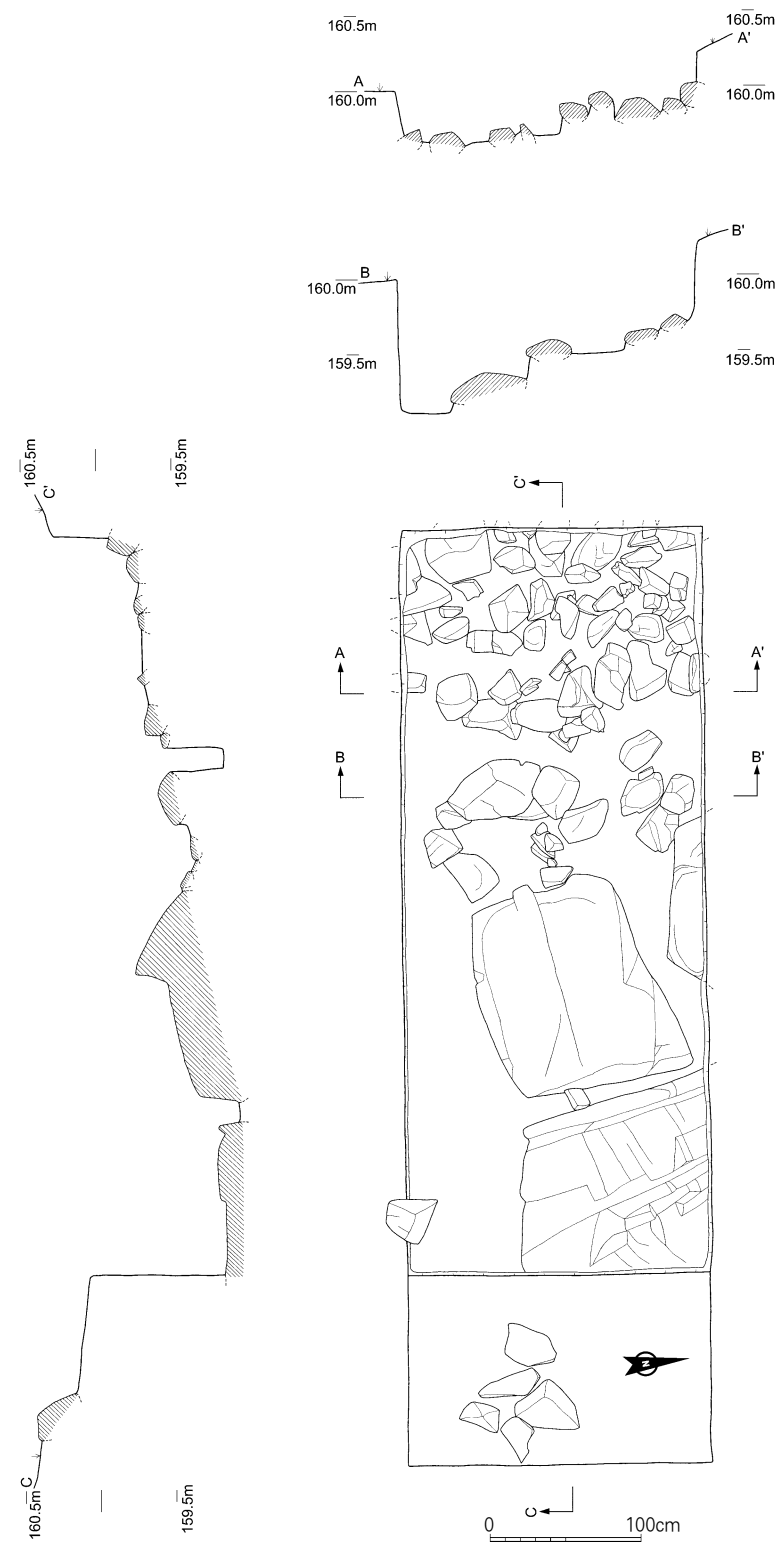
치밀한 태토로 만들어진 병이나 호의 평저 바닥 부분으로 보인다. 외벽 바닥과 안벽 및 안벽 바닥에 물레흔이 나 있고 외벽에 청백색유를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거의 유백색으로 산화되었다. 복원 저경 9cm, 기벽 두께는 1cm 이상이고 잔존 높이 4.2cm이다.

② 백자대접 (도면 10-②, 사진 9-③)

직립한 구연이 거의 수직의 기벽을 이루며 내려와 굽에 이르는 기형이다. 굽은 반안굽으로서 굽안바닥을 깊이 파내었다. 백색유를 기벽 전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좋아 광택이 있다. 복원 구경 11cm, 높이 7.2cm, 굽경 5.2cm이다.



도면 10. 20+5 지점 출토유물



도면 11. 25+0 지점 평·단면도

③ 백자대접 (도면 10 - ③, 사진 9 - ④)

구연과 바닥의 일부만 남은 백자대접이다. 살짝 외반한 구연이 급한 사선으로 내려가 한 줄의 원각을 만나고 바닥으로 이어진다. 회갈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빙렬이 전체에 걸쳐서 관찰되고 안바닥 일부에서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보인다. 복원 구경 12.6cm, 잔존 높이 5cm이다.

④ 백자대접 저부 (도면 10 - ④, 사진 9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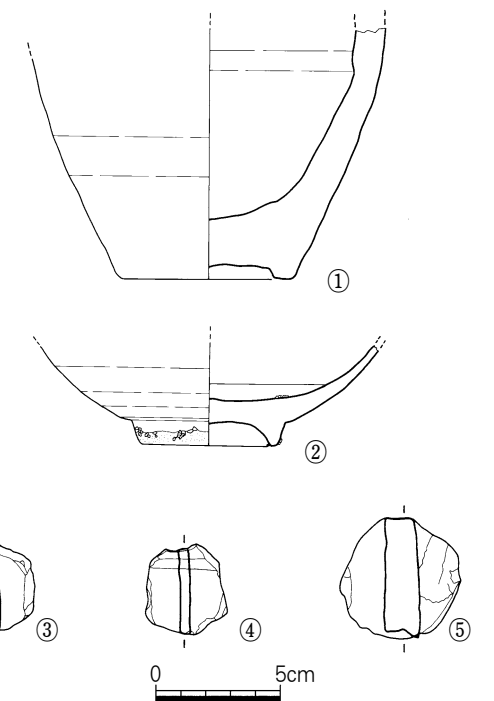
백자대접 저부의 일부이다. 태토는 양질이며 회갈색유가 두껍게 시유되었다. 굽안바닥은 오목하게 돌려 봤으며 역시 회갈색유를 시유하였고 모래받침으로 변조하였다. 기벽 안바닥에 포개구이 흔적이 있다. 광택이 좋고 전면에 빙렬이 있다. 잔존 높이 3cm, 굽경 5.2cm, 굽높이 1cm이다.

5) 25+0 구간

(1) 현황 (도면 11, 사진 10)

서문의 북쪽에 성 내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트렌치로 내부에서 폭 150cm 가량의 할석층이 노출되었다. 할석층의 30cm 아래 쪽에는 직경 80cm 가량의 둥근 석렬 1개가 있는데, 석렬의 뒤쪽(안쪽)에는 바로 뒤에 있는 암반에서 박리된 것으로 보이는 가공되지 않은 석재 1점이 놓여 있다.(사진 11-①)

성 내벽의 할석층은 내환도의 기능을 가진 석렬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석렬은 36+3 구간에서도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벽 복원공사 시 내벽 보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도면 12. 25+0 트렌치 출토유물

(2) 출토유물

① 청자병 저부 (도면 12 - ①, 사진 11 - ②)

병의 저부로서 굽의 접지면 폭이 0.8cm에 이르나 굽안바닥은 0.5cm 깊이로 얇게 파내어 낮은 굽형태를 갖는다. 기벽이 1.0cm 이상으로 두꺼운 편이며 녹청색 유약이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병임에도 안벽과 안바닥에까지 시유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잔존높이 10.1cm, 굽경 7cm이다.

② 백자접시 저부 (도면 12 - ②, 사진 11 - ③)

기벽과 굽이 남아 있는 백자접시의 일부이다. 안바닥에 1줄의 원각을 돌렸으며 일반굽을 갖는데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파내고 회백색유를 전체에 시유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은 닦아내고 굽은 모래를 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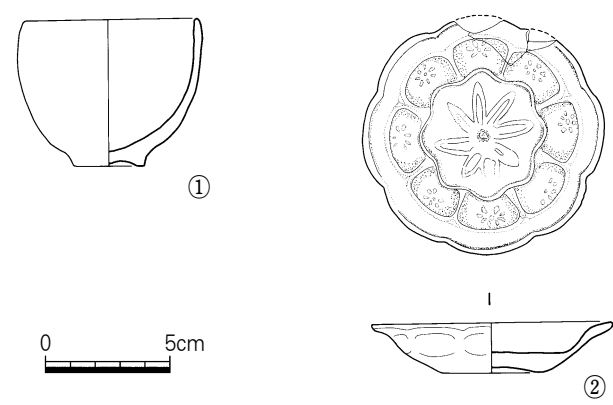
려 번조하였다. 기벽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부분에는 굽은 모래가 엉겨 있다. 굽경 5.2cm, 잔존 높이 3.8cm이다.

③ 원판형 토제품
이 구간에서는 토기편과 외편으로 제작된 원판형 토제품 3점이 수습되었다. 그 속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12-③	11-④	회백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7×3.4
13-④	11-⑤	흑회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4×3.2
12-⑤	11-⑥	무문·포문기와	측면 부드럽게 마연	1.4×4.8

6) 36+3 구간

(1) 현황 (도면 13 사진11-⑦, 12-①, ②)



도면 14. 36+3 트렌치 출토유물

벽을 향하고 있어 배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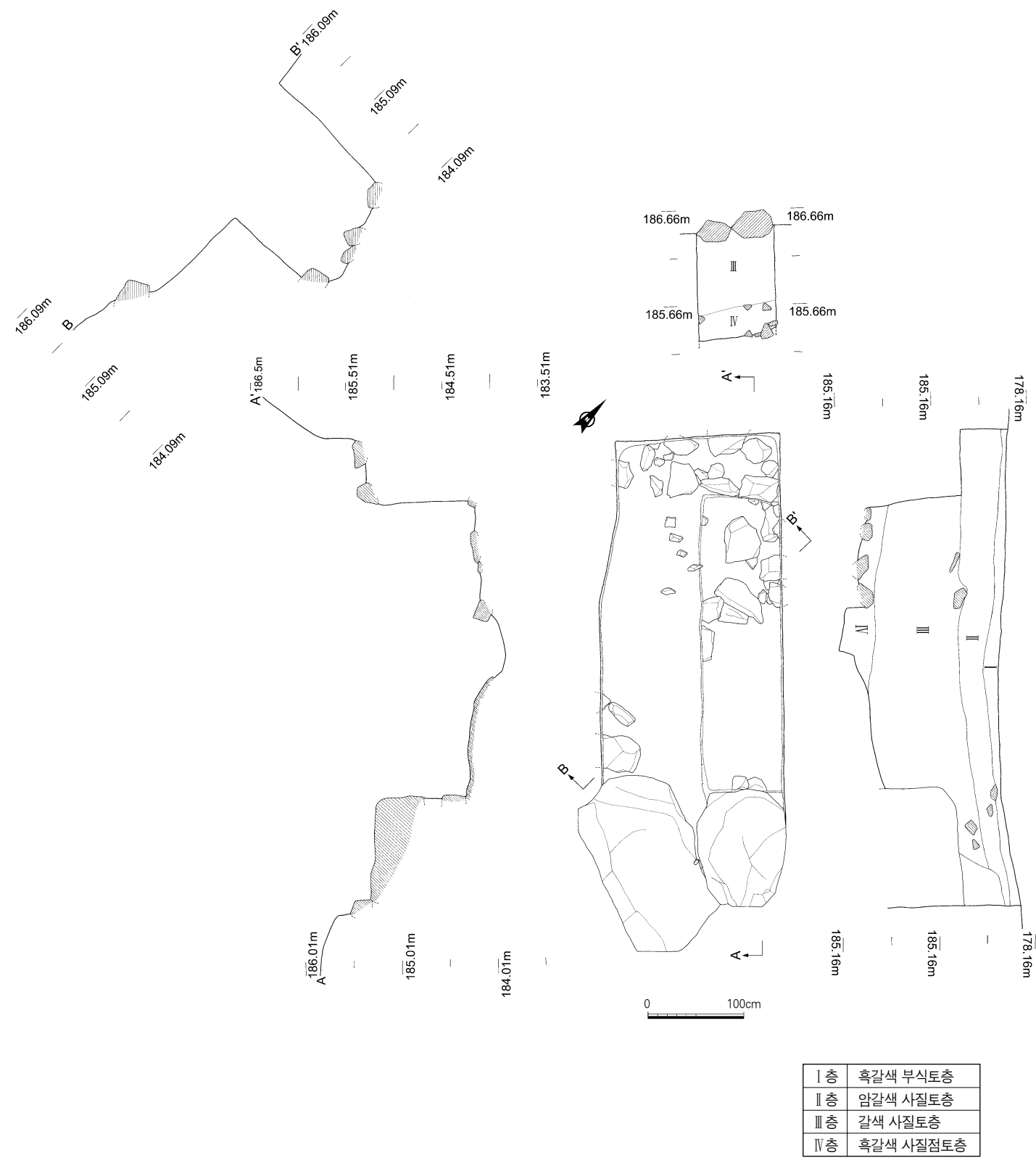
(2) 출토유물

① 청자잔 (도면 14-①, 사진 13-③)

약간 내만한 구연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며 굽에 이르는 1/2이상 파손된 소형잔이다. 회록색의 유약이 굽부분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가 좋지 못해 외벽이 거칠다. 특별한 장식은 없고 굽은 일반굽이다. 굽안바닥을 돌려 파냈고 접지면은 일정하지 못하다. 높이 5.8cm, 복원구경 6.8cm 굽경 2.8cm이다.

② 청자접시 (도면 14-②, 사진 13-④, ⑤)

오목굽에 花葉形 모양으로 퍼진 기형의 소형 청자접시이다. 元香寺址 발굴⁴⁴⁾에서 다량 수습된 바 있



도면 13. 36+3 구간 평·단면도 토층도

는 소형 접시류와 유사한 기형으로 12세기 청자류의 전형적인 예이다. 전체가 8엽의 꽃잎 형태를 띠면서 하나의 꽃잎마다 다시 중앙에 섬세한 화문이 찍혀 있으며 안바닥에는 화문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녹색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착색과 용융상태가 원형사 출토품보다 양호한 편이다. 일부 기벽에서는 광택이 없이 유약이 묻쳐 있기도 하다. 외벽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높이 2cm, 구경 9.8cm, 저경 4cm이다.

2. 성 내부 트렌치 조사내용

독산성내에는 세마대를 중심으로 하여 남, 서, 북쪽에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과 서쪽의 평탄지는 계단식으로 조성되었는데, 북쪽으로도 일부 평탄지가 관찰된다. 세마대의 동쪽에는 '보적사'가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독산성의 평탄지는 동문에서 서문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바로 성벽으로 연결되어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을 취하고 있다. 성내의 평탄 대지는 대부분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원래 높았을 세마대를 중심으로 평탄지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華城誌』⁴⁵⁾에 따르면 성내에는 167.5칸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건물은 운주당과 진남루이다. 이번 조사는 운주당, 진남루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남문 주변의 평탄지역과, 서쪽 평탄지 일부, 세마대 등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이루어졌으며 평탄지마다 건물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지의 규모, 성격 등을 이번 시굴조사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각 건물지의 규모 확인 등은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트렌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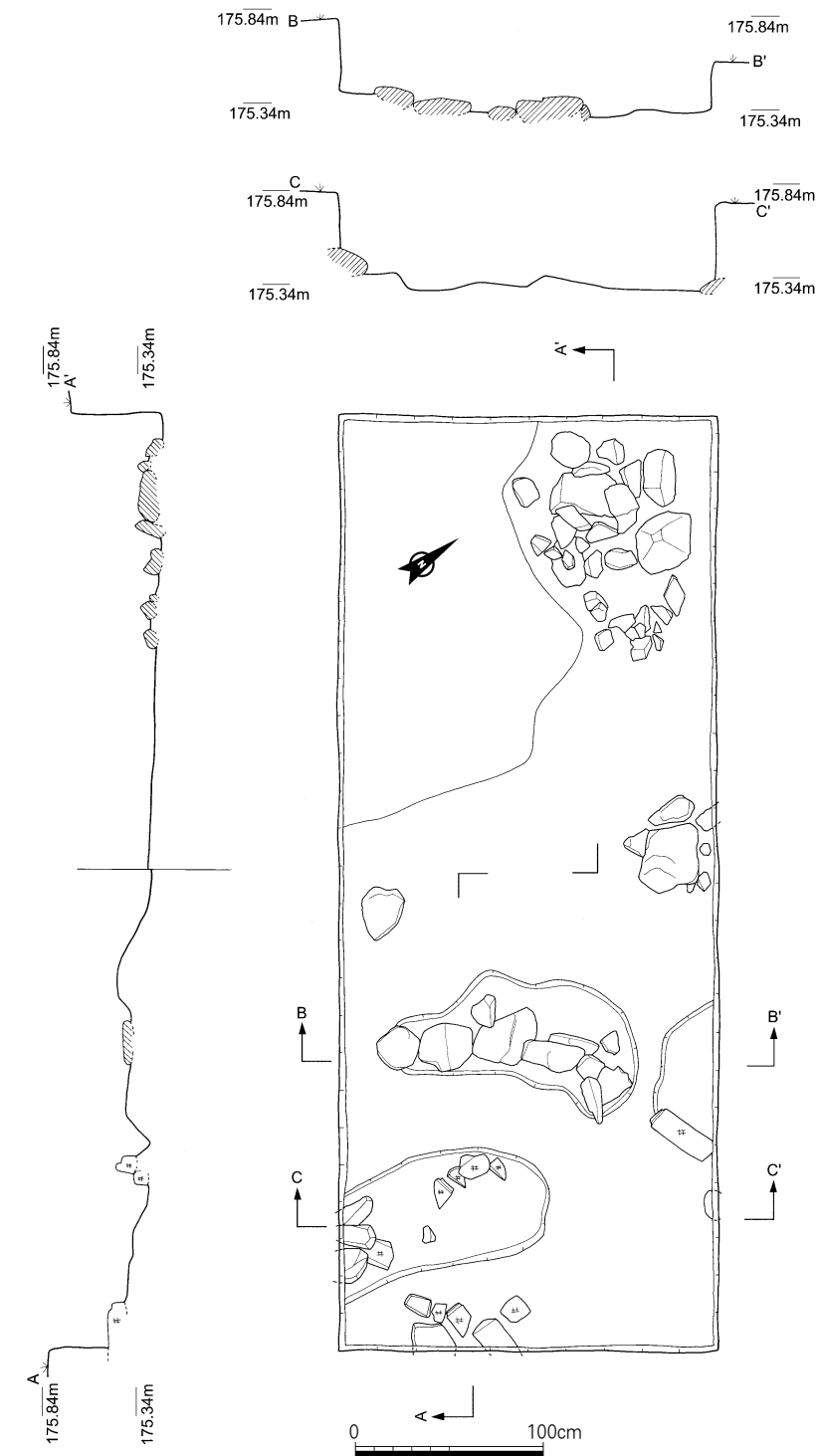
(1) 현황 (도면 15, 사진 14 - ①, ②)

세마대에서 남문지를 향해 만들어진 첫 번째 평탄지에 2×5m 크기의 동서 방향으로 설정된 트렌치이다. 트렌치 내부 서쪽 폭 60~80cm의 장타원형에 가까운 구덩이에 소토와 재층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조선시대 수키와가 놓여 있었고 구덩이 안에는 20~30cm 정도의 할석들이 일렬로 놓여 있는데, 특별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구덩이는 형태와 특징으로 볼 때 연소 시설로 추정되며, 구덩이에서 2m 동쪽으로, 직경 80cm 정도의 원형 석렬 1기가 확인되고 있어 이 석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 석렬은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1기가 더 있는데, 소토와 재층으로 이루어진 구덩이들은 원형 석렬의 뒤쪽에 해당된다. 그러나 둘의 상관여부는 트렌치 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확장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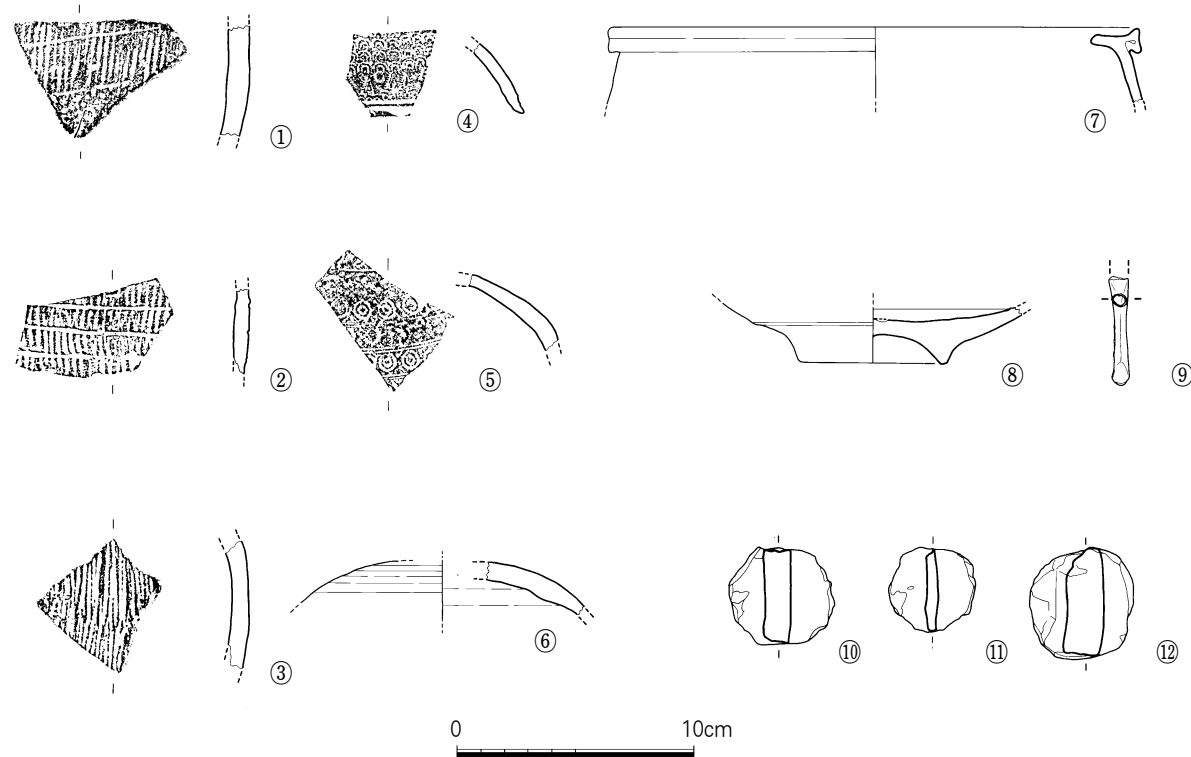
트렌치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은 완형의 조선시대 수키와를 비롯하여, 백자편 및 도기편, 인화문토기

44) 기전문화재연구원, 『여주 원형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1999.

45) 운주당(運籌堂)은 통제사등이 군무를 보는 집무실을 뜻하는데, 군영에만 설치된다. 이러한 이름의 공해는 忠淸道 水軍節度管, 平安道兵管 등 전국각지의 주요 병영에서 발견된다.



도면 15. 트렌치 1 평·단면도



도면 16. 트렌치 1 출토유물

등이 있다.

(2) 출토유물

①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16 - ①, 사진 14 - ④)

2cm 간격으로 2줄 남아 있는 횡침선의 상하로 승문과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잔존 길이 4.9cm, 두께 0.9cm이다.

②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16 - ②, 사진 14 - ⑤)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횡으로 침선을 돌린 적갈색 토기편이다. 두께 0.6cm 내외, 잔존 길이 3.1cm이다.

③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16 - ③, 사진 14 - ⑥)

회백색토기 동체부편으로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길이 5.8cm, 두께 0.4~0.8cm이다.

④ 인화문 토기뚜껑 (도면 16 - ④, 사진 14 - ⑦)

뚜껑 외벽에 이중반원점문이 수평으로 나란하게 압인되고 그 아래로 삼각점열문과 원문이 압인되었으며, 2줄의 횡선으로 마감되어 있는 문양이다. 표면에 자연유의 흔적이 있다. 두께 0.5cm, 잔존 길이 3.4cm이다.

⑤ 인화문토기 뚜껑 (도면 16 - ⑤, 사진 14 - ⑧)

외벽에 이중 원문과 국화문이 이중 횡선을 두고 연속으로 교차되는 인화문 뚜껑편이다. 여기에 녹갈색의 자연유가 문양의 음각선 부분을 채우고 부분적으로 둥글게 문쳐서 광택을 내고 있다. 내벽에는 물레흔이 관찰된다. 두께 0.6cm, 잔존길이 4.5cm이다.

⑥ 토기 뚜껑 (도면 16 - ⑥, 사진 14 - ⑩)

속심은 적갈색, 기표면은 회청색을 띠고 있는 뚜껑의 일부로 드림새와 손잡이는 결실되었다. 안팎으로 물레흔이 뚜렷하며 잔존 높이 2.2cm, 두께 0.7~1cm이다.

⑦ 흑유용 구연부 (도면 16 - ⑦, 사진 14 - ⑨)

구순부의 상면이 거의 수평이 되게 외반하여 전을 이루고는 외벽 쪽으로 접은 형태로 구연에 1줄의 선을 돌렸다. 황갈색과 녹갈색을 띤 흑유가 시유되었으나 용융 상태가 좋지 못하다. 잔존 높이 3cm, 두께 0.6cm이다.

⑧ 백자접시 저부 (도면 16 - ⑧, 사진 15 - ①)

굽과 안바닥에 원각 일부가 남아있는 저부편이다. 도립삼각굽으로 굽 안바닥을 오목하게 파내고 백색유를 시유하였는데 접지면과 굽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태토 비집눈을 4개 놓아 번조하였다. 용융 상태가 불량하고 광택이 적으며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잔존 높이 2.2cm, 굽경 5.6cm이다.

⑨ 청동제품 (도면 16 - ⑨, 사진 15 - ②)

두께 1mm 이하의 얇은 동판을 둥글게 말고 끝단을 눌러 붙여 뱀머리처럼 만들고 다른 부분은 단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속이 비어 있다.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손잡이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길이 4.2cm, 두께 0.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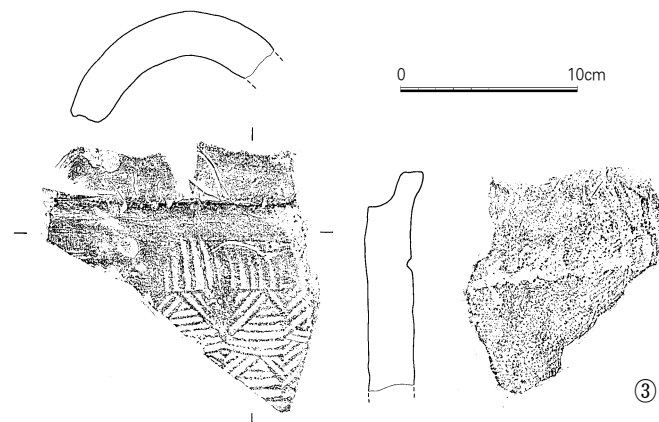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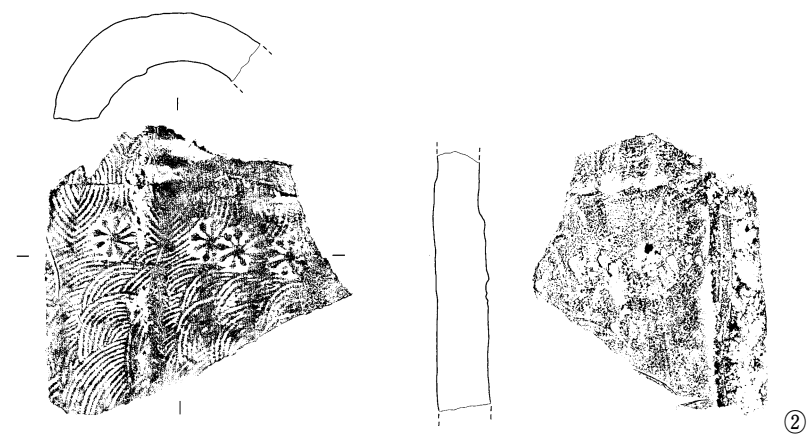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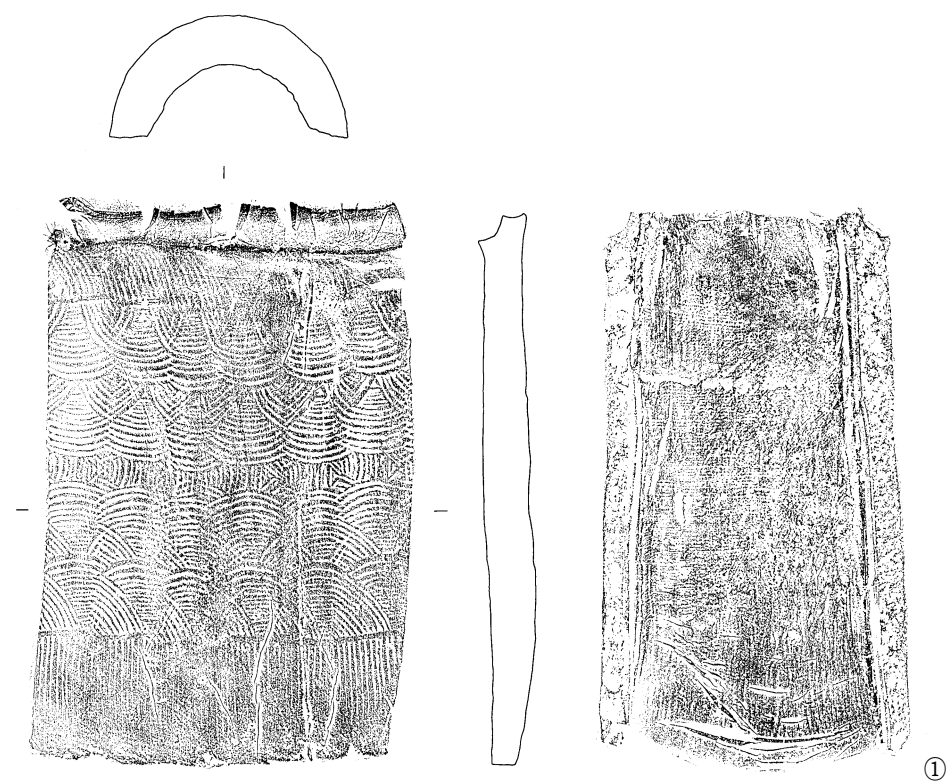
⑩ 원판형 토제품

이 트렌치에서는 옹기편, 토기편, 와편을 소재로 만든 원판형 토제품이 3점 수습되었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17 - ⑩	15 - ③	적갈색 옹기편	1cm 간격으로 가공	1.1×3.7
17 - ⑪	15 - ④	흑회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4×3.5
17 - ⑫	15 - ⑤	회백색 무문와편	방형으로 가공	1.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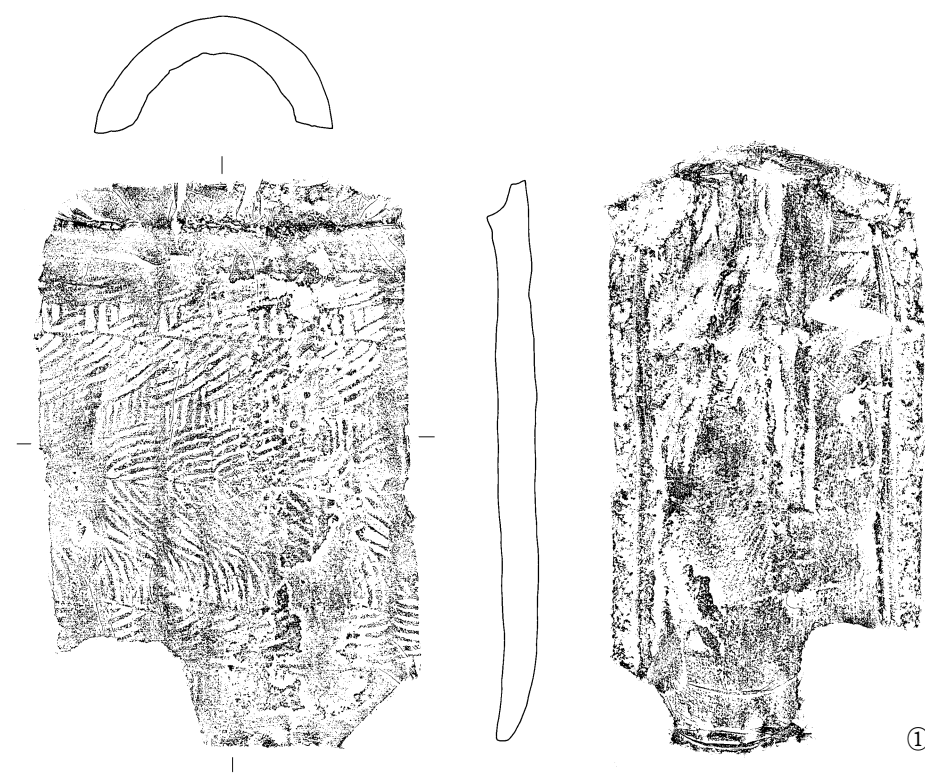
⑪ 와 (도면 17 - ①, 사진 15 - ⑦)

청해파집선문이 타날된 수키와이다. 두들기면 쇳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하며 자연유의 흔적으로 부분적으로 윤기가 난다. 이면에서는 포문이 관찰되고 안에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파쇄면은 다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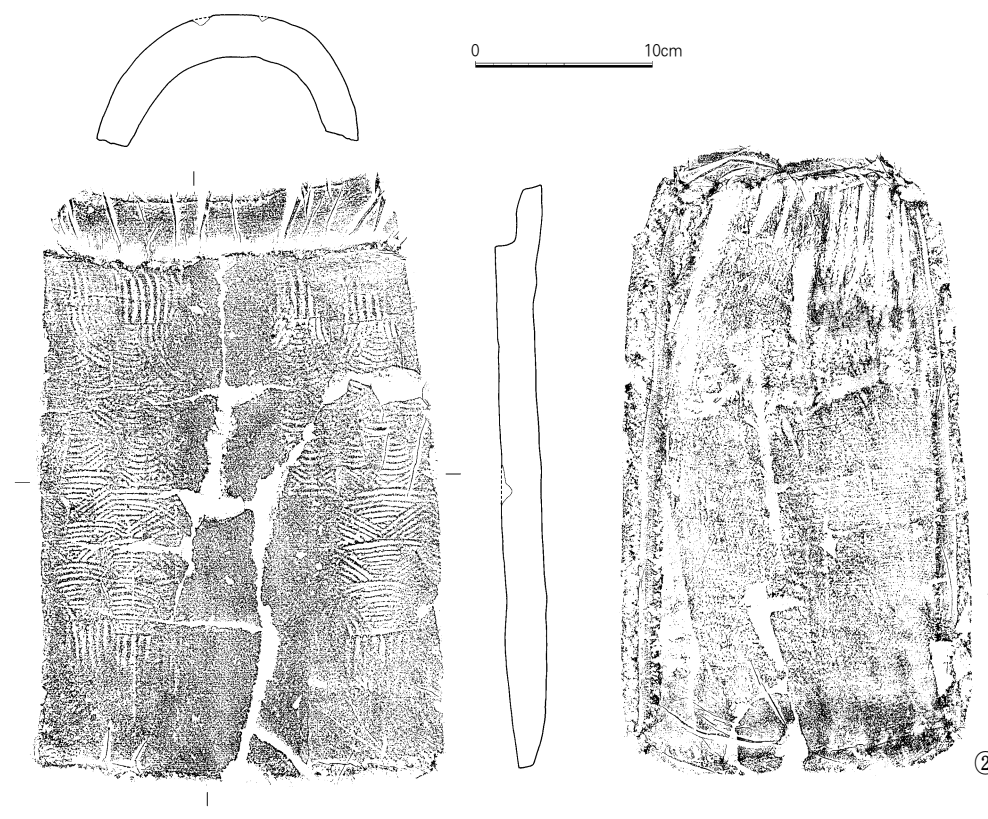


0 10cm

도면 17. 트렌치1 출토기와



0 10cm



도면 18. 트렌치1 출토기와

않았고 하단 내면을 다듬었다. 미구가 2cm 길이로 붙어 있고 전체 길이는 31.5cm, 두께는 2.6cm이다.

⑫ 와 (도면 17 - ②, 사진 15 - ⑧)

어두운 적갈색을 띤 수키와의 일부로 등면에는 청해파문과 9葉의 花紋이 복합되어 타날되어 있다. 언강의 유무는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자연유가 균일하지는 않으나 전체에 퍼져있어 부분적으로 광택이 난다. 포문은 거의 지워지고 마찰흔만이 남아있으며 와도는 안에서 그었다. 두께 3cm, 잔존길이 14.5cm

⑬ 와 (도면 17 - ③, 사진 15 - ⑨)

짧은 언강이 붙은 미구기와로서 흑갈색의 경질와이다. 선문과 집선거치문이 결합되어 있으며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고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엉겨 있다. 두께 2.6cm, 잔존 길이 13cm이다.

⑭ 와 (도면 18 - ①, 사진 15 - ⑦)

흑회색 경질의 수키와이다. 길이 35.1cm, 미구폭 13.5cm 크기이며 등면에 창해파문류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포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지워지고 마찰흔 만이 남아 있으며 안쪽에서 와도를 그어 부러뜨렸다. 기와의 하단 귀퉁이를 일부러 깨어낸 듯이 보이며 전면에 검은 그을음이 남아있어 연소유구와 관련된 시설에 이용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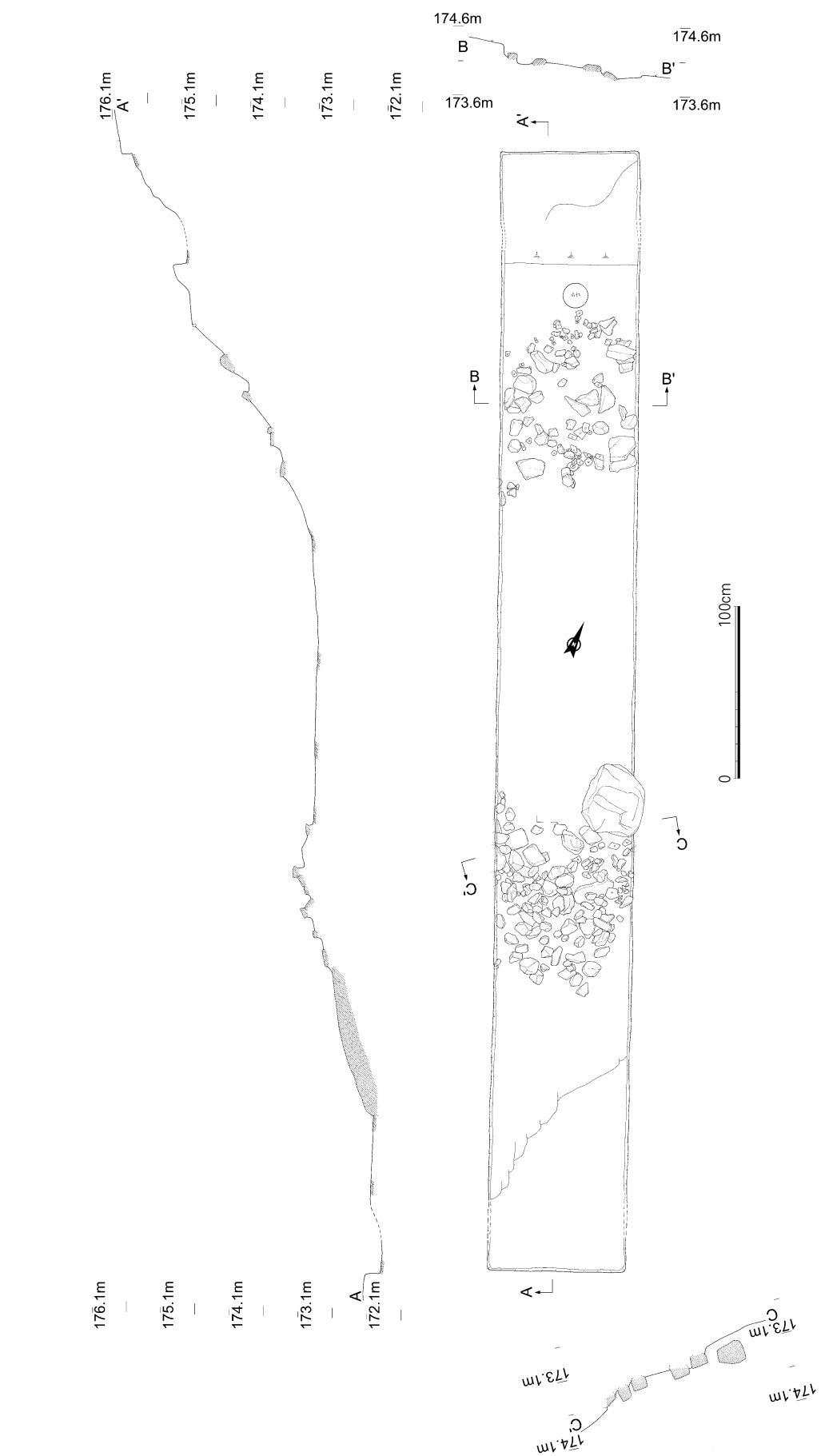
⑮ 와 (도면 18 - ②, 사진 15 - ⑩)

등면에 창해파문류의 문양이 타날되고 이면에 포문이 마찰흔과 함께 관찰되는 회갈색 수키와이다. 안쪽에서 1/2 깊이 이상의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하단에 와도를 잘못 그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음각선문이 남아있다. 역시 연소유구와 연관되는 시설에 이용된 듯이 보이며 등면에 그을임이 붙어 있다. 길이 33cm, 미구 폭 15.5cm 크기이다.

2) 트렌치 2

(1) 현황 (도면 19, 사진 16 - ①, ②, ③)

2×17m 크기로 남북방향으로 설정하여 굴토한 트렌치로, 트렌치 3의 서쪽에 있다. 트렌치 2의 북쪽에는 세마대에서 바로 연결되는 평탄지가 있으나 현재 분묘가 위치하여 담장렬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된 아래단에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트렌치 내부에서는 2개의 석렬이 노출되었는데 북쪽의 석렬은 조선시대 와편의 일부가 섞인 할석층으로 경사면에 일정한 형식 없이 놓여 있다. 여러 부분이 훼손되어서 정확치는 않으나 위의 단을 보강하는 축대의 일부로 추정된다. 남쪽 석렬 주변에서는 많은 양의 백자와 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폭 300cm의 이 석렬은 담장렬로 추정되나, 초석은 트렌치 내부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도면 19. 트렌치 2 평·단면도

(2) 출토유물

① 토기 구연부 (도면 20 - ①, 사진 16 - ④)

발 종류로 보이는 기형의 구연부 일부이다. 회갈색의 속심과 내벽, 흑갈색의 외벽으로 이루어지며 가는 석립이 섞인 니질태토이다. 구연부에서 안으로 내만하다가 밖으로 꺾여 마무리 되었다. 구순부에 횡선을 한 줄 돌려 뚜껑과의 연결성을 높였다. 복원 구경 24cm, 잔존 길이 3.5cm이다.

② 대웅 구연부 (도면 20 - ②, 사진 16 - ⑤)

대웅의 구연부편으로 보인다. 작은 석립이 섞인 회백색 혹은 회갈색 태토로 이루어졌으나 안팎의 외벽은 흑회색이고 구연의 일부는 연갈색이다. 내만하는 구연으로 구순부를 안으로 접어넣었다가 송이버섯 모양으로 솟아오르게 뒤로 접어낸 후 밖으로 접어 내려 마무리하였다. 추정구경 37cm, 잔존높이 2.5cm 이다.

③ 대웅 구연부 (도면 20 - ③, 사진 16 - ⑥)

대웅으로 보이는 기형의 구연부 일부이다. 가는 석립이 섞인 치밀한 흑회색 니질 태토를 가진다. 내만하는 구연으로 구순부를 안으로 접어 넣었다 다시 밖으로 꺾어 6.3cm 넓이의 전을 만들었으며 홈을 1줄 돌렸다. 구경 36cm, 잔존 높이 4.8cm이다.

④ 토기 저부 (도면 20 - ④, 사진 16 - ⑦)

복원저경이 32cm인 저부로서 동이류로 보인다. 외벽 바닥에는 물레흔이 없고 그 외의 기벽과 안바닥에서는 물레흔이 관찰된다. 외벽에는 흑회색 슬립을 바른 것으로 보이며, 바닥이 약간 들린 상태이다.

⑤ 토기 저부 (도면 20 - ⑤, 사진 16 -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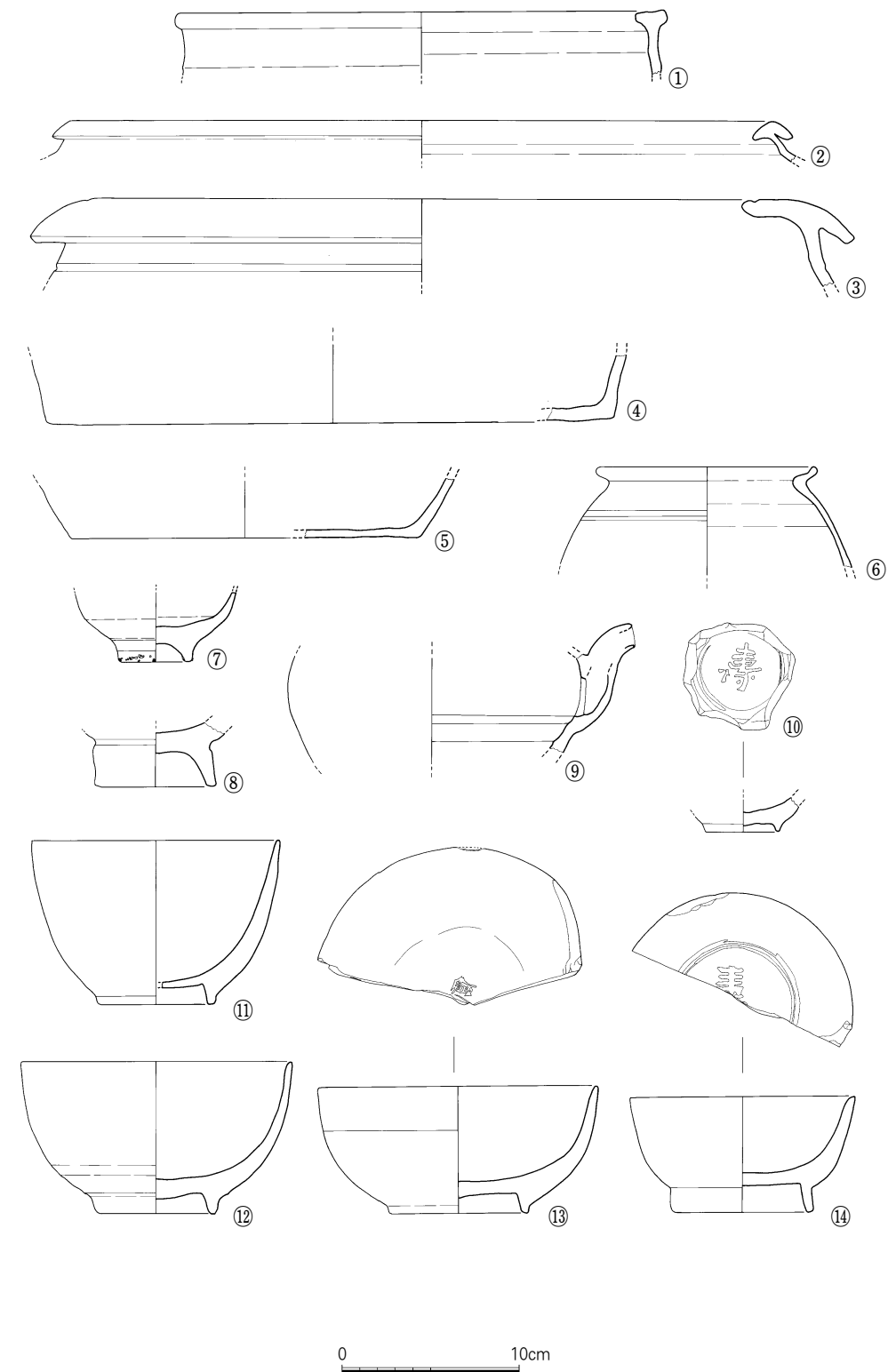
평저의 경질토기 저부편이다. 발이나 호의 저부로 보이며 안벽은 흑회색, 외벽은 연갈색으로 복원저경은 19.6cm이다.

⑥ 흑갈유호 구연부 (도면 20 - ⑥, 사진 16 - ⑨)

약간 외반된 구연의 구순부를 세워서 마무리한 흑갈유호 구연부편이다. 안팎으로 흑갈색의 유약이 물레흔을 따라 수평의 선을 그으며 흘러내렸다. 복원구경 11.6cm, 잔존 높이 5.6cm이다.

⑦ 백자잔 (도면 20 - ⑦, 사진 17 - ①)

저부와 굽의 일부가 남아있으며, 태토는 양질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 기벽이 저부와 굽에 이른다. 일반굽이며 접지면이 일정하지 않다.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안팎으로 빙렬이 심하다. 잔존 높이 3.8cm, 굽경 4cm이다.



도면 20. 트렌치 2 출토유물

⑧ 백자제기 저부 (도면 20 - ⑧, 사진 17 - ②)

구연과 기벽은 결실되어 알 수 없는 제기의 굽부분이다. 접시류로 보기에는 안바닥이 오목하며 굽의 비중이 큰 기형이다. 잡물이 섞인 백토로 굽의 저부가 약간 벌어져 있으며 굽안바닥을 단정히 깎아내고 광택있는 회백색유를 시유하였다. 접지면을 제외한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모래 받침으로 받쳐 번조하였다. 굽경은 6.6cm, 굽높이는 2cm에 달한다.

⑨ 백자注子片 (도면 20 - ⑨, 사진 17 - ③)

구연·저부·동체 모두 결실되고 사선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며 뺀 주구와 그 주변 기벽만이 일부 남아 있다. 치밀한 백토제로 동체부에 사다리꼴로 구멍을 뚫고 주구를 이어붙인 흔적이 관찰된다. 내벽 일부에는 시유되지 않은 부분도 관찰된다. 주구 길이 3cm, 잔존 길이 6cm이다.

⑩ 청화백자 저부 (도면 20 - ⑩, 사진 17 - ④)

저부만이 남아 있는 청화백자로 안바닥에 청화안료로 2줄의 정연하지 않은 원을 그리고 ‘壽 銘’을 그려넣었다. 거친 태토에 회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은 일반굽으로 높이가 낮다. 굽경 4cm, 잔존 높이 2cm이다.

⑪ 백자대접 (도면 20 - ⑪, 사진 17 - ⑤)

약간 외반된 구연이 사선으로 내려와 굽에 이르는 기형이다. 굽은 반안굽으로 굽안바닥을 깊이 파내어 대접의 바닥이 기벽에 비해 얇다. 태토는 거칠고 잡물이 많으며 청색기가 도는 백색유로 기벽 전체에 시유하였으며 접지면만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용융 상태는 양호하나 구연 일부에 유약이 묻쳐 있다. 굽경 8cm, 잔존 높이 10cm이다.

⑫ 백자대접 (도면 20 - ⑫, 사진 17 - ⑥)

1/2이 결실되었다. 수직으로 내려간 기벽이 오목한 저부에 이른다. 태토는 백토로 조금 거친 편이며 굽은 일반굽의 형태이다. 접지면이 고르지 않아 그 폭이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청백색유를 전체에 시유하고 굽은 모래 받침으로 번조하였는데 전체에서 빙렬이 보인다. 굽경 8cm, 잔존 높이 9cm이다.

⑬ 청화백자 대접 (도면 20 - ⑬, 사진 17 - ⑦)

수직으로 내려온 기벽이 넓고 오목한 저부와 굽에 이르는 대접의 일부이다. 굽은 반안굽으로 굽안바닥을 깊이 파냈다. 백토는 양질이며 기벽 전체에 회백색유를 시유하여 번조하였다. 안바닥 중앙에 ‘壽’자를 써 넣었으며, 높이 7.2cm, 굽경 7.6cm, 구경 15.6cm이다.

⑭ 청화백자 대접 (도면 20 - ⑭, 사진 17 - ⑧)

직립한 구연이 거의 수직으로 굽과 만나는 형태이다. 안바닥에 원각 대신 청화안료로 이중의 원문을 그리고 중앙에 ‘壽 銘’을 써 넣었다. 굽은 1.4cm로 높은 편이다. 굽안바닥을 깊이 파내고 기벽 전체에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만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안팎으로 빙렬이 있으며, 복원 구경 12.6cm, 높이 6.5cm, 굽경 7.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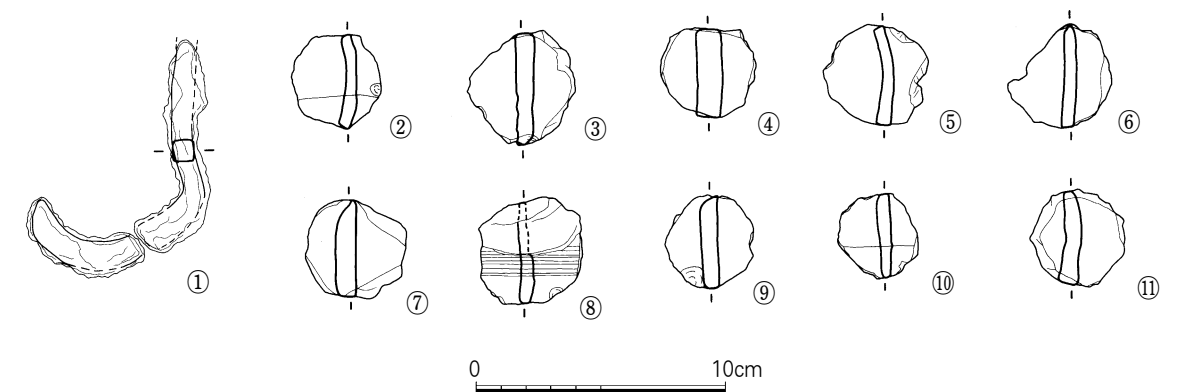
⑮ 철제품 (도면 21 - ①, 사진 18 - ①)

단면 방형이고 끝이 뾰족한 쇠막대의 끝을 구부려 놓은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며 끝단이 부러져 있다. 잔존길이 7.4cm, 두께 0.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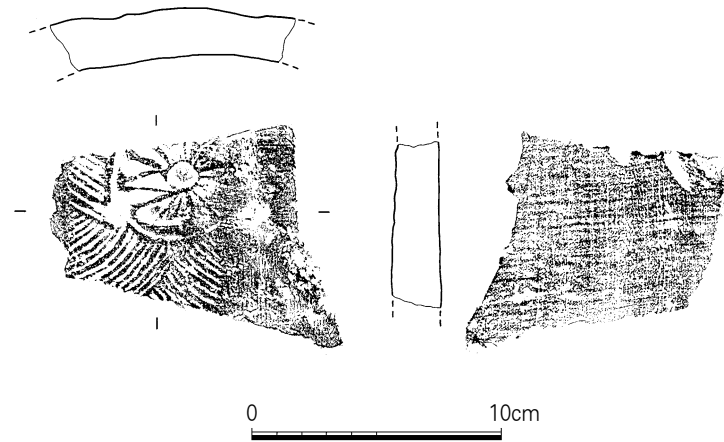
⑯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2에서는 10점의 원판형 토제품이 수습되었다. 토기편, 옹기편, 자기편, 와편 등 다양한 소재로 비교적 거칠게 제작되었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21 - ②	18 - ⑧	적갈색 옹기편	거칠게 때냄	0.4×3.7
21 - ③	18 - ④	흑갈색유 옹기편	방형으로 거칠게 땀	0.8×4.5
21 - ④	18 - ⑤	회백색 무문와편	거칠게 때냄	1×3.7
21 - ⑤	18 - ③	백자편	거칠게 때냄	0.4×3.9
21 - ⑥	18 - ⑪	흑회색 토기편	때내고 마연(반과)	0.4×4
21 - ⑦	18 - ⑫	흑회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7×3.8
21 - ⑧	18 - ⑥	회갈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5×4.1
21 - ⑨	18 - ⑤	흑회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6×3.7
21 - ⑩	18 - ⑩	흑갈색 토기편	거칠게 때냄	0.5×3.2
21 - ⑪	18 - ⑦	흑회색 도질토기	거칠게 때냄	0.7×9.8



도면 21. 트렌치 2 출토유물



도면 22. 트렌치 2 출토기와

⑬ 와 (도면 22-① 사진18-②)

차륜문과 창해파문이 복합된 회갈색 암기와와 일부이다. 이면에는 포문이 정연하게 남아 있다. 두께 1.7~2.0cm, 잔존길이 6.5cm

3) 트렌치 3

(1) 현황(도면 23, 사진 18 - ⑫, ⑬, ⑭)

트렌치 4와 같은 평탄지에 위치하며, 트렌치 1의 하단이다. 동서 방향의 2×11m의 크기로 굴토되었으며 트렌치 내부에서는 납작한 할석을 이용한 3줄의 석렬(편서30°)과 2개의 소토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트렌치의 서쪽 암반층에는 20cm 내외의 할석이 불규칙한 열을 이루고 있으나, 윗 단의 축대 등에 사용된 할석이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줄의 석렬은 구들 혹은 그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주변에서 동이 1점과 시루 1점이 출토되어 현 석렬의 아래 쪽에 아궁이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아마도 트렌치 3과 4의 주변으로는 일정한 규모의 생활 유구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출토유물

① 대부완 저부 (도면 24 - ①, 사진 19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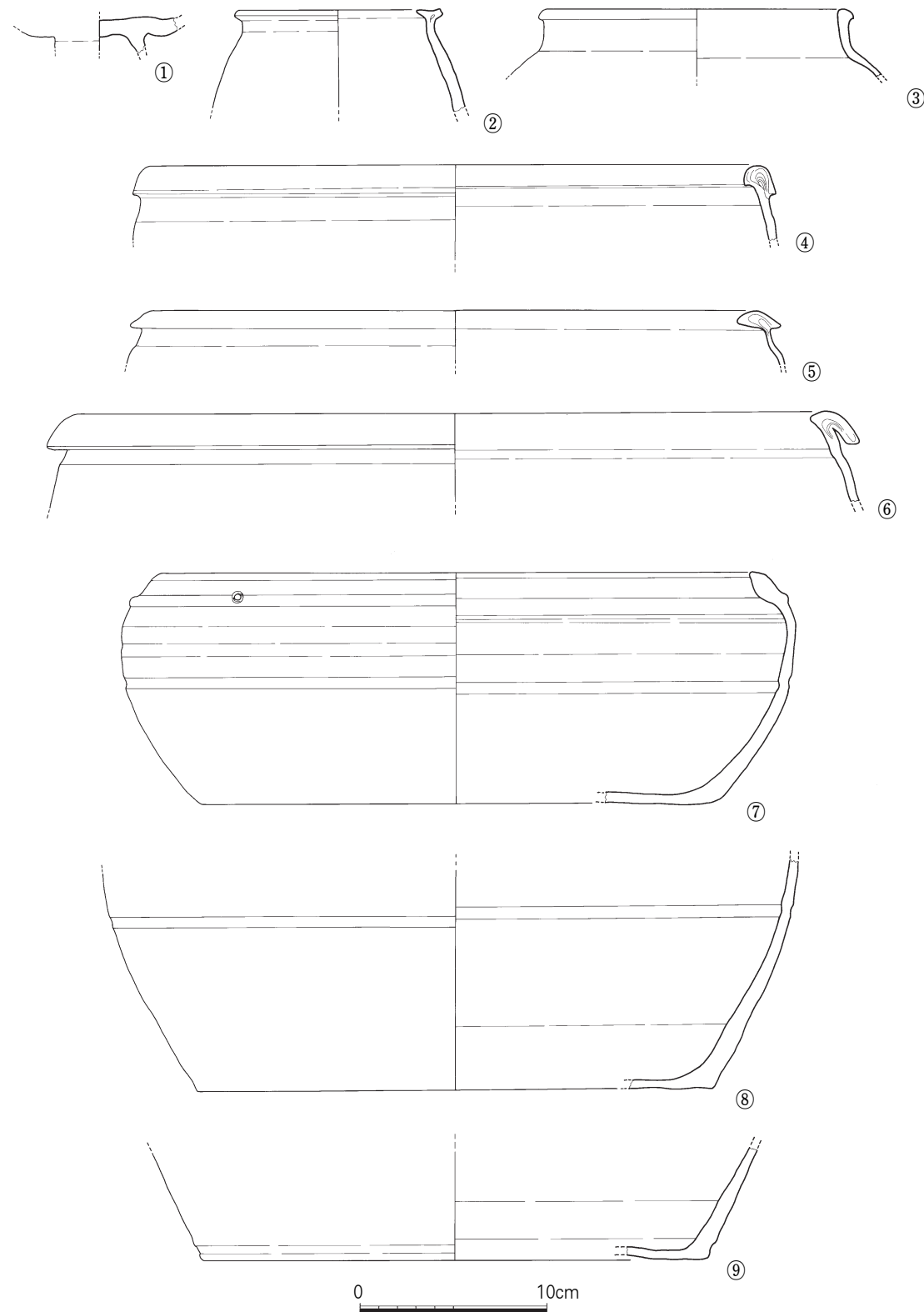
대부완의 저부 일부이다. 평평한 저부에 나팔형의 굽을 접합하였는데 결실된 부분이 많다. 니질태토에 가는 석립이 섞여 있으며 외벽에는 회갈색 슬립을 입혔다. 잔존 높이 1.8cm, 굽경 2.8cm이다.

② 토기 구연부 (도면 24 - ④, 사진 19 - ④)

시루나 동이류의 구연부로 보인다. 구연부가 약간 내경하다가 밖으로 넘겨져 말렸다. 치밀한 니질의 태토로 속심은 연회갈색, 안팎의 벽은 회갈색조로 물레흔이 남아 있다. 복원 구경 32cm, 잔존 길이 3.5cm이다.



도면 23. 트렌치 3 평·단면도



도면 24. 트렌치 3 출토유물

③ 토기 구연부 (도면 24 - ⑤, 사진 19 - ⑤)

대웅이나 동이의 구연부로 보인다. 속심은 연갈색, 내외벽은 흑회색을 띠는데 치밀한 니질태토로 만들어졌다. 서서히 내경하다 경부에서 구연으로 연결되면서 깊은 각도로 꺾여든 후 구순부가 송이버섯처럼 솟아올랐다가 뒤로 접혀지며 마무리되었다. 안팎으로 물레흔이 남아있다. 복원 구경 30cm, 잔존 높이 2.6cm이다.

④ 대웅 구연부 (도면 24 - ⑥, 사진 19 - ⑥)

대웅으로 보이는 기형의 구연부 일부이다. 내만하는 구연에서 뒤로 꺾인 구순부가 아래를 향해 마무리되며 접혔다. 태토는 치밀한 회백색의 점토질로서 안팎으로 흑회색 슬립을 입혔으며 물레흔이 남아있다. 복원 구경 38cm, 잔존 높이 4.8cm이다.

⑤ 단경광구호 (도면 24 - ⑦, 사진 19 - ⑦)

내만하는 구연에서 외벽쪽으로 접어서 약간 도톰하게 처리된 넓은 입이 어깨에서 한 줄의 테두리를 만난 후 벌어져 최고 지름을 이루고는 거의 수직을 이루며 내려가 평저에 이르는 기형으로 ½이 결실되었다. 고운 니질 태토에 굵은 석립을 섞어 놓았는데 일부 기벽에서는 돌가루가 떨어져 나가 기벽이 거친 상태이나 흑갈색의 슬립을 입힌 외벽은 빈틈 없이 횡방향으로 갈아내 마무리하여 표면이 매끈하다. 내벽과 안바닥은 연회갈색이고 외벽 바닥에는 연갈색에 흑회색의 탄화된 겨가 박혀있다. 이는 물레와의 접착을 예방하고자 의도적으로 뿌린 것으로 보인다. 어깨부분에서 수리공으로 보이는 구멍이 확인되었다. 일견해 보면 풍납토성 출토의 백제토기와 유사하여 주목되는 토기이나 구연과 건부의 처리 등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⁴⁶⁾ 복원 구경 28.6cm, 높이 11.2cm이다.

⑥ 토기 저부 (도면 24 - ⑧, 사진 20 - ③)

니질 태토에 굵은 사립이 섞인 태토로서 속심은 연회갈색을 띠고 안팎의 기벽은 흑회색이다. 외벽 바닥을 제외한 안벽, 안바닥, 외기벽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동체부에 안팎으로 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단단하다. 복원 저경 27cm, 잔존 높이 11.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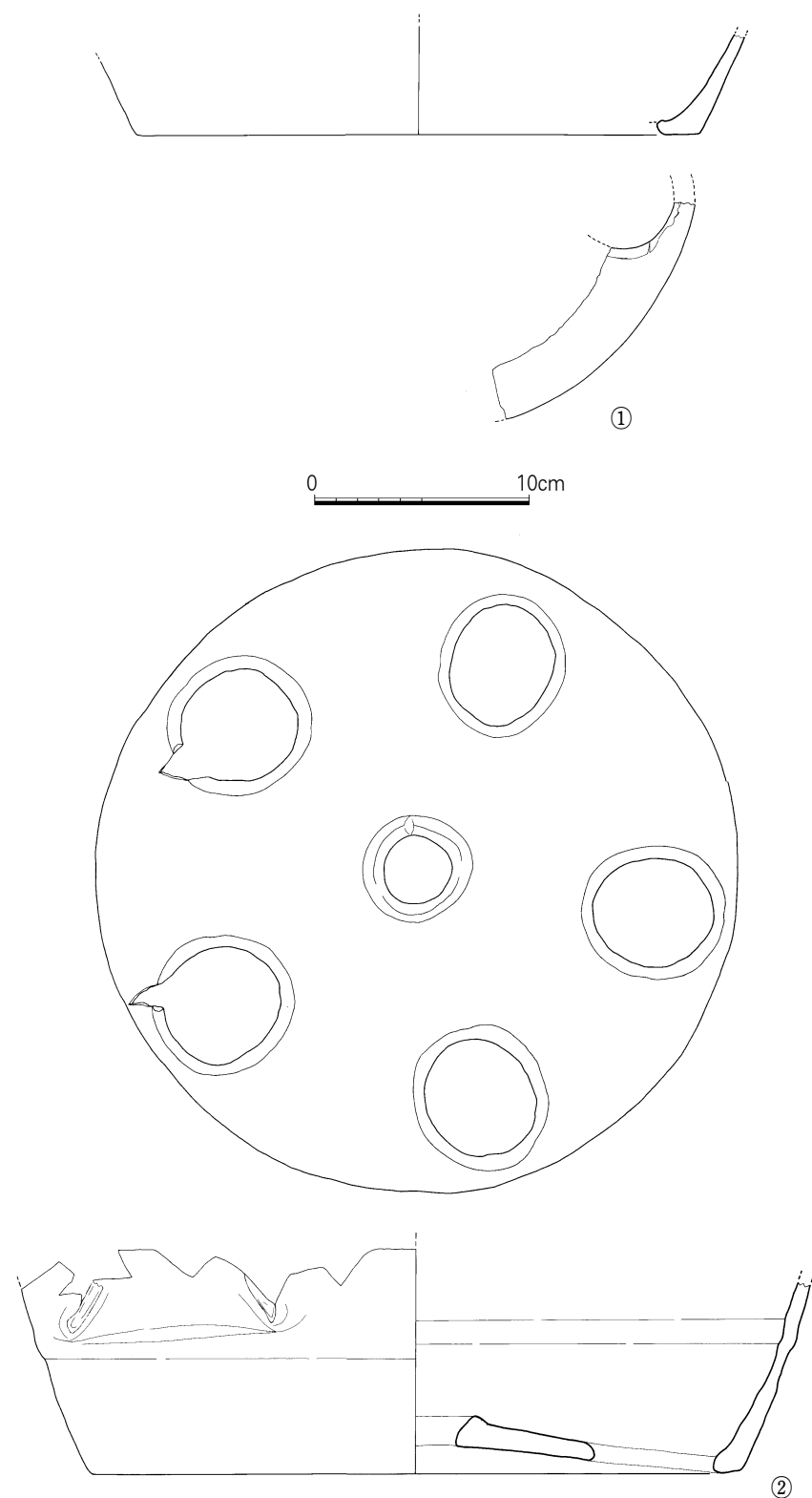
⑦ 토기 저부 (도면 24 - ⑨, 사진 20 - ②)

표면과 속심이 흑회색이고 중간에 연회색이 끼어있으며, 내외면에 물레의 성형흔이 나타나 있다. 저부 바닥에서는 원형의 동심원문이 관찰되며, 복원 저경은 26.6cm, 잔존 높이 5.8cm이다.

⑧ 시루 저부 (도면 25 - ①, 사진 20 - ①)

정선된 니질 태토로서 속심은 연갈색, 내외벽은 흑회색이며 직경 5cm로 추정되는 원형의 구멍을 下

46) 최중택, 『漢江流域採集百 土器類』,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26~27쪽, 82~83쪽.



도면 25. 트렌치 3 출토유물

→ 上 방향으로 뚫은 것으로 관찰되나 갯수나 그 위치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복원 저경 26cm, 잔존 높이 3.5cm, 기벽 두께는 0.5~0.6cm이다.

⑨ 시루 저부 (도면 25 - ②, 사진 20 - ④)

회갈색의 니질에 작은 석립이 섞인 태토로 이루어진 대형 시루의 저부이다. 바닥 중심부가 1.5cm 가량 들린 형태로 중심부에서 기벽까지 곡선을 이루고 있다. 기벽은 가운데로 갈수록 두꺼워지며 바닥의 시루 구멍은 총 6개로 가운데의 하나를 중심으로 5개를 그 주위로 배열하였고 구멍은 외-→내 방향으로 뚫었다. 시루 구멍의 지름은 중심부가 3cm, 주위의 구멍이 5.5cm로 큰 편이다. 외벽 바닥 부분은 밋밋한 데 반해 안바닥의 시루 구멍은 주변에 주연을 두른 듯이 마무리하였다. 안벽에서 검은 그을음이 전체적으로 확인되며 외벽 하단부는 산화되어 회백색으로 바래있는 반면 상부는 검은 슬립을 입혀 마무리한 원래의 외벽이 관찰된다. 바닥 지름이 30cm에 이르는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경질로는 보기 어렵다. 잔존 높이 9.4cm이다.

⑩ 흑갈유호 구연부 (도면 24 - ②, 사진 19 - ③)

구연부 일부로 내외벽엔 흑갈유가 시유되었다. 태토가 거칠고 사립이 섞여 있어 흑갈유를 바른 표면도 부분적으로 시유 상태가 좋지 않다. 구순부가 안으로 꺾이다가 외반되어 상단부가 평평하게 마무리되었다. 추정구경 10cm, 잔존길이 5.3cm이다.

⑪ 흑갈유호 구연부 (도면 24 - ③, 사진 19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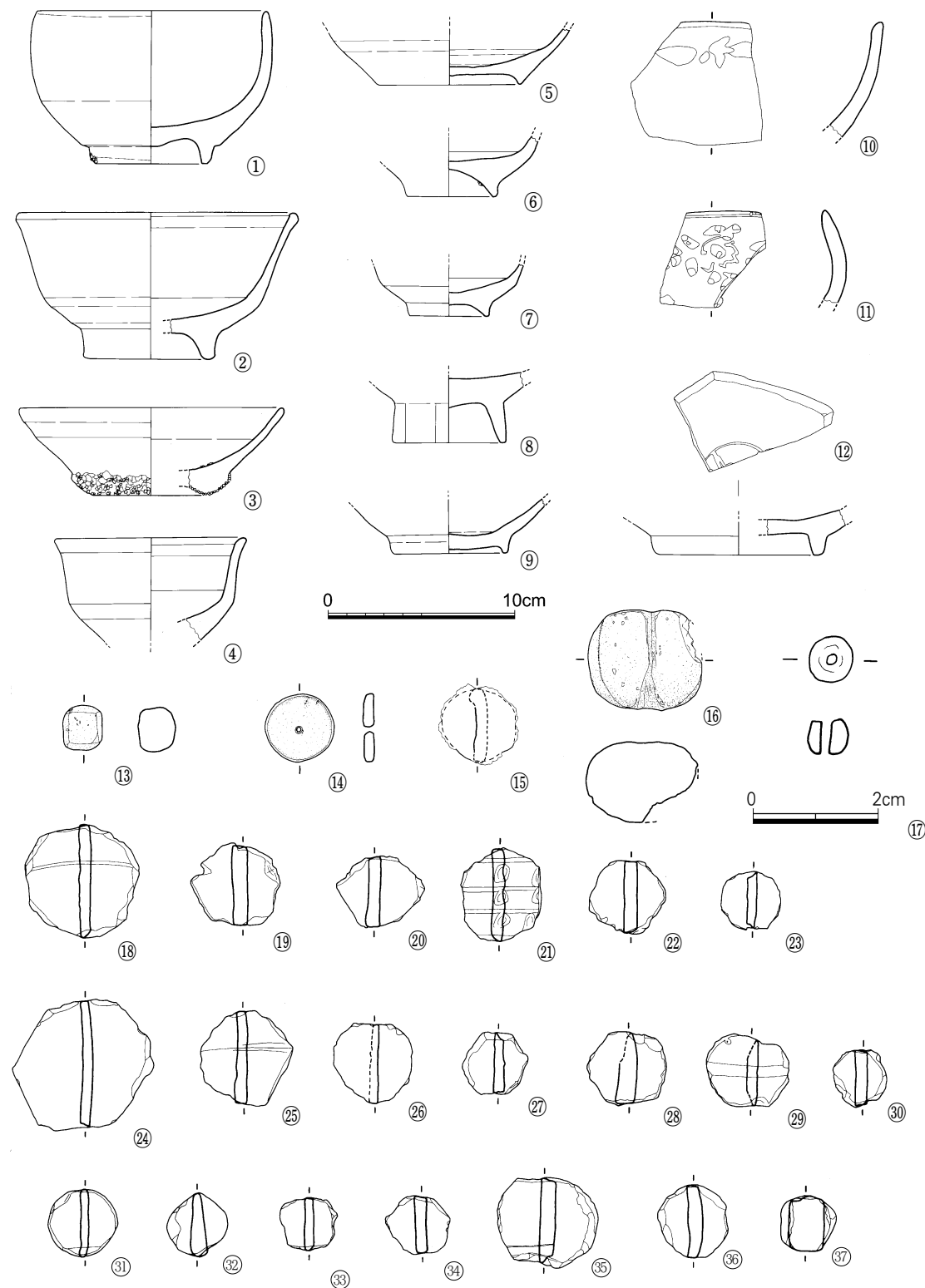
구연부가 직립하고 구순부는 살짝 밖으로 말려서 마무리되었으며 동체부가 넓게 퍼지는 기형으로 호로 추정된다. 안팎으로 흑갈유가 흘러내리듯 시유되었는데 광택이 좋지 않다. 잔존 높이 3.5cm, 복원구경 15.6cm이다.

⑫ 청자 저부 (도면 26 - ⑨, 사진 21 - ⑦)

사선으로 내려온 기벽이 바닥에서 굽경보다 좁은 원각을 만나면서 평평해져 저부를 만들었고 굽 안바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얇게 깎아내어 굽을 만들었다. 회록색유를 굽안바닥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고 가는 모래비짐 눈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잔존 높이 3cm, 굽경 6cm이다.

⑬ 백자대접 (도면 26 - ①, 사진 20 - ⑤)

약간 내만한 구연이 수직으로 내려와 굽에 이르는 기형으로 태토가 거칠고 잡물이 많다. 백색유를 굽안바닥을 포함한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안팎으로 빙렬이 나타난다. 일반굽으로 모래비짐 받침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복원구경 12.4cm, 높이 8.2cm, 굽경 6cm이다.



도면 26. 트렌치 3 출토유물

⑭ 백자대접 (도면 26 - ②, 사진 20 - ⑥)

외반된 구연 아래로 한 줄의 원각이 돌아가고 사선으로 뺀 기벽이 다시 한 줄의 원각을 만나면서 편평한 바닥에 이른다. 굽은 일반굽으로 안바닥을 1.3cm 깊이로 파냈다. 연황색의 양질 태토로서 접지면을 제외한 전체 기벽에 황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안바닥에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시유상태와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유약이 군데군데 묻쳐 있고 구연부 주변은 산화되어 제 색을 잃었다. 잔존 높이 7.9cm, 복원구경 14.1cm이다.

⑮ 백자접시 (도면 26 - ③, 사진 21 - ①)

사선으로 내려오는 기벽이 편평한 바닥과 만나는 백자접시로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다. 회색의 치밀한 태토에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은 모래받침을 하였다.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 주변에 모래가 엉겨 붙어 있다. 복원 구경 14cm, 높이 4.6cm, 굽경 6cm 크기이다.

⑯ 백자대접 (도면 26 - ④, 사진 21 - ②)

약간 외반된 구연이 수직을 이루며 내려가 바닥에 이르는 기형이다. 양질 태토에 회백색의 광택 좋은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안팎으로 빙렬이 많다. 복원 구경 10cm, 잔존 높이 5.5cm이다.

⑰ 백자 저부 (도면 26 - ⑤, 사진 24 - ③)

안굽형태의 굽을 가진 저부편으로 유약의 발색은 알아볼 수 없다. 안 기벽과 외벽에 녹갈유가 약간씩 남아 있다. 잔존 높이 2.8cm, 굽경 7.6cm이다.

⑱ 백자 저부 (도면 26 - ⑥, 사진 24 - ④)

결실되어 기형을 알 수 없는 백자 저부이다. 잡물이 섞인 태토에 굽안바닥을 사선으로 깊이 파냈다. 잔존높이 3.1cm, 굽경 4.8cm이다.

⑲ 백자대접 저부 (도면 26 - ⑦, 사진 21 - ⑤)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 기벽이 편평한 저부를 만난다. 회백색 태토에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오목하게 굽안바닥을 깎아내었고 모래비짐 눈을 받쳐 번조했는데 접지면이 깨끗하다. 안팎으로 빙렬이 나 있다. 굽경 4.6cm, 잔존 높이 2.8cm이다.

⑳ 제기 저부 (도면 26 - ⑧, 사진 21 - ⑥)

기벽이 결실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제기의 저부편이다.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여 접시로 보인다. 표면에 아무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의 표면을 팔각으로 깎고 굽안바닥을 깊이 깎아 내었는데 단정하며 접지면의 폭도 고르다. 굽안쪽까지 광택이 있는 회백색유를 시유하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굽경은 6cm, 굽높이는 2.2cm로 높다.

㉑ 청화백자 구연부 (도면 26 - ⑩, 사진 21 - ⑧)

대접의 구연부로 보인다. 외기벽의 구연부 아래에 청화안료로 한 줄의 선을 돌리고 초화문을 그려 넣었다. 잔존 높이 6.1cm, 두께 0.6cm 내외이다.

㉒ 청화백자 구연부 (도면 26 - ⑪, 사진 21 - ⑨)

약간 내만한 청화백자 대접의 구연부 일부로 보인다. 0.8cm로 기벽이 두꺼우며 내벽에는 아무 장식이 없는 반면 외벽에는 채도가 낮은 암청색 청화로 포도문이 그려져 있고 구연으로 1줄의 청화문 선을 돌리고 있다. 잔존높이 4.9cm, 두께 0.6cm 내외이다.

㉓ 청화백자대접 저부 (도면 26 - ⑫, 사진 21 - ⑩)

백자 저부와 굽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에 청화안료로 원을 그리고 초화문으로 보이는 그림을 그렸는데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다. 회백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빙렬이 있다. 잔존 높이 2.5cm, 굽경 8.6cm 크기이다.

㉔ 이형 토제품 (도면 26 - ⑬, 사진 21 - ⑪)

적갈색의 가는 석립이 섞인 토제품으로 모서리를 죽인 육면체 모양이며 단면도 말각방형이다. 어느 면에서도 눈금의 흔적이 없어 용도 미상의 토제품으로 보았다. 1.7cm×1.5cm×2.2cm 규격이다.

㉕ 방추차 (도면 26 - ⑭, 사진 22 - ①)

토제 방추차로서 모서리 부분이 곱게 갈아져 있다. 0.2~0.3cm 지름의 구멍이 중앙에 나 있는데 양쪽 방향에서 뚫고 들어가 관통된 모양이다. 지름 3.5cm, 두께 0.5cm 규격이다.

㉖ 원판형 철제품 (도면 26 - ⑮, 사진 22 - ②)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한 원형의 철제품으로 단면으로 보아 문장식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규격은 지름 4cm, 두께 0.6cm 가량이다.

㉗ 고드렛돌 (도면 26 - ⑯, 사진 22 - ③)

회갈색으로 일부가 결실된 고드렛돌이다. 중앙 부분에 움푹 홈이 파여 실 등을 감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두께 4.2cm, 폭 6cm 규모이다.

㉘ 마노제 구슬 (도면 26 - ⑰, 사진 22 - ④)

흰색과 살구색이 섞여 있는 광택나는 불투명한 몸체에 평면은 방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중앙에 0.15cm의 둥근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표면에 광택은 있으나 부분부분 긁혀서 매끄럽지 못하고 홈이 나 있다. 길이 0.7cm, 두께 0.6cm 내외이다.

㉙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3에서는 20점의 원판형 토제품이 수습되었다. 토기편, 와편, 옹기편 등의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거의 방형에 가까운 형태도 관찰된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26 - ⑱	22 - ㉓	흑갈색 옹기편	크게 떼냄	0.6×6
26 - ⑲	22 - ⑰	흑갈색 옹기편	크게 떼냄	0.8×4.2
26 - ⑳	22 - ⑮	흑갈색 옹기편	방형으로 크게 떼냄	0.6×3.7
26 - ㉑	22 - ⑱	흑갈색 옹기편	육각으로 떼냄	0.7×4.8
26 - ㉒	22 - ㉑	적갈색 옹기편	방형으로 떼냄	0.6×3.9
26 - ㉓	22 - ⑩	적갈색 옹기편	떼내고 마연	0.5×2.9
26 - ㉔	22 - ㉔	흑회색 토기편	각지게 떼냄	0.5×6.8
26 - ㉕	22 - ㉑	회갈색 토기편	방형 떼냄	0.5×4.8
26 - ㉖	22 - ⑮	흑갈색 토기편(박리)	떼고 마연	0.3×4.2
26 - ㉗	22 - ⑨	흑갈색 토기편	거칠게 떼냄	0.6×2.9
26 - ㉘	22 - ⑭	회갈색 토기편	오각형으로 크게 떼냄	0.9×3.6
26 - ㉙	22 - ⑲	흑갈색 토기편	떼내고 마연(박락)	0.5×3.5
27 - ㉚	22 - ⑦	흑갈색 토기편	방형으로 떼냄	0.6×2.9
27 - ㉛	22 - ⑬	흑갈색 토기편	원형으로 단정히 마연	0.5×3.4
27 - ㉜	22 - ⑤	회갈색 토기편	방형으로 떼고 마연	0.6×3
27 - ㉝	22 - ⑧	흑갈색 토기편	거칠게 떼냄	0.4×2.8
27 - ㉞	22 - ⑥	흑청색 토기편	거칠게 떼냄	0.6×2.8
27 - ㉟	22 - ㉒	흑갈색 토기편	거칠게 떼고 마연	0.7×9.8
27 - ㊱	22 - ⑫	회백색 토기편	거칠게 떼고 마연	0.7×4.6
27 - ㊲	22 - ⑪	적갈색 와편	방형으로 마연	1.9×2.9

㉚ 와 (도면 27 - ①, 사진 23 - ①)

회갈색 수키와의 일부이다. 등에는 선문이, 이면에는 포문이 나타나있다. 포흔이 가늘며 곱고 정연하다. 두께 1.8cm, 잔존 길이 7.2cm

㉛ 와 (도면 27 - ②, 사진 23 - ②)

청해파반원문이 타날된 수키와의 일부로 등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이면에는 포문이 마찰흔과 함께 남아 있으며 하단 내면은 날렵하게 다듬었다. 와도는 안에서 얇게 그어 분리하였고 파쇄면은 다듬지 않았다. 두께 2.8cm, 잔존 길이 28cm

4) 트렌치 4

(1) 현황 (도면 28, 사진 23 - ③, ④, ⑤)

트렌치 3과 같은 평탄지에 있으며, 동서방향 2×10m의 규모로 굴토되었다. 트렌치 내부에는 불규칙한 할석들로 이루어진 할석층이 7m 범위 내에서 노출되었는데, 담장렬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석렬 사이에는 일정한 규모인 50~60cm의 빈공간이 관찰되어 전체 석렬의 축은 편서 30°이며, 석렬 사이에서 상평통보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트렌치 동쪽 부분에서 줄무늬 병편 1점과 무문토기편 1점이 수습되어 석렬 유구 하층에 선행 문화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출토유물

① 무문토기 저부 (도면 29 - ①, 사진 24 - ①)

평저의 무문토기 저부로 외벽은 황갈색조를 띠고 내벽은 회갈색을 띤다. 굽고 가는 석립이 섞인 태토로서 바닥과 외벽 일부에는 슬립을 발라 마무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외벽 바닥에는 접합시의 흔적이 사선방향으로 남아 있고 내벽 바닥에도 손누름 흔적이 있다. 저경 6cm, 잔존높이 3cm이다.

② 시루편 (도면 29 - ②, 사진 24 - ②)

시루의 바닥부분 일부이다. 속심은 갈색, 외벽은 흑회색으로 슬립을 발라 마무리하였다. 시루 구멍이 직경 2.5cm 정도로 4곳이 확인된다. 시루 구멍의 주변이 주연을 돌린 것처럼 도드라졌다. 시루 구멍과 구멍사이의 거리가 1.2~1.4cm로, 비교적 촘촘하다.

③ 도기 동체부 (도면 29 - ③, 사진 24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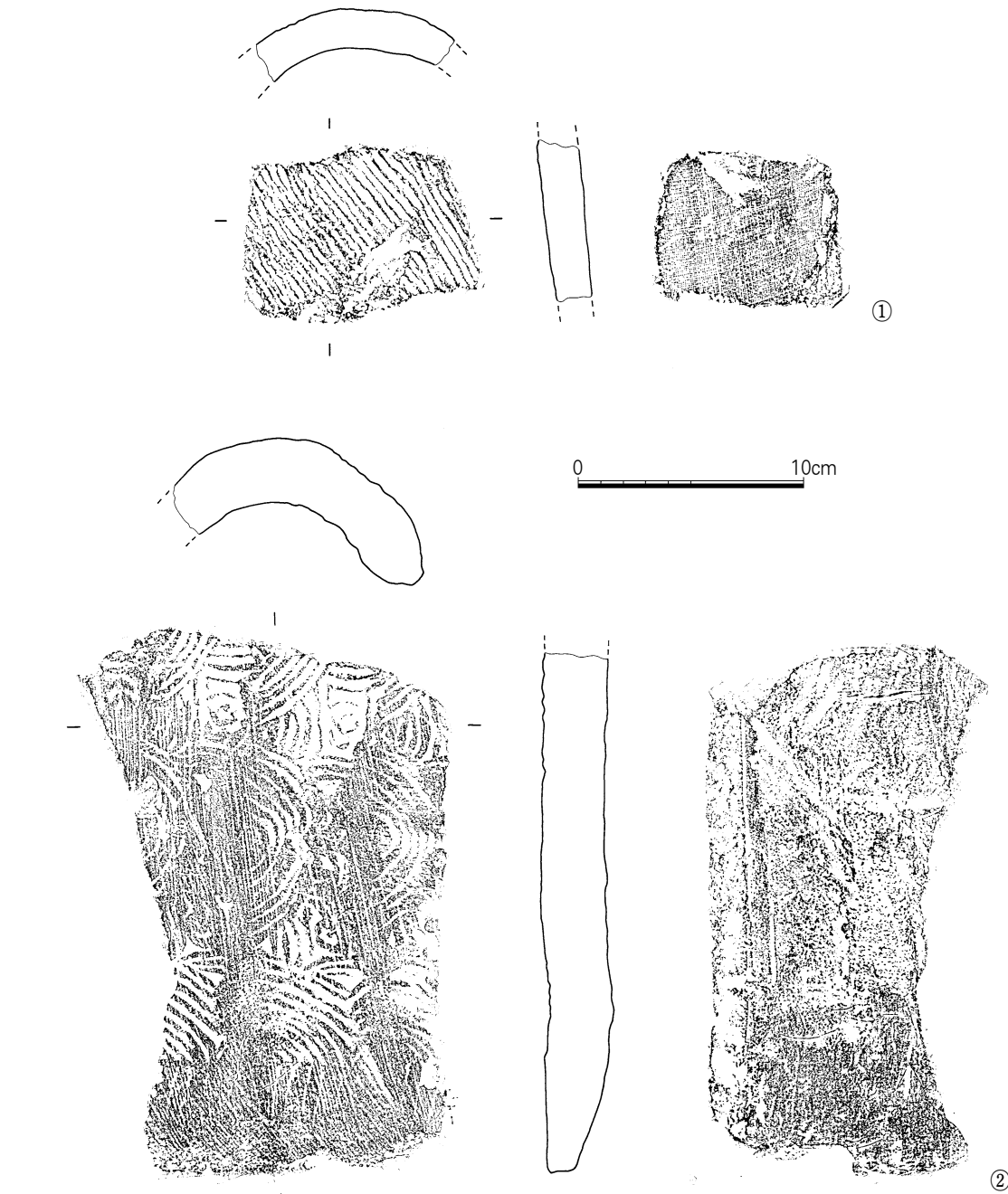
흑회색의 고운 태토로 만들어진 얇은 병이나 호의 동체부로 보인다. 1줄의 횡선을 돌리고 그 아래로 대나무줄기 같은 효과를 내는 무늬를 타날하여 나타내었다. 두께 0.3cm, 잔존 길이 0.6cm이다.

④ 숫돌 (도면 29 - ④, 사진 24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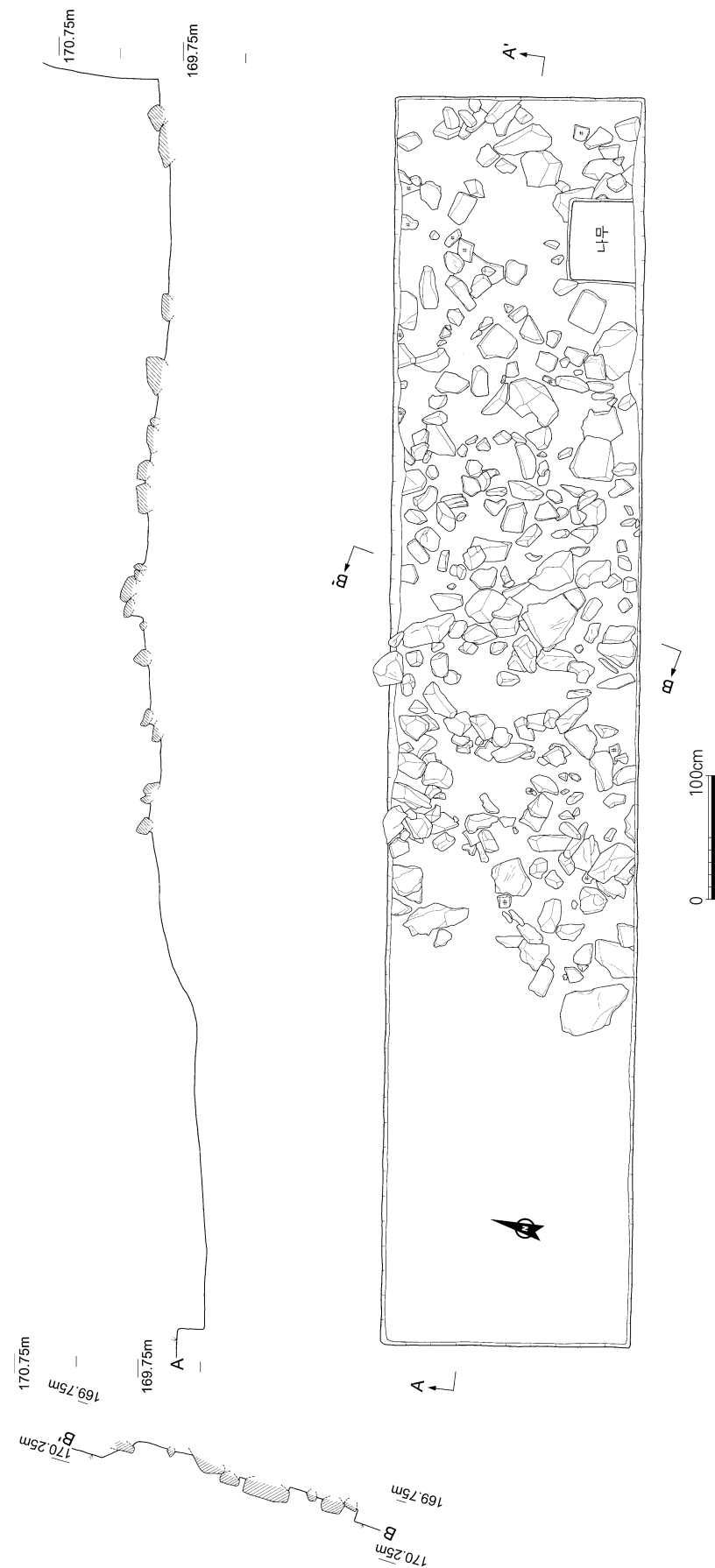
니질계의 치밀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황갈색 숫돌이다. 파손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으며 3개 면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길이 10cm이다.

⑤ 청자 저부 (도면 29 - ⑤, 사진 24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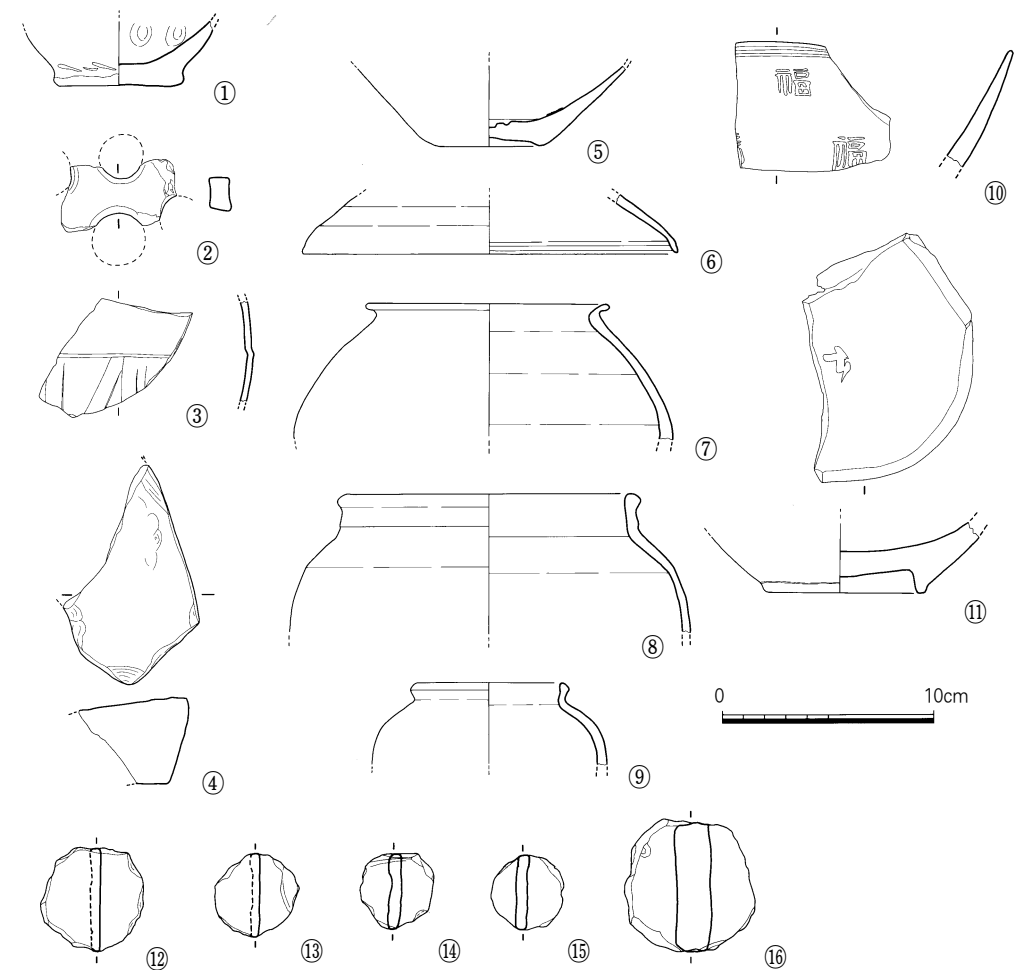
구연부와 동체가 거의 결실되고 저부만이 남은 청자이다. 사선으로 내려온 기벽이 직경 5cm의 원각을 만나며 바닥에 이른다. 치밀한 회갈색토에 녹갈색유가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안기벽 저부로 녹아내렸고 외벽의 유약도 뭉쳤거나 산화되었다. 굽의 접지면은 0.9~0.4cm로 일정하지 못한 편이고 굽안바닥은 0.2cm 깊이로 얇게 파냈다. 잔존 높이 3.3cm, 저경 4.9cm이다.



도면 27. 트렌치 3 출토기와



도면 28. 트렌치 4 평·단면도



도면 29. 트렌치 4 출토유물

⑥ 철화백자뚜껑편 (도면 29 - ⑥, 사진 24 - ⑥)

기벽이 사선으로 내려가다가 짧게 꺾여서 접지면을 이룬다. 태토는 치밀한 백토로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유색은 회청색을 띠고 외벽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외벽 일부에 철화안료의 흔적이 있는데 의도적인 문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잔존 높이 2.3cm, 복원 구경 15cm이다.

⑦ 백자호 구연부 (도면 29 - ⑦, 사진 24 - ⑦)

구연이 살짝 외반하였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는 기형이다. 표면에는 물레흔 외의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섞여있고 치밀하지 못하다. 표면에는 유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가 불량하고, 안벽은 드문드문 태토가 드러나 있다. 복원 구경 10.2cm, 잔존 높이 6.5cm이다.

⑧ 백자호 구연부 (도면 29 - ⑧, 사진 25 - ①)

구연부는 직립하고 경부아래에서 동체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이다. 태토는 양질이며 안팎의

기벽에 빈틈없이 회백색유가 시유되었다. 번조상태는 양호하며 빙렬이 전체에서 관찰된다. 복원 구경 12cm, 잔존 높이 5.8cm이다.

⑨ 자기 구연부 (도면 29 - ⑨, 사진 25- ②)
구연이 직립되다 살짝 외반되고 동체부에서 벌어지는 형태이며 전체에 녹갈색을 띤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태토는 회색이며 치밀하고 기벽은 0.4cm 정도로 얇다. 추정구경 7.8cm, 잔존 높이 3.9cm이다.

⑩ 청화백자구연부편 (도면 29 - ⑩, 사진 24 - ⑧)
대접의 구연부로 보인다. 청화안료로 외벽 구연부에 2줄의 선을 돌리고 ‘福’자를 그려넣었다. 기벽두께 0.4cm, 잔존 높이 5.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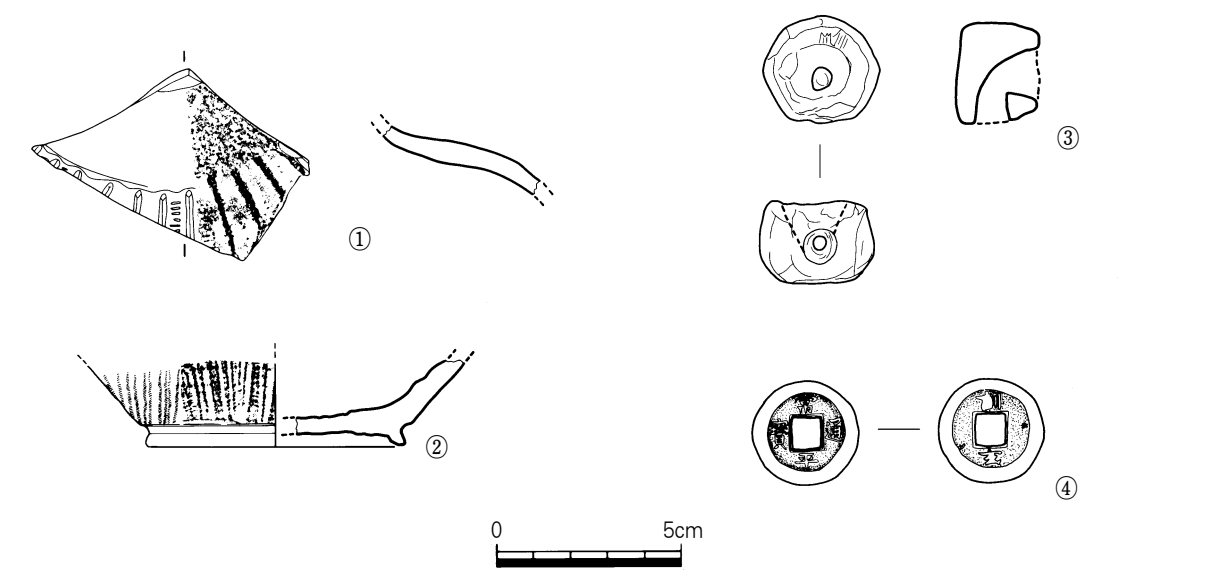
⑪ 청화백자대접 저부 (도면 29 - ⑪, 사진 24 - ⑨)
저부일부로서 동체와 구연은 결실되었다. 굽은 반안굽 형태로 외견상은 굽높이가 0.5cm에 불과하나 굽안바닥은 1.2cm 까지 깊이 파낸 형태이다. 태토에 잡물이 많으며 회백색유를 두껍게 시유하였다. 기벽안바닥에 청화안료로 ‘無’의 약자를 그려 넣었다. 굽경 6.2cm, 잔존 높이 2.8cm이다.

⑫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4에서는 토기편과 외편으로 제작된 원판형 토제품이 5점 수습되었다. 그 속성은 아래 표와 같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 격
29 - ⑫	25 - ⑥	흑갈색 토기편(박리)	떼냄 (큰폭)	0.4×4.8
29 - ⑬	25 - ③	흑회색 토기편(박리)	방형 마연	0.3×3.5(박리)
29 - ⑭	25 - ⑤	흑갈색 토기편	구연부 포함 가공	0.6×3.6
29 - ⑮	25 - ④	흑갈색 토기편	떼고 마연	0.5×3.2
29 - ⑯	25 - ⑦	갈색 무문외편	거칠게 떼냄	1.5×6

⑬ 주름무늬병 동체부 (도면 30 - ①, 사진 25 - ⑧)
도두라져 표현된 주름무늬 사이에 방형 점열문이 수직방향으로 시문되었다. 병의 어깨편으로 보이며 표면에는 자연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길이 4.5cm, 기벽 두께 0.6cm이다.

⑭ 수직침선문토기 저부 (도면 30 - ②, 사진 25 - ⑨)
저부와 기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회청색의 침선문 경질토기이다. 외벽에는 0.1cm 넓이의 침선문이 수직방향으로 전면에 시문되어 있으며 내벽에도 물레흔이 남아있다. 저부에는 원형의 띠모양 굽이 부착되었는데 바닥을 뒤집어 보면 원형의 굽을 동체부의 경계에 부착시킨 후 회전물손질하였음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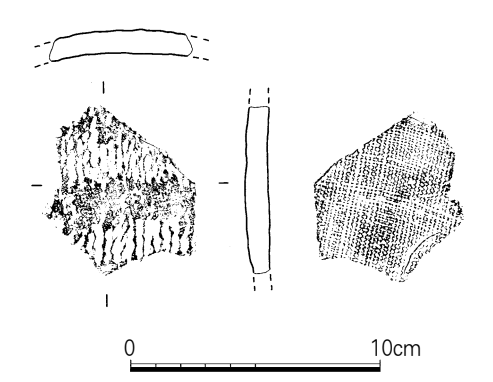
도면 30. 트렌치 4 출토유물

다. 잔존 높이 2.2cm, 복원 저경 7.2cm이다.

⑮ 이형토제품 (도면 30 - ③, 사진 25 - ⑩)
평평한 면을 바닥으로 볼 때 상부와 측면에 인위적인 홈이 파여져 있는 형태이다. 넓고 깊은 상부의 홈에는 오랫동안 그을린 듯이 보이는 검은 탄화흔이 두껍게 남아있으나 측면은 뭉가로 갈아낸 듯이 홈의 면이 매끄럽다. 전체적으로 외벽이 매끄럽고 검은 광택이 나며 상부 홈의 주변에는 깎아낸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4.6×3.2cm 크기이다.

⑯ 상평통보 (도면 31 - ④, 사진 25 - ⑪)
상평통보로서 보존상태가 좋아 앞면과 뒷면의 글자 모두 판독이 가능하다. 중앙에는 0.9cm×0.8cm 규모의 방형 구멍이 있고 지름 3cm, 두께 0.15cm 주연폭 0.3cm 크기이다.

⑰ 와 (도면 31, 사진 25 - ⑫)
회갈색의 암키와편으로 보이는 작은 편이다. 등에는 승석문이 이면에는 포문이 남아있다. 와류로 보기에 두께가 몹시 얇은 점이 주목된다. 두께 0.9cm, 잔존길이 6.7cm



도면 31. 트렌치 4 출토기와



도면 32. 트렌치 5 평·단면도

5) 트렌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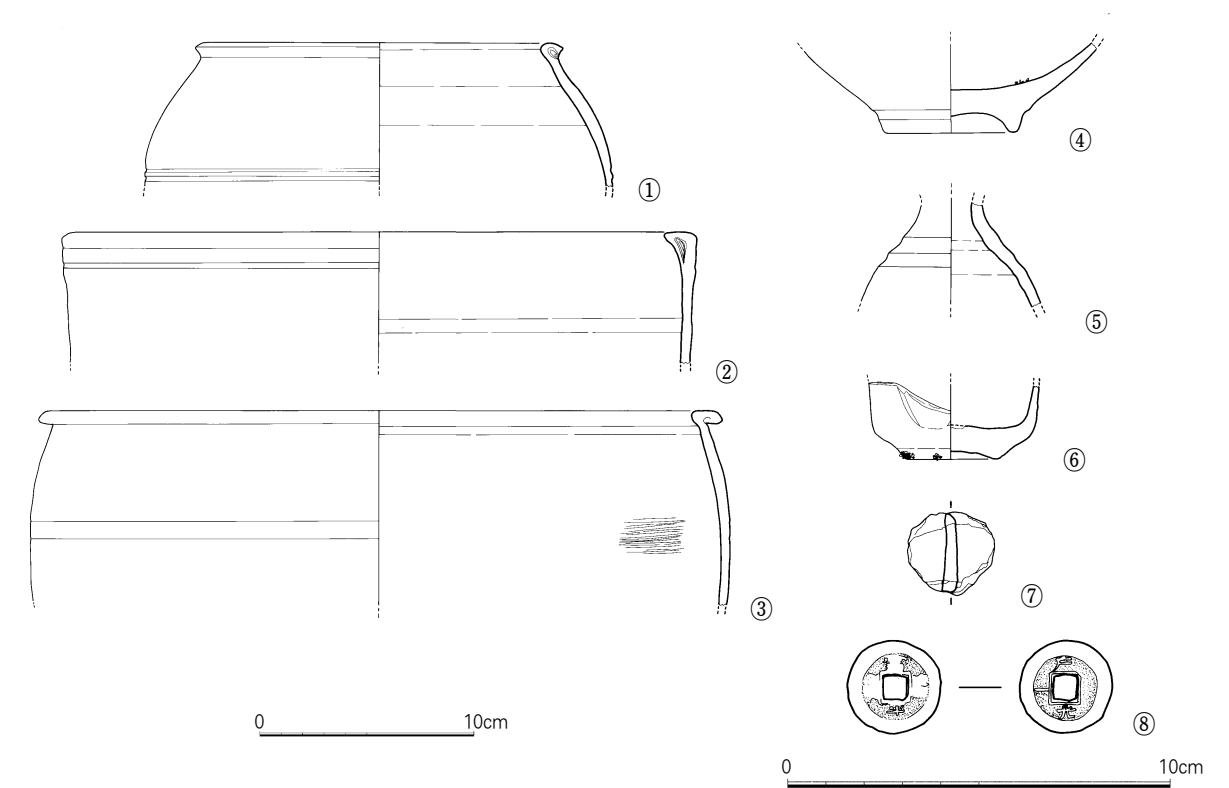
(1) 현황 (도면 32, 사진 26)

남문지에서 서쪽으로 가장 하단에 설정된 트렌치로 동서 방향 2x15m의 규모로 굴토되었다. 조사 결과 트렌치 서쪽에서는 상단의 축대와 관련된 할석층이 일부 노출되었고, 석렬 유구 1기, 연도로 추정되는 재층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석렬 유구(편서 45°)는 20×40cm의 일면을 다듬은 부정형 할석을 열을 맞추어 놓고 앞면과 뒷면에 10cm 내외의 작은 할석들을 놓은 형태이다. 연도로 추정되는 재층은 50cm의 폭으로 석렬 유구와 1.5m 서쪽으로 떨어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석렬 유구와의 관련은 아직 단언 할 수 없다. 석렬 유구와 재층의 성격 등은 확장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밝혀질 때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2) 출토유물

① 토기 구연부 (도면 33 - ①, 사진 27 - ②)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경질 토기로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구순부는 내경하면서 뒤로 말아 넣어 물레질로 다듬었으며 기벽 상단에 두 줄의 횡선이 돌아간다. 경질에 속하며 태토가 곱다. 안팎으로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구경 17cm, 잔존 높이 6.8cm이다.



도면 33. 트렌치 5 출토유물

② 발 구연부 (도면 33 - ②, 사진 27 - ③)

구순부를 안으로 말아넣어 전처럼 꾸민 후 직립으로 기벽이 내려가는 기형이다. 속심과 내외벽은 흑회색이나 그 중간에 회색이 보이기도 한다. 외부에 두 줄의 침선을 돌렸으며 내벽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잔존 높이 6.2cm, 복원 구경 26.6cm이다.

③ 도기 구연부 (도면 33 - ③, 사진 27 - ④)

표면과 속심이 회색조인 구연부편이다. 구연 끝을 내만시켰다가 밖으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외반시켰다. 내벽에는 물레흔이 돌아가며 외벽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횡으로 돌렸고 그 아래로 지워져서 희미한 격자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30.2cm, 잔존 길이 9.2cm이다.

④ 백자대접 저부 (도면 33 - ④, 사진 27 - ⑤)

백자대접의 저부만이 남아있다. 굽과 저부가 만나는 외벽에 선을 한 줄 돌렸다. 회색의 치밀한 태토로서 전체 기벽에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접지면 만을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기벽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관찰된다.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광택이 적고 일부 유약은 흘러 내렸다. 잔존 높이 4.2cm, 굽경 6cm, 굽높이 1cm이다.

⑤ 흑유병 동체부 (도면 33 - ⑤, 사진 27 - ⑥)

회색의 치밀한 태토에 흑갈유를 시유한 병의 어깨편으로 안벽 일부와 외벽 전체에 흑갈유를 시유하였는데 농담의 정도가 균일하지 못하다. 어깨가 시작되는 즈음에 두 줄의 횡선이 돌아간다. 빙렬이 있으며 광택은 많이 죽었다. 잔존 길이 4.6cm이다.

⑥ 흑갈유잔 저부 (도면 33 - ⑥, 사진 27 - ⑦)

흑갈유가 시유된 잔의 저부와 굽의 일부가 남아 있다. 기형은 기벽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편평한 바닥과 굽에 이르는 형태로 굽은 평저에 가까우나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시유 상태와 용융 상태는 좋지 못하여 광택이 적고 곳곳에 유약이 묻쳐 있으며, 굽 주변에는 모래비짐이 묻쳐 있어 단정하지 못하다. 굽경 3.6cm, 잔존 높이 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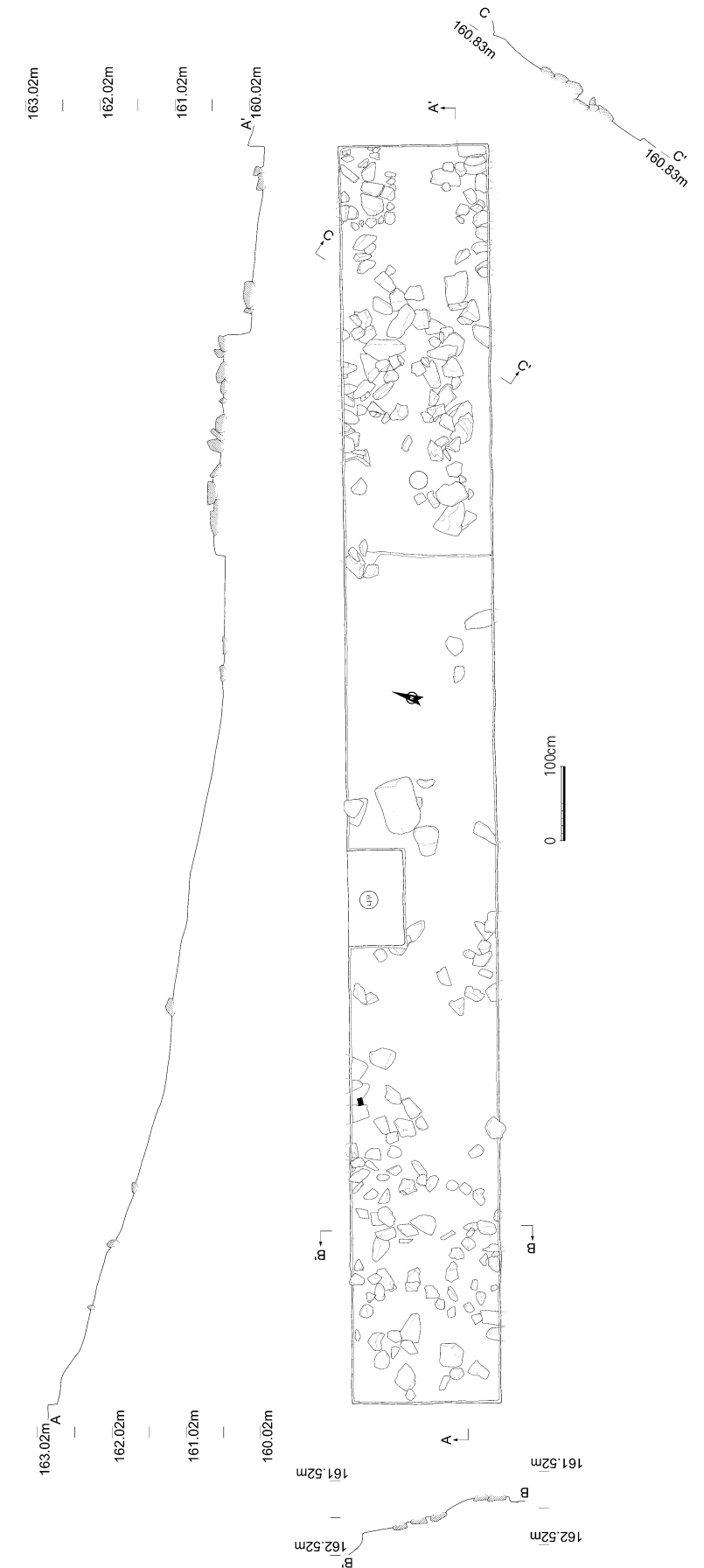
⑦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5에서는 흑회색 토기편으로 제작된 1점의 원판형 토제품이 수습되었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 격
34 - ⑦	27 - ⑧	흑회색 토기편	크게 폐념	0.5×3.7

⑧ 상평통보 (도면 34 - ⑧, 사진 27 - ⑨)

앞면과 뒷면이 모두 부식상태가 심한 상평통보로서 앞면은 마모가 심하여 ‘上’과 ‘平’만이 관독가능



도면 34. 트렌치 6 평·단면도

하며 뒷면에는 '戶光'이 판독 가능한 상태이다. 지름 2.5cm, 두께 0.15cm 주연폭 0.4cm이며 중앙에는 0.6cm 길이의 방형 구멍이 뚫려 있다.

6) 트렌치 6

(1) 현황 (도면 34, 사진 28)

트렌치 5의 북쪽 상단에 2×15m 크기의 동서 방향으로 설정하여 굴토하였다. 조사결과 서쪽에서 축대와 관련 될 것으로 추정되는 할석층 일부와 훼손된 석렬 일부가 노출되었다. 할석층은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히 놓여 있으며, 10cm 내외의 작은 할석을 사용하였다. 훼손된 석렬 유구는 트렌치 5의 석렬과 유사한 구조로 추정되나, 상단부가 교란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석렬을 만들어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정확한 성격은 미상이다.

(2) 출토유물

①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35 - ①, 사진 29 - ①)

회갈색의 경질토기 동체편으로 외벽에는 승문이 전체적으로 타날되었는데 일부는 승문을 겹쳐 두들겨서 격자문의 효과를 내고 있다. 안벽에는 내박자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 기벽 두께 0.8cm, 잔존 길이 9.5cm이다.

②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35 - ②, 사진 29 - ②)

회청색 경질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정연한 태도와 문양을 갖는다. 승문 타날 후에 횡선을 돌렸다. 두께 0.6cm, 잔존 길이 3.1cm이다.

③ 인화문토기 저부 (도면 35 - ③, 사진 29 - ③)

회청색 경질토기 저부와 기벽 일부의 편으로 외벽에 수직 점열문이 압인되었으며 내벽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평저의 주위로 원형의 굽을 돌려 붙이고 회전 물손질하였다. 복원 저경 6cm, 잔존 높이 2.1cm이다.

④ 도기 저부 (도면 35-④ 사진 29 - ④)

저경의 크기로 보아 동이의 저부로 보인다. 안바닥에도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외벽 바닥에 저부와 연결흔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얇은 바닥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다시 바닥과 기벽을 올려서 성형한 것으로 보인다. 복원 저경 24cm, 잔존 높이 4.8cm이다.

⑤ 구연부편 (도면 35 - ⑤, 사진 29 - ⑤)

복원 구경이 30cm가 넘고, 구연의 형태로 보아 흑회색 옹기의 구연부편으로 보인다. 구순부가 내경

하다가 한껏 외반하여 말리면서 거의 T자형에 이르는 단면을 이루며 전을 만들었다. 구연부 아래로 조금 안으로 숙어든 경부가 동체부에서 확장되는 형태이다. 복원 구경 34cm, 잔존 높이 4.8cm이다.

⑥ 백자대접 구연부 (도면 35 - ⑥, 사진 29 -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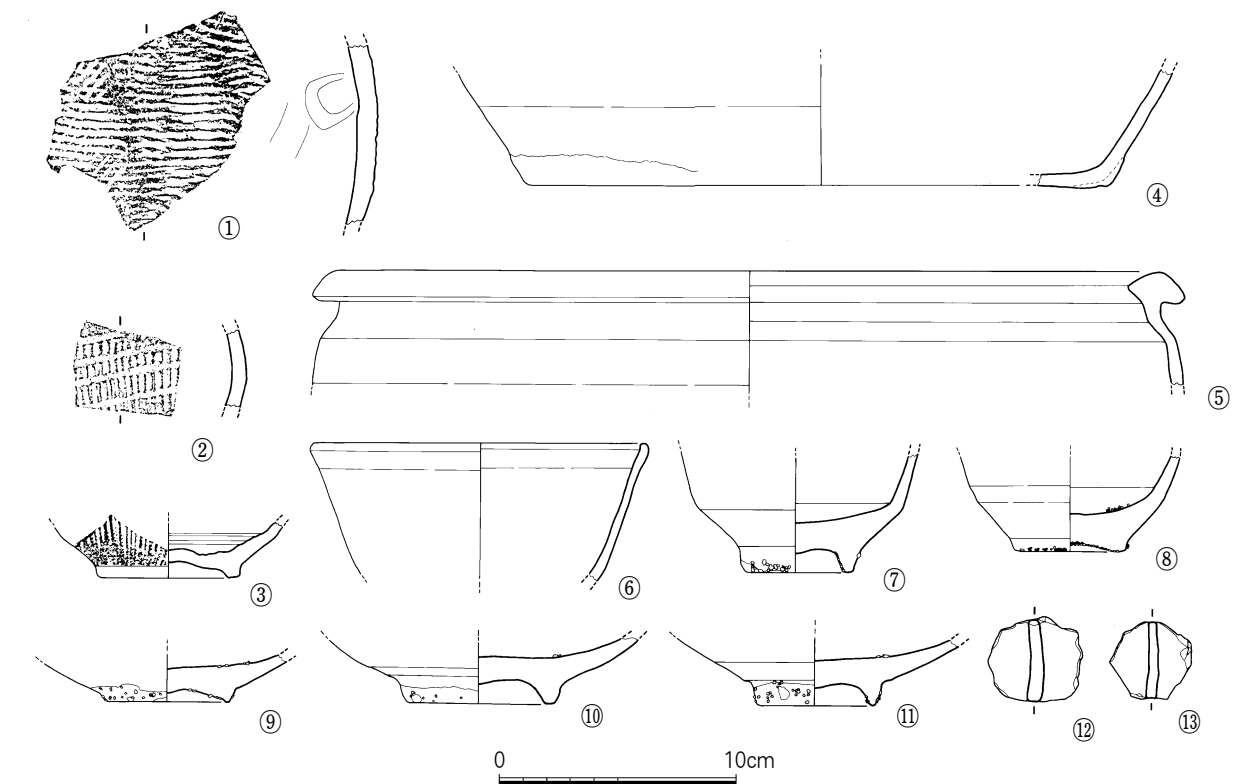
기벽이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하고 구순부에서 살짝 내만하는 형태의 대접 구연부편이다. 치밀한 백토로 만들어졌으며 회백색유가 안팎으로 시유되었다. 잔존 높이 5.8cm, 복원 구경 13.5cm이다.

⑦ 백자잔 저부 (도면 35 - ⑦, 사진 29 - ⑦)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벽이 한 줄의 원각을 만나서 평평한 저부에 이르는 기형이다. 굽은 일반굽 형태로 안바닥을 둥그렇게 깎아내었는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못하다. 광택있고 투명한 회백색유를 굽 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만 닦아내고 모래받침으로 변조하였다. 굽경 4.4cm 잔존 높이 4.8cm이다.

⑧ 백자잔 저부 (도면 35 - ⑧, 사진 29 - ⑧)

구연부는 결실되고 기벽의 저부와 굽만이 남아 있다. 수직으로 내려온 기벽이 한 줄의 원각을 만나고 평평한 안바닥에 이른다. 굽은 일반굽으로 보이나 굽은 모래받침이 묻혀있어 단정하지 못하다. 태토는



도면 35. 트렌치 6 출토유물

잡물이 섞여 조금 거친 편이나 회백색유의 시유상태와 번조상태는 좋다. 기벽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굽경 4.8cm, 잔존 높이 4.0cm이다.

⑨ 백자접시 저부 (도면 35 - ⑨, 사진 29 - ⑨)
 굽과 저부 일부가 남아있는 접시편이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고 회백색유를 시유하였다. 모래받침을 하였으며 포개구이 흔적이 있다. 잔존높이 1.6cm, 굽경 5.3cm이다.

⑩ 백자접시 저부 (도면 35 - ⑩, 사진 29 - ⑩)
 접시로 보이는 기형의 저부와 굽의 일부이다. 태토는 치밀질이며 굽은 일반굽으로 접지면이 고르지 않으나 0.6cm 이상으로 넓은 편이다. 접지면만 제외하고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안바닥에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2.6cm, 굽경 6.2cm 이다.

⑪ 백자접시 저부 (도면 35 - ⑪, 사진 29 - ⑪)
 접시로 보이는 기형으로 굽과 저부의 일부가 남아 있다. 잡물이 많은 태토이며 시유상태와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거칠게 돌려 깎아낸 뒤 접지면만 제외하고 전체 기벽과 굽안바닥에까지 시유하였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안바닥에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2cm, 굽경 5.2cm이다.

⑫ 원판형 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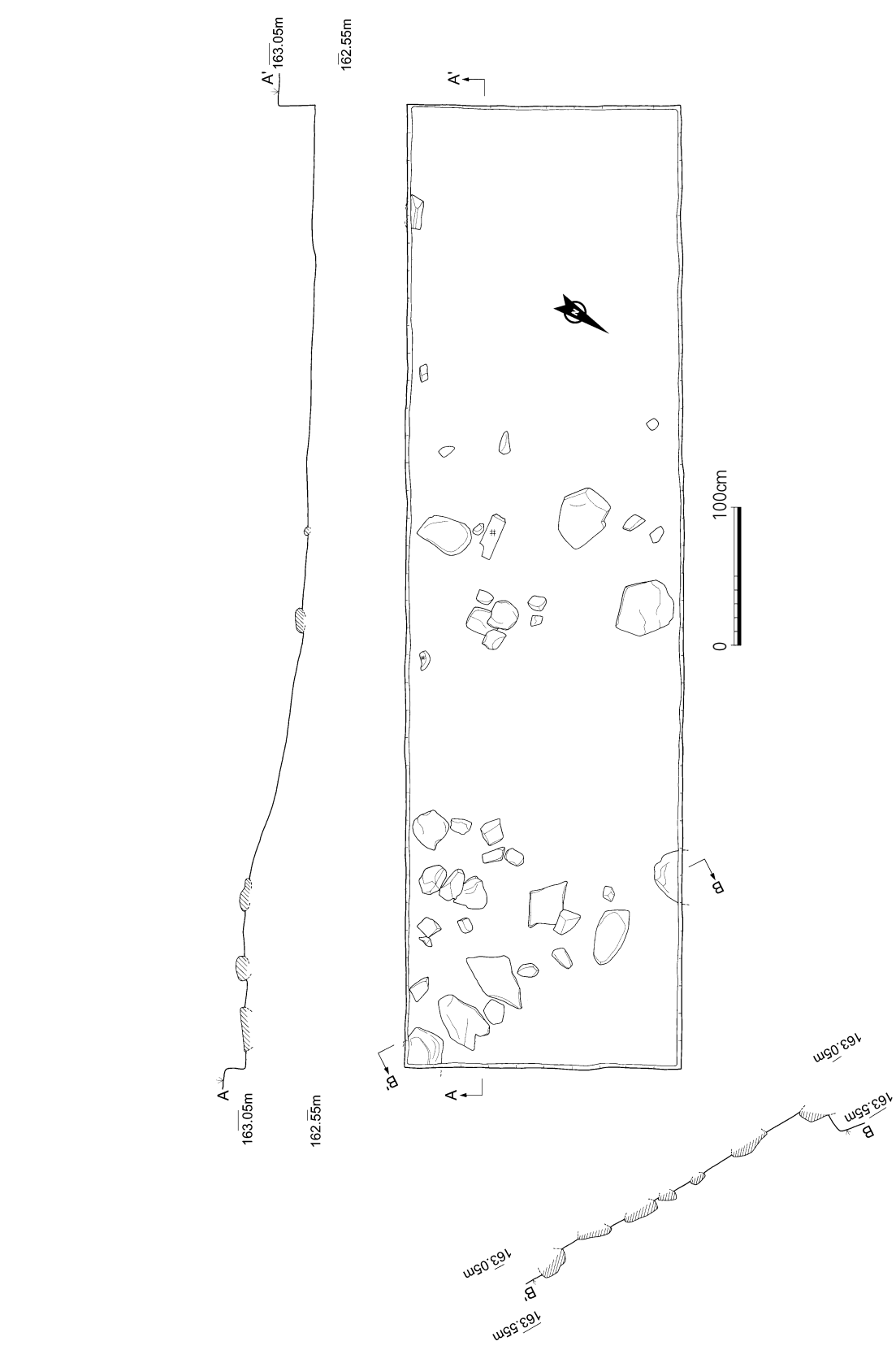
트렌치 6에서는 2점의 원판형토제품이 수습되었다. 그 속성은 아래 표와 같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35 - ⑫	29 - ⑫	흑회색 토기편	떼내고 마연	0.5×3.3
35 - ⑬	29 - ⑬	흑갈유 토기편	거칠게 떼냄	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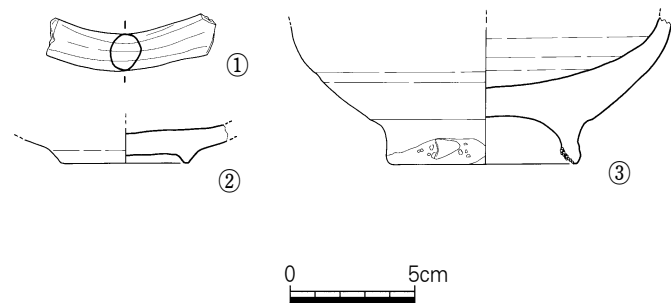
7) 트렌치 7

(1) 현황 (도면 36, 사진 30 - ①)
 트렌치 6의 동쪽으로 설정된 트렌치로 동서 방향 2×8m의 규모로 굴토되었다. 트렌치의 서쪽에서 훼손된 석렬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부정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석렬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다른 트렌치내의 상황과 동일하나, 많이 교란되어 잘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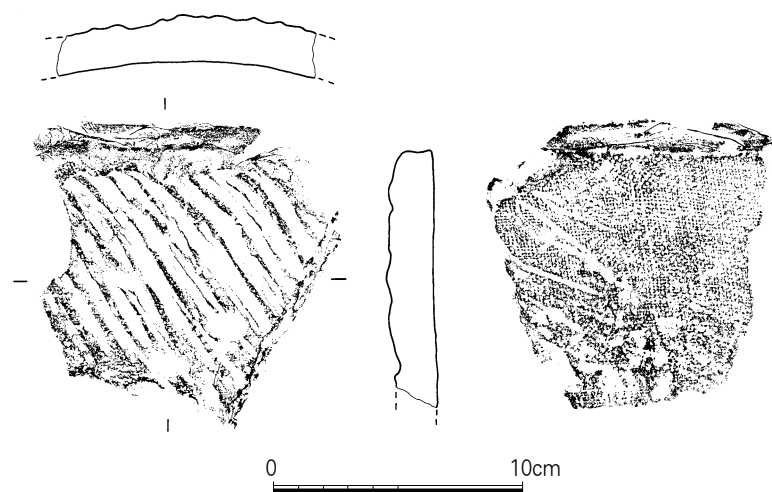
(2) 출토유물
 ① 대상 파수편 (도면 37 - ①, 사진 30 - ②)
 단면은 원형인 흑회색의 대상 파수편이다. 단면은 직경 1.4cm 내외의 경질이며 표면에 뭉가로 깎아낸 흔적과 손으로 마무리한 마찰흔이 남아있다.



도면 37. 트렌치 7 평·단면도



도면 37. 트렌치 7 출토유물



도면 38. 트렌치 7 출토기와

④ 와 (도면 38, 사진 30 - ⑤)

회백색의 태선문 암기와편이다. 굽은 포문이 정연하게 남아 있다. 요철이 심하게 두드러져 있어 주목된다. 제작 과정에서 생긴 손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1.7cm, 잔존길이 10cm이다.

8) 트렌치 8

(1) 현황 (도면 40, 사진 30 - ⑥)

트렌치 7의 남동쪽 하단부에 동서방향 2×8m로 설정되어 굴토되었다. 조사결과 트렌치 내부에서 10×20cm 크기의 활석으로 이루어진 불규칙한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유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트렌치 8이 위치한 평탄지의 유구 부존여부는 좀 더 확인 조사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평탄지가 남문 가까이에 있어 문지와 관련된 부속 건물이 들어서기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② 청자접시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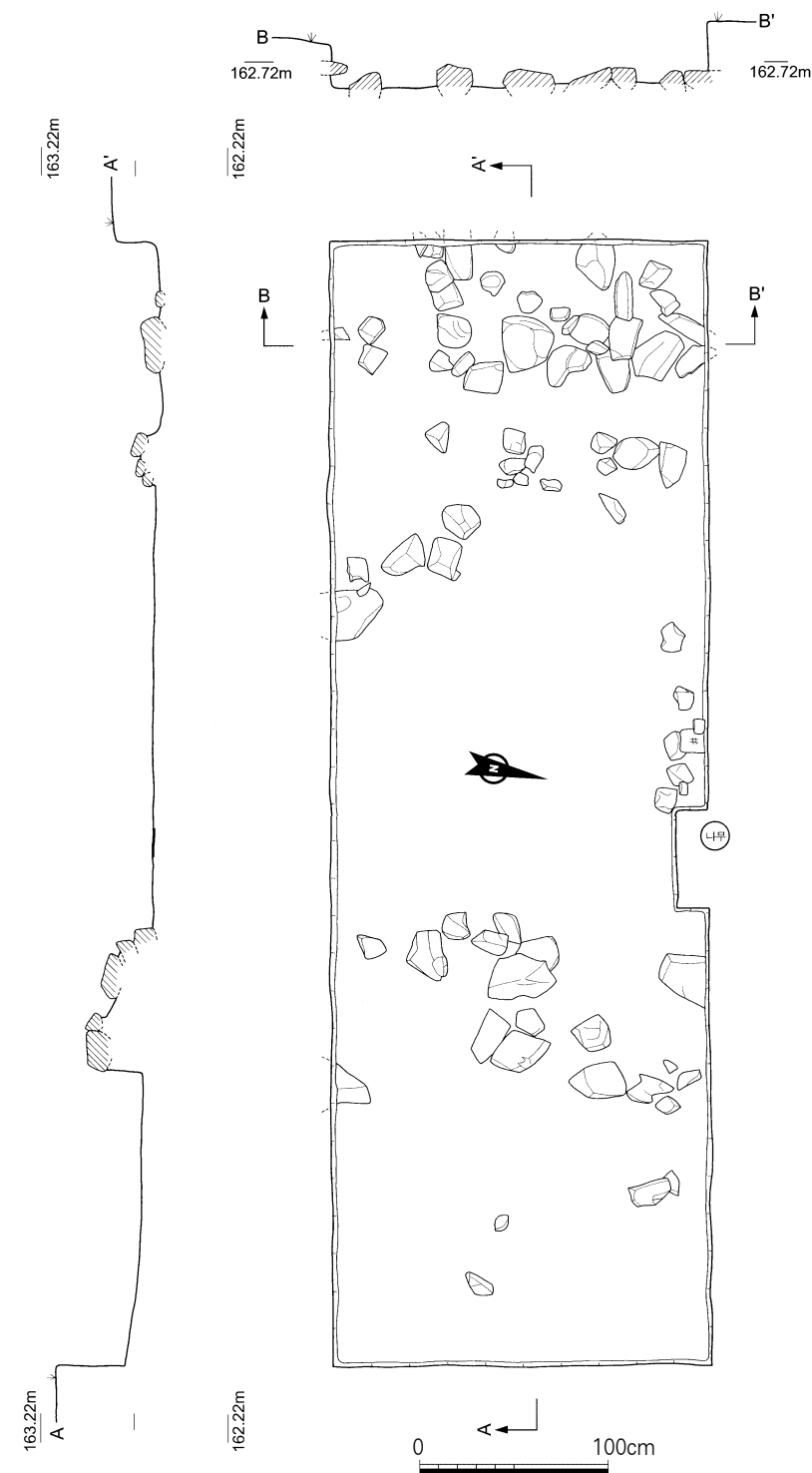
(도면 38 - ②, 사진 30 - ③)

청자접시의 저부편이다. 안바닥에 화문이 압인되었고 굽안바닥까지 황록유가 시유되었는데 광택이 좋고 빙결이 나 있다. 일반굽으로서 안바닥은 정연하게 깎아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다. 잔존 높이 1.4cm, 굽높이 0.6cm, 굽경 5cm로 굽안쪽에 태토비집눈이 관찰된다.

③ 백자대접 저부

(도면 37 - ③, 사진 30 - ④)

기벽이 두껍고 큰 대접의 일부이다. 구연은 결실되었으며 기벽이 넓고 오목한 바닥과 굽에 이어진다. 굽안바닥을 돌려 깎았는데 접지면은 일정하지 못하다. 전체 기벽에 회백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모래받침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굽경 8cm, 잔존높이 5.2cm이다.



도면 39. 트렌치 8 평·단면도

(2) 출토유물

① 청자완 저부 (도면 40 - ①, 사진 30 - ⑦)

양질의 태토로 만들어진 청자완의 저부이다. 사선으로 내려온 기벽이 안바닥에서 지름 2.6cm의 원각을 이룬다. 일반굽 형태이며 굽안바닥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깎아내었는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굽주변을 제외하고 황록색유를 시유하였으며 4눈의 모래비짐을 받쳐서 번조하였다. 안바닥에 포개 구이의 흔적이 있으며 빙렬이 심하고 용융 상태가 좋지 않다. 잔존 높이 1.7cm, 굽경 5cm이다.

② 도기 구연부 (도면 40 - ②, 사진 30 - ⑧)

고운 니질계의 태토로 만들어진 동이류의 구연부 일부이다. 구연부가 약간 내만하다가 구순부의 상단이 거의 평평하게 꺾여져 마무리되었다. 속심은 연갈색, 내외벽은 흑회색으로 두께가 얇으나 단정하게 마무리되었다. 동체 상부에 한 줄의 횡선을 돌렸을 뿐 아무 장식이 없으며 복원 구경 27cm, 잔존 높이 4.5cm이다.

③ 도기 구연부 (도면 40 - ③, 사진 30 - ⑨)

직립한 도톰한 口部가 동체부에서 넓게 벌어지는 기형으로 호의 일부로 보인다. 구연 일부에 자연유의 흔적이 있다. 구경 10cm, 잔존 높이 3cm이다.

④ 도기 구연부 (도면 40 - ④, 사진 30 - ⑩)

발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구순부가 내경하여 숨어들다가 경부에 한 줄의 횡선을 두르고 동체부는 점차 넓어지는 기형이다. 구순부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거친 태토에 녹갈유가 안팎에서 관찰되는데 기벽이 매우 거칠고 시유 상태도 좋지 않다. 복원 구경 22.3cm, 잔존 높이 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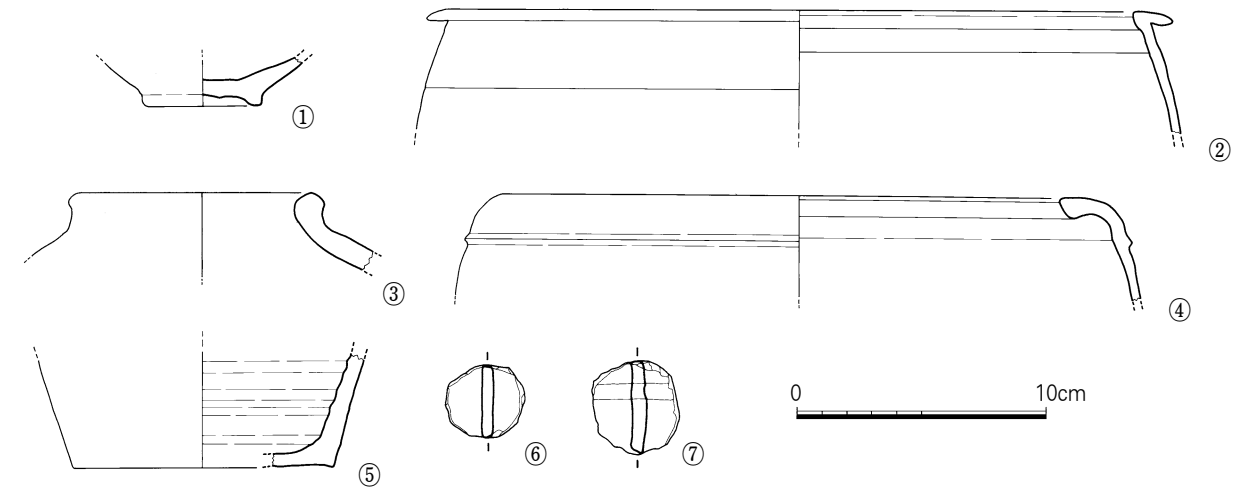
⑤ 도기 저부 (도면 41 - ⑤, 사진 30 - ⑪)

병으로 보이는 기형의 저부 일부이다.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도기로서 외벽은 흑회색의 광택이 있고 안바닥과 안벽에는 물레흔이 뚜렷하다.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저경 10.5cm, 잔존높이 4.3cm이다.

⑥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8에서는 2점의 원판형 제품이 수습되었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 격
41 - ⑥	30 - ⑫	흑회색 토기편	떼내고 마연	0.4×2.9
41 - ⑦	30 - ⑬	흑회색 토기편	쭈뚱히 떼내고 마연	0.5×3.7



도면 40. 트렌치 8 출토유물

9) 트렌치 9

(1) 현황 (도면 41, 사진 31 - ①, ②)

현 남문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단에 설정하였다. 2×12m크기의 동서방향으로 설정하여 굴토하였으며, 석렬 유구 1기가 노출되었다. 트렌치 내부에서 ㄱ자 형으로 추정되는 석렬유구 1기가 조사되었는데, 석렬의 모퉁이 부분에 방형의 구조가 덧대어 연결되어 있었다. 석렬 할석은 50×20cm의 장방형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방형구조의 할석은 10cm 정도의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였다. 조사된 트렌치 중 트렌치 5와 더불어 정연한 구조의 유구로 건물지 중의 일부로 추정되나,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명확한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출토유물

① 격자문토기 동체부 (도면 42 - ①, 사진 31 - ③)

회갈색 백제 토기의 동체부편으로 구연부가 결실된 흔적이 보인다. 외벽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연질로서 두께 0.7cm, 길이 4.4cm이다.

② 승문토기 구연부 (도면 42 - ②, 사진 31 - ④)

회갈색의 경질토기 구연부로 승문이 외벽에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고 안쪽에는 손누름 흔적이 있다. 두께 0.6cm, 잔존 길이 5.8cm, 복원 구경 29.6cm이다.

도면 41. 트렌치 9 평 · 단면도



③ 대부합 저부 (도면 42 - ⑤, 사진 31 - ⑦)

흑회색의 대부합 저부편으로 외벽에는 슬립을 발라 손질하였으나 내벽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2.4cm, 굽경 6.6cm이다.

④ 토기 구연부 (도면 42 - ③, 사진 31 - ⑤)

회청색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이 많이 외반한 형태로 매우 경질이며 안팎으로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도면복원한 구경은 21.2cm, 잔존 높이 5.1cm이다.

⑤ 구연부편 (도면 42 - ④, 사진 31 - ⑥)

옹이나 호의 구연부 일부로 보인다. 구연을 밖으로 말아넣고 물레질로 마무리하였다. 태토는 흑회색으로 굵고 가는 사립이 섞여 있다. 복원 구경 15cm, 잔존 높이 4.8cm이다.

⑥ 병 저부 (도면 42 - ⑥, 사진 31 - ⑧)

회청색 경질의 병저부편이다. 내벽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고 외벽에는 물손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저에 안바닥이 약간 들린 형태이다. 저경 10.4cm, 잔존 높이 5.4cm, 두께 0.5cm 내외의 규격이다.

⑦ 병 저부 (도면 42 - ⑦, 사진 31 - ⑨)

병의 저부편으로 내벽에는 물레흔이 뚜렷하나 외벽은 물손질과 외면 깎기로 물레흔을 지웠다. 속심은 적갈색에 가는 석립이 섞여 있다. 복원 저경 9.6cm, 잔존 높이 6.5cm이다.

⑧ 백자잔 (도면 42 - ⑧, 사진 31 -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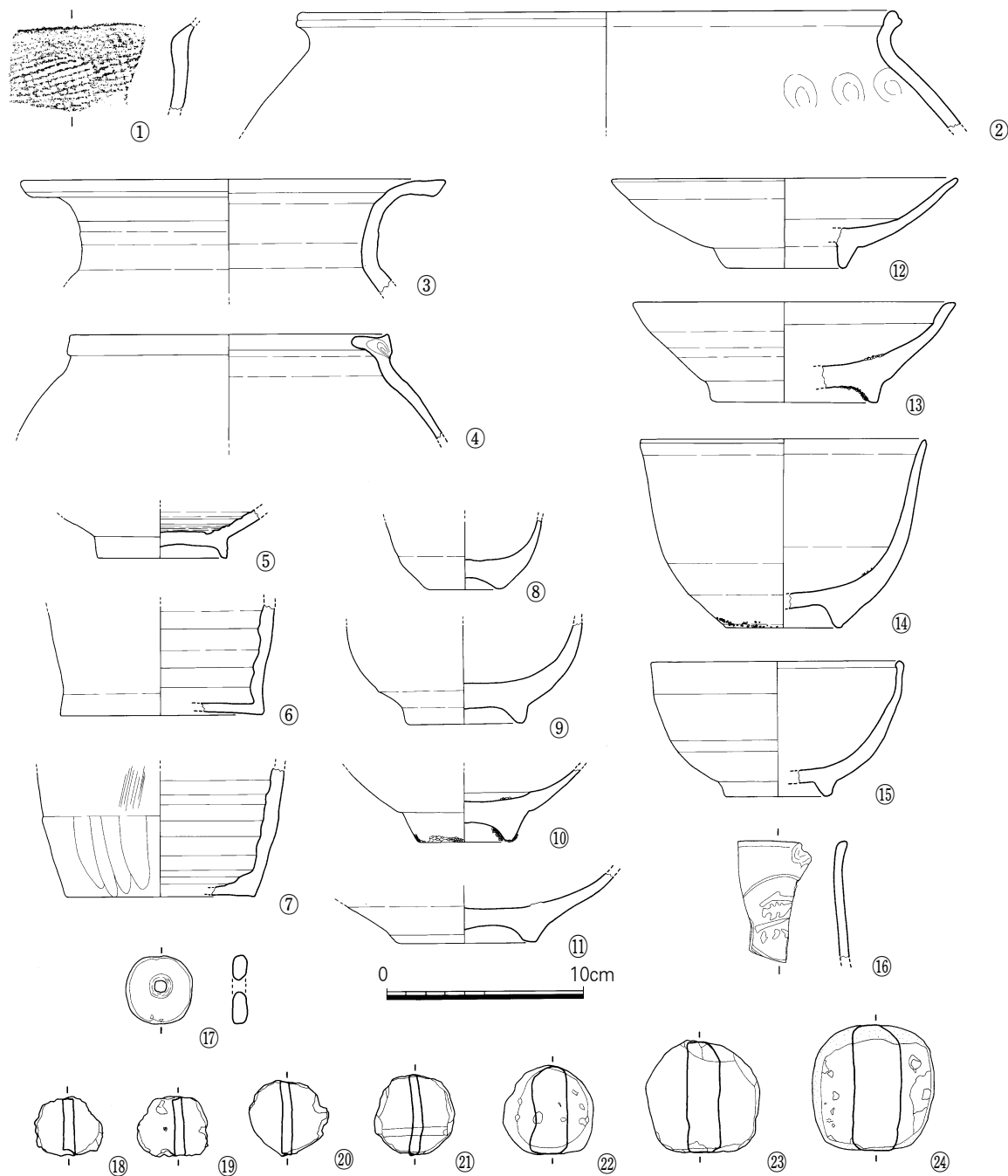
오목굽 백자잔 저부이다. 잡물이 많은 태토에 광택있는 회청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잔존 높이 3.5cm, 굽경 3.8cm 크기이다.

⑨ 백자대접 (도면 42 - ⑨, 사진 31 - ⑪)

백자대접 저부이다. 회백색의 유약을 기벽전체와 굽안바닥에까지 시유하고 접지면을 닦아낸 뒤 번조하였는데 용융상태가 불량하며 광택이 없고 표면이 거칠다. 잔존 높이 5cm, 굽높이 0.8cm, 굽경 6cm 규격이다.

⑩ 백자대접 (도면 42 - ⑩, 사진 32 - ①)

백자 대접 저부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기벽이 바닥에서 한 줄의 원각을 만나고 굽에 이른다. 굽은 내경하는 일반굽으로 오목하게 굽안바닥을 파내었다. 광택 있는 회청색유를 전체 기벽에 시유하고 굽은 모래를 뿌려 번조하였는데 외벽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잔존 높이 3.6cm, 굽높이 1.5cm, 굽경 4.8cm 크기이다.



도면 42. 트렌치 9 출토유물

⑪ 백자접시 저부 (도면 42 - ⑪, 사진 32 - ②)

백자 접시의 저부이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이 0.6cm 가량으로 넓은 편이다. 붉은기가 도는 회백색 유약을 접지면을 뺀 전체 기벽에 시유하였는데 빙결이 심하다. 잔존 높이 3.3cm, 굽경 6.8cm이다.

⑫ 백자접시 (도면 42 - ⑫, 사진 32 - ③)

기벽이 사선으로 내려오다 원각을 만나고 나서 평평한 바닥과 굽에 이르는 접시의 일부이다. 양질의 태토에 굽은 높지 않으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한 편이다. 전체 기벽에 회백색유를 시유하되 접지면의 유약은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높이 4.2cm, 복원 구경 15.4cm이다.

⑬ 백자접시 (도면 42 - ⑬, 사진 32 - ④)

살짝 외반된 구연이 사선의 기벽을 거쳐 평평한 바닥에 이른다. 구연부와 기벽 동체부 중간에 한 줄의 원각을 돌렸다. 굽은 일반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거친 태토에 회백색유를 시유하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으며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복원 구경 14.8cm, 높이 4.8cm이다.

⑭ 백자대접 (도면 42 - ⑭, 사진 32 - ⑦)

약간 외반한 구연이 수직으로 내려가 굽과 만나는 기형의 대접이다. 굽안바닥은 깊이 깎아낸 반안굽 형태로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다. 태토는 잡물이 많아 거칠며 회백색 유약을 굽안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시유하고 굽은 모래를 뿌려 번조하였다. 기벽의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높이 8cm, 복원 구경 13cm이다.

⑮ 백자대접 (도면 42 - ⑮, 사진 32 - ⑧)

기벽 안쪽에서 한줄의 황선을 그리며 약간 내만하는 구연이 사선으로 내려와 굽에 연결되는 기형의 백자대접 일부이다. 굽은 일반굽으로 굽안바닥을 파낸 후 회백색유를 접지면을 제외한 기벽 전체에 시유하여 모래받침으로 구웠다. 기벽 안바닥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복원 구경 11.6cm, 높이 8.2cm이다.

⑯ 철화백자 구연부 (도면 42 - ⑯, 사진 32 - ⑤)

대접류로 보이는 기형의 구연부 일부이다 외벽에 지름 4.5cm 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無'자를 써넣었다. 잔존 높이는 5.9cm 기벽 두께 0.4cm이다.

⑰ 토제방추차 (도면 42 - ⑰, 사진 32 - ⑥)

두께 0.7cm, 지름 3~3.3cm인 황갈색 토판에 0.6cm 길이의 원형 구멍이 양쪽 방향에서 뚫려 있는 방

추차이다. 외연은 말각 방향에 가까운 원형으로 매끄럽게 마연되어 있다.

⑱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9에서는 7점의 원판형 토제품이 수습되었는데 외편, 토기편, 도기편을 소재로 제작하였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42 - ⑱	32 - ⑨	회청색 도기편	거칠게 떼냄	0.6×3.4
42 - ⑲	32 - ⑩	흑회색 토기편	떼내고 마연	0.6×3.5
42 - ⑳	32 - ⑪	흑회색 토기편	큰폭으로 떼냄	0.5×3.7
42 - ㉑	32 - ⑫	흑회색 토기편	떼내고 마연	0.4×4
42 - ㉒	32 - ⑬	적갈색 무문외편	방향에 가깝게 마연	1.7×4.5
42 - ㉓	32 - ⑭	흑회색 청해파문외편	떼내고 마연	1.5×5.5
42 - ㉔	32 - ⑮	회백색 무문외편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연	2.3×6.3

10) 트렌치 10

(1) 현황(도면 43, 사진 33 - ①, ②)

트렌치 6의 상단부에 동서 방향으로 1×10m로 굴토하였다. 트렌치 설정 당시 주변에 물이 고여 빨충을 형성하고, 석재가 둥글게 흩어져 있어 우물지로 추정하였는데, 조사결과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변에 흩어진 석재는 상단의 축대에 사용된 것들이며, 인위적인 유구의 흔적은 없었다. 다만 이곳에 주변의 축대 혹은 건물지와 관련된 배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2) 출토유물

① 철정 (도면 44 - ①, 사진 33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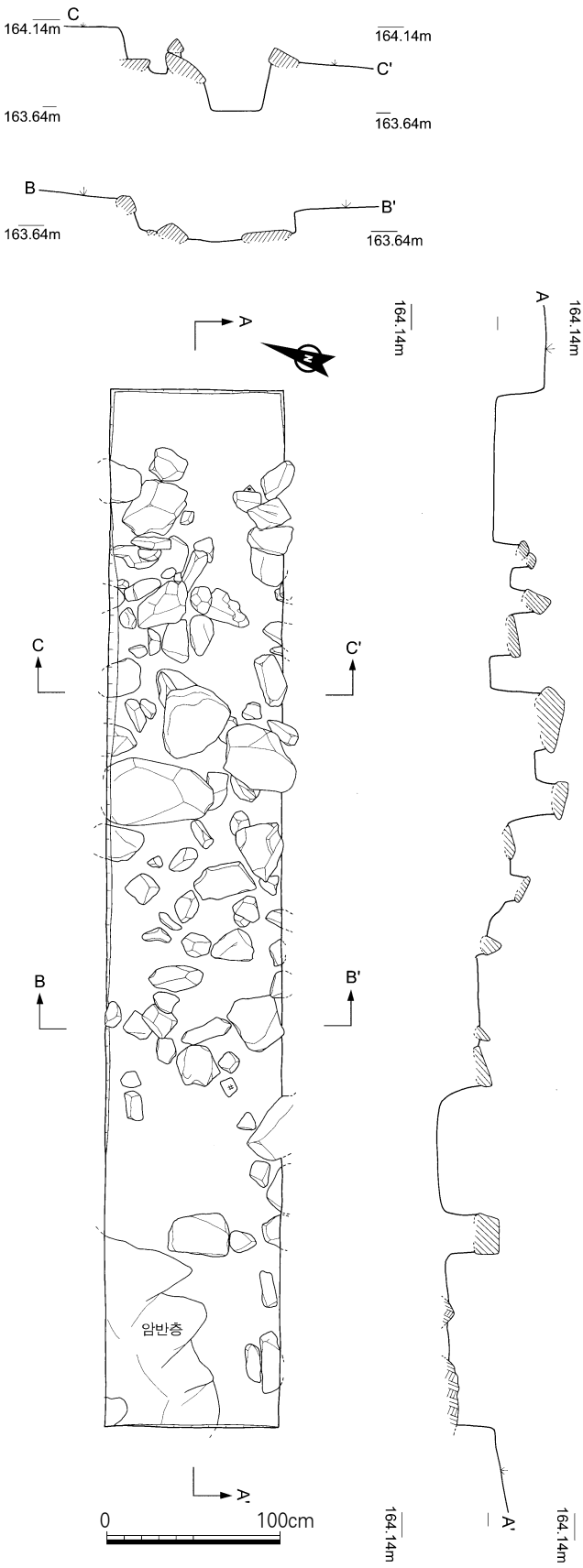
단면 직사각형의 철정이다. 사용으로 인하여 몸체가 휘었으며 머리를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은 형식으로 꼬리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는 형태이다. 현재 녹이 많이 슬어 있다. 두부 0.6cm, 꼬리쪽 0.4cm의 폭을 가지며, 잔존 길이 9cm이다.

② 도기 저부편 (도면 44 - ②, 사진 33 - ④)

옹류의 저부로 보인다. 복원 저경 26cm로 속심은 적갈색, 내외벽은 흑갈색을 띤다. 외벽은 검은색의 광택이 나며 외벽 바닥은 물레에의 부착을 방지하고자 소분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안벽과 외벽, 안벽 바닥에도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안벽에는 내박자흔, 외벽에는 점토띠 연결시의 연결흔이 보인다. 잔존 높이 5.5cm이다.

③ 백자잔 (도면 44 - ③, 사진 33 - ⑤)

반안굽을 갖는 백자잔이다. 태토는 거칠고 잡물이 많은 편이다. 전체 기벽에 회백색유를 시유하고 접



도면 43. 트렌치 10 평·단면도

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어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3.4cm 높이에 구경 9cm, 굽경 4cm이다.

④ 백자접시 저부 (도면 44 - ④, 사진 33 - ⑥)

저부 일부와 굽 만이 남아있는 백자접시이다. 태토는 양질로 보이며 굽은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회청색유를 시유한 뒤 접지면을 닦아내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잔존 높이 2.8cm, 굽경 4.6cm이다.

⑤ 철화백자 뚜껑편 (도면 44 - ⑤, 사진 34 - ①)

드림새의 일부만 남은 뚜껑편으로 철화안료로 그려진 초문이 일부 남아 있다. 복원 구경 13.4cm, 높이 2.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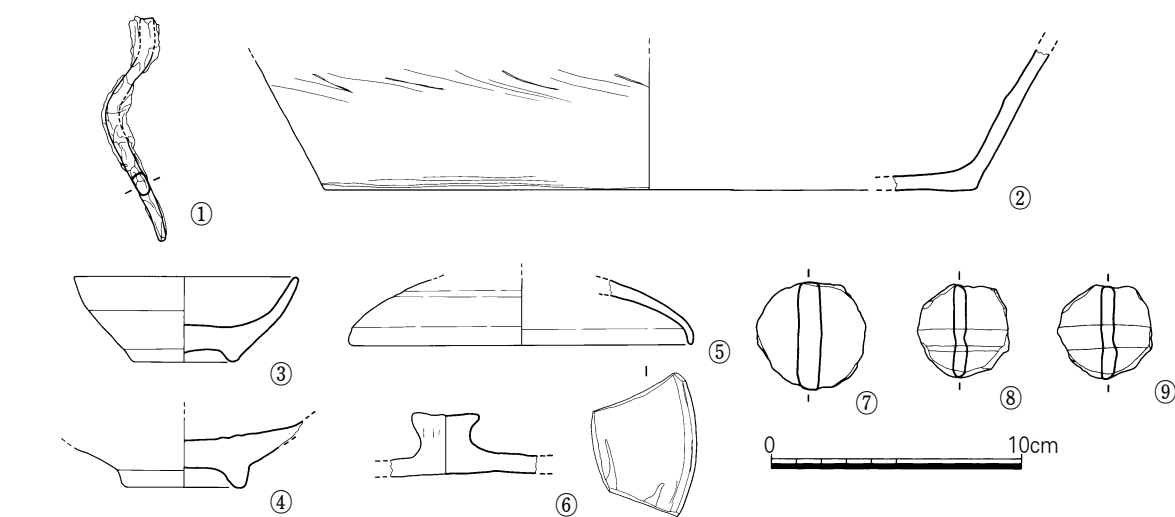
⑥ 백자 뚜껑편 (도면 44 - ⑥, 사진 34 - ②)

거의 평평한 형태로 윗면 중앙에 버섯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그 밖에는 아무 장식이 없다. 태토는 거칠고 사립이 섞여있으며 유백색유를 시유하였는데, 손잡이 일부에는 시유되지 못하였고 용융 상태도 좋지 않다. 잔존 높이 2.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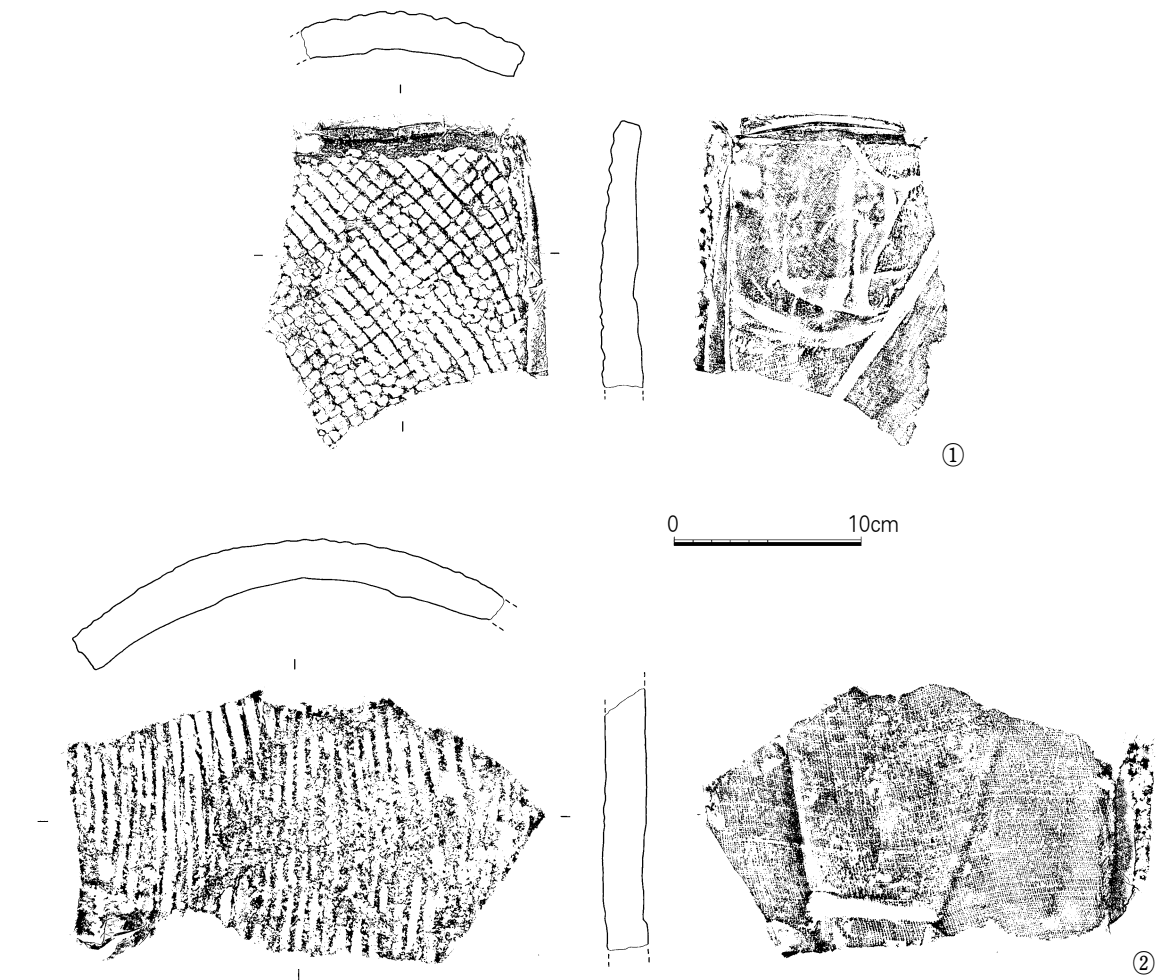
⑦ 원판형 토제품

트렌치 10에서는 3점이 수습되었으며 그 속성은 아래와 같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44 - ⑦	34 - ⑤	적갈색 옹기편	촘촘히 떼내고 마연	0.8×4.2
44 - ⑧	34 - ③	흑갈색 토기편	떼내고 마연	0.5×3.5
44 - ⑨	34 - ④	회백색 토기편	방형에 가깝게 큰폭으로 떼냄	0.5×3.6



도면 44. 트렌치 10 출토유물



도면 45. 트렌치 10 출토기와

⑧ 와 (도면 46 - ①, 사진 34 - ⑥)

회청색의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판 전면에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포문이 남아있는데 굽기가 다른 베는 이어 만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와도는 안에서 그었고 파쇄면은 다듬지 않았다. 두께 1.3~2.1cm, 잔존 길이 14cm

⑨ 와 (도면 46 - ②, 사진 34 - ⑦)

태선문이 타날된 암키와편이다. 굽고 가는 사립이 많이 섞인 회백색 태토로 만들어졌다. 와도는 안에서 그었으며 파쇄면은 다듬지 않았다. 이면에 포문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와통에 뭔가 관형을 뒀던 듯한 흔적이 보인다. 두께 2.2cm, 잔존 길이 12.5cm

11) 트렌치 11

(1) 현황 (도면 46, 사진 34 - ⑧, 사진 35 - ①, ②)

세마대지 서쪽 평탄대지에 남북방향으로 2×10m 크기로 설정하여 굴토하였다. 사용처를 알수 없는 100×60cm의 석재 1점과 석렬유구 1기, 소토층이 노출되었는데, 소토층의 범위는 200×100cm이며, 그 바로 옆에 석렬 유구가 만들어져 있다. 석렬유구는 소토층 주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소석은 아니었으며, 납작한 판석을 겹치듯이 놓았다. 소토층은 장방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쪽 모서리에 10cm 내외의 활석이 위로 덮이듯이 깔려 있고 소토 역시 돌출하여 있다.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 중 유구의 성격을 짐작케 할 것은 없었으나, 일부 slag편이 수습된 것으로 보아 생산유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출토유물

①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47 - ①, 사진 36 - ①)

0.7cm정도 두께의 회갈색조로 사립이 섞인 태토이다. 연질에 가까우며 표면에는 승문이 수평타날되어 있고 횡선을 2cm간격으로 돌렸다. 안벽과 단면에서 점토대의 연결흔과 누른 자국이 나타난다. 잔존 길이 6.4cm이다.

②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47 - ②, 사진 36 - ②)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0.4cm정도 두께의 얇은 기벽에 승석문이 평행 타날되어 있고 횡선을 돌렸는데 경도는 비교적 단단하다. 잔존 길이 4.2cm이다.

③ 대웅 동체부 (도면 47 - ③, 사진 36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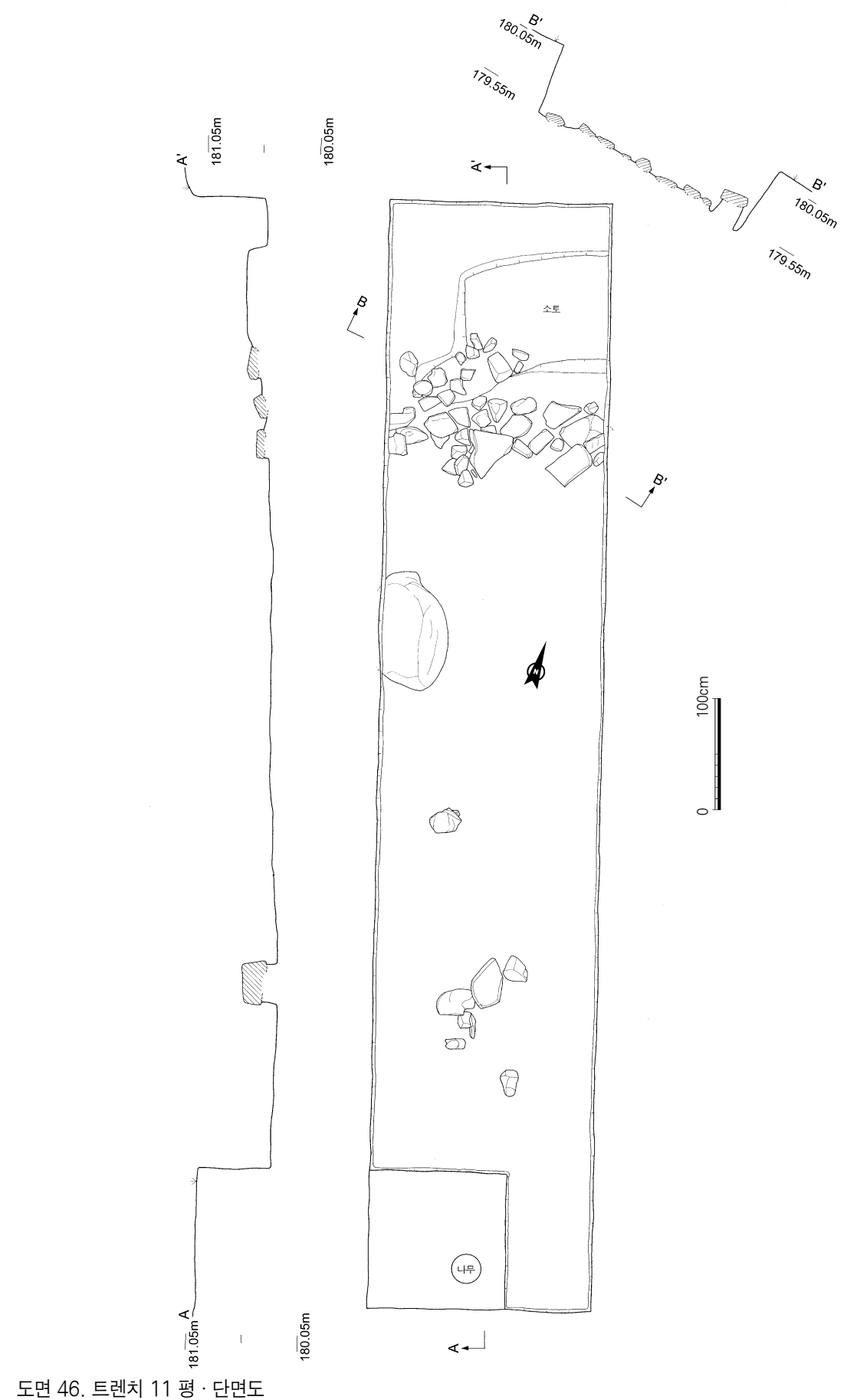
대형 용기의 동체편으로 보인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섞여서 거칠며 회청색의 경질로서 외벽에 돌대를 돌린후 날카로운 도구로 규칙적으로 눌러 주거나 손가락 등으로 눌러서 파상 문양을 표현하였다. 잔존 높이 10.5cm, 기벽 두께 0.5cm이다.

④ 보주형뚜껑손잡이 (도면 47 - ④, 사진 36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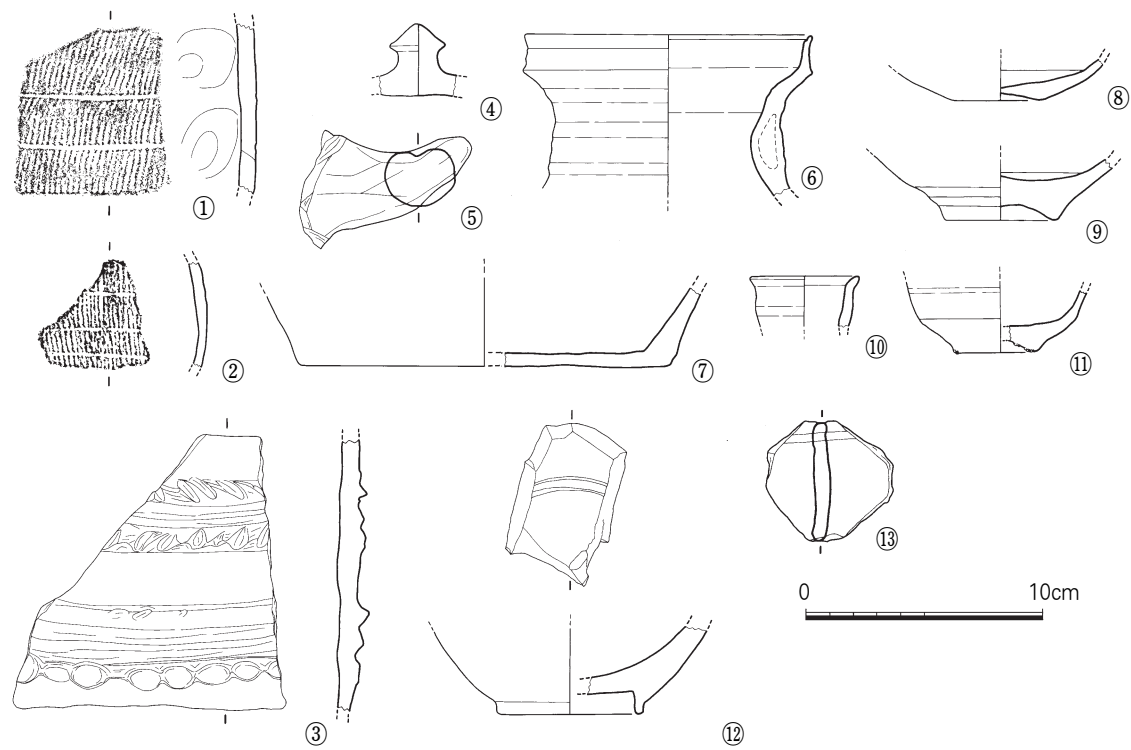
뚜껑의 드림새 부분은 결실되었고 뚜껑에 부착된 손잡이만 남아 있다. 보주형인데 물레흔만이 남아 있고 그 외는 장식이 없다. 높이 2.8cm이다.

⑤ 우각형파수 (도면 47 - ⑤, 사진 36 - ⑤)

기벽은 결실되고 우각형 파수만이 남은 형태이다. 적갈색의 가는 모래가 섞인 연질로서 상부에 길이 2.7cm, 폭 0.3cm 크기의 홈을 만들었다. 기벽과의 연결 시에 생긴 흔적이 남아 있다. 길이 6.4cm이다.



도면 46. 트렌치 11 평·단면도



도면 47. 트렌치 11 출토유물

⑥ 병 구연부 (도면 47 - ⑥, 사진 36 -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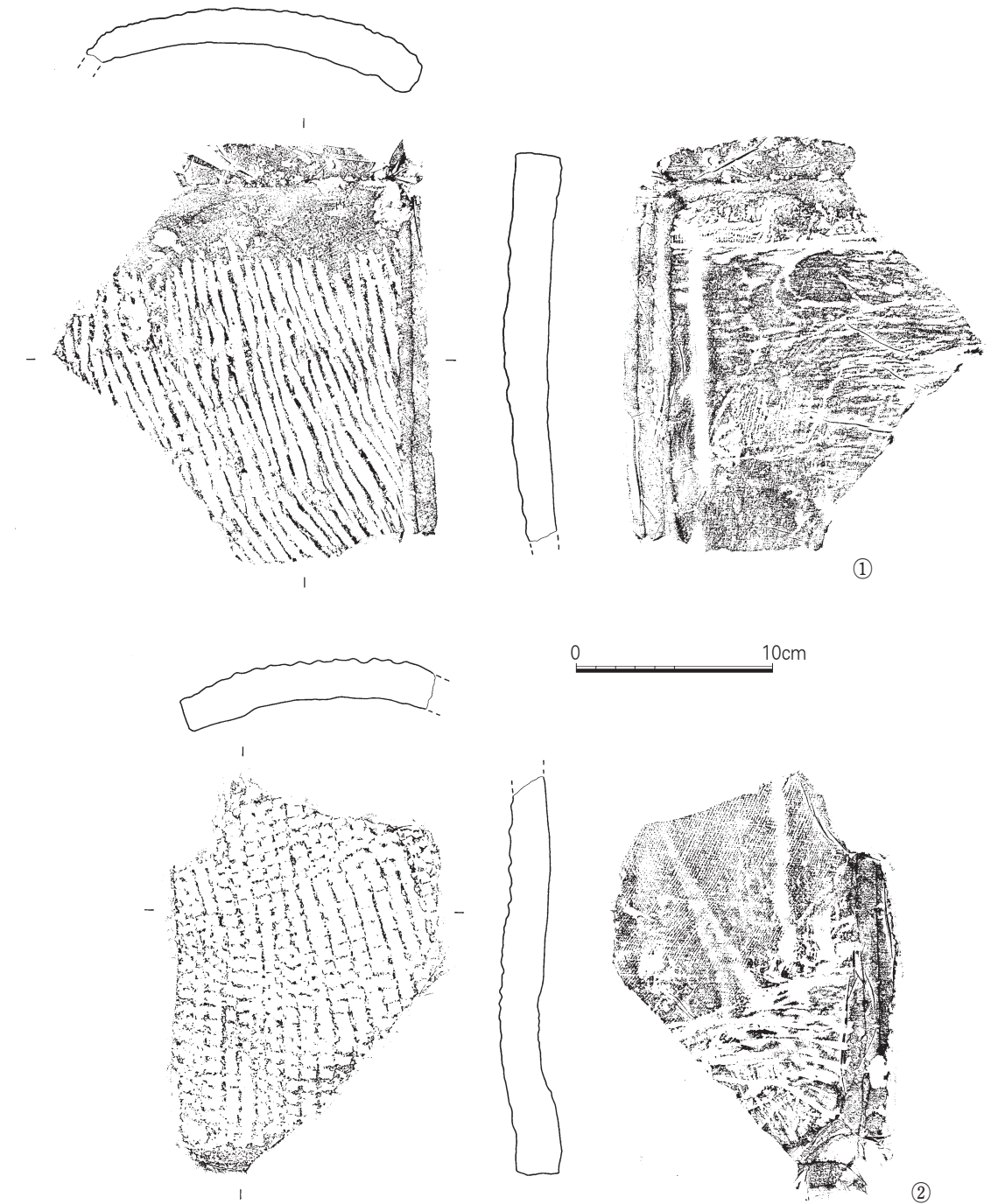
광구로 각이 저 세워진 큼직한 口部와 좁혀진 목을 가진 병의 일부이다. 회청색의 경질로서 굵은 석립이 섞인 태토로 조성되었는데 치밀하지 못하여 경부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잔존 높이 6.4cm 복원 구경 12cm로 구경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⑦ 호 저부 (도면 48 - ⑦, 사진 36 - ⑦)

외벽바닥은 물레흔이 없고 다른 흙가루를 뿌린 듯이 보인다. 내벽과 안바닥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외벽에는 슬립을 입혔으나 희미하게 물레흔이 남아있다. 내벽과 바닥부의 연결흔이 안벽바닥에서 관찰된다. 저경 15.4cm, 잔존 높이 3.3cm이다.

⑧ 청자 저부 (도면 48 - ⑧, 사진 36 - ⑧)

청자접시 저부 일부이다. 평저로서 굽안바닥이 약간 들린 상태이며 직경 7cm크기의 원각이 안바닥에 남아있다. 태토는 거칠고 회록색유가 전체 기벽에 시유되었으며 굽바닥에는 5눈, 기벽 안바닥에는 4눈의 모래비짐 흔적이 남아 있다. 빙렬이 심하고 유약의 박락 상태가 심하다. 잔존 높이 1.7cm, 저경 3.8cm 크기이다.



도면 48. 트렌치 11 출토기와

⑨ 백자 저부 (도면 47 - ⑨, 사진 37 - ①)

치밀한 태토의 백자 저부로 기형은 알 수 없다. 바닥에 원각이 한 줄 돌려져 있고 굽은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오목굽이다. 연한 갈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굽경 4.8cm, 잔존 높이 2.6cm이다.

⑩ 백자잔 구연부 (도면 47 - ⑩, 사진 37 - ②)

작은 백자잔의 구연부 일부이다. 외반된 구연에 기벽의 안쪽으로 물레흔이 남아있고 회청색유가 시유되었다. 복원 구경 4.4cm, 잔존 높이 2.1cm이다.

⑪ 백자잔 저부 (도면 47 - ⑪, 사진 37 - ⑤)

기벽과 저부 일부만이 남아있는 백자잔이다.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저부는 굽의 안바닥을 오목하게 살짝 깎아낸 형태이다. 태토는 잡돌이 많이 섞였으며 회백색유를 안팎으로 시유하여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잔존 높이 2.4cm, 굽경 3.4cm이다.

⑫ 청화백자 저부 (도면 47 - ⑫, 사진 ⑪, 사진 37 - ④)

저부와 굽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잡물이 섞인 태토로 빚었는데 기형은 대접으로 보이며 굽은 반안굽이다. 흐린 청화 안료로 2줄의 원을 돌리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렸는데 결실되어 알 수 없다. 복원 굽경 5.8cm, 잔존 높이 3.4cm이다.

⑬ 원판형 토제품

이 곳에서는 흑갈색 토기편을 큰 폭으로 떼낸 원판형 토제품이 1점 수습되었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47 - ⑬	37 - ③	흑갈색 토기편	큰폭으로 떼냄	0.6×5

⑭ 와 (도면 48 - ①, 사진 ⑦)

회백색의 운모가 많이 섞인 태토로 만들어진 암키와편이다. 등에는 태선문이 타날되었고 이면에는 섬세한 포문과 젓가락식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상면은 깎기로 다듬었고 분할흔을 두 번 이상 그어서 파쇄면이 다듬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께 2.1cm, 잔존 길이 19.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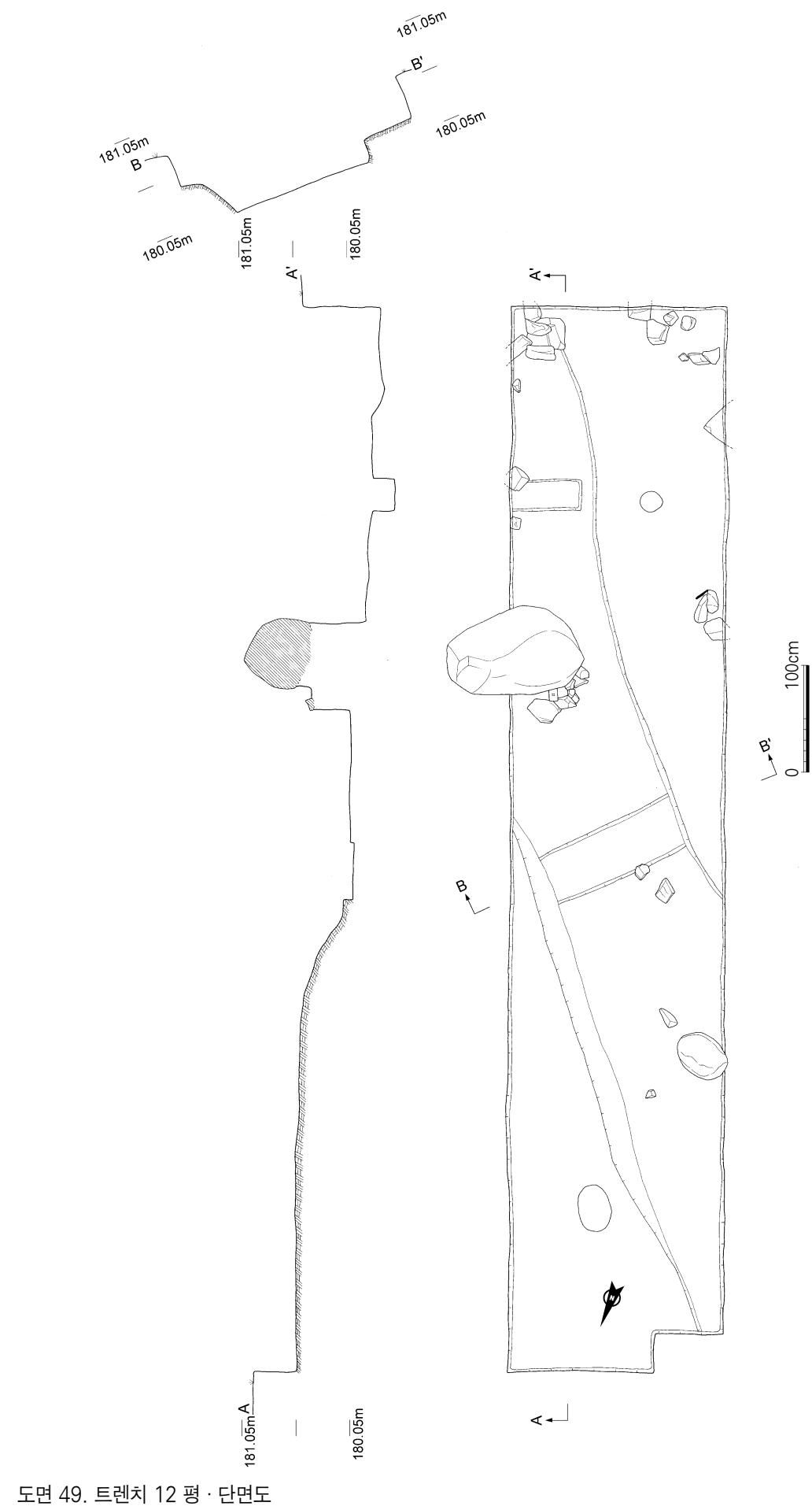
⑮ 와 (도면 48 - ②, 사진 36 - ⑥)

회갈색 사격자문 암키와의 일부이다. 굽은 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서 문양의 요철이 깊은 편이다. 이면에는 포문, 젓가락식 분할계선이 관찰되며 각각 굽기가 다른 굽고 가는 포문이 관찰되어 주목된다. 와도는 두 번 이상 그어 파쇄면을 다듬었다. 하단 깎기가 관찰된다. 두께 2cm, 잔존 길이 19cm이다.

12) 트렌치 12

(1) 현황 (도면 49, 사진 38)

트렌치 11과 같은 평탄지에 남북 방향으로 2×10m 크기로 설정하여 굴토하였다. 조사 결과 120×100cm크기의 석재 1점이 노출되었고 암반층을 폭 140cm 깊이 30cm의 규모로 길게 굴토한 것이 확인



도면 49. 트렌치 12 평·단면도

되었다. 이 암반층의 성격은 명확치 않으나, 유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출토유물

① 승문토기 동체부 (도면 50 - ①, 사진 39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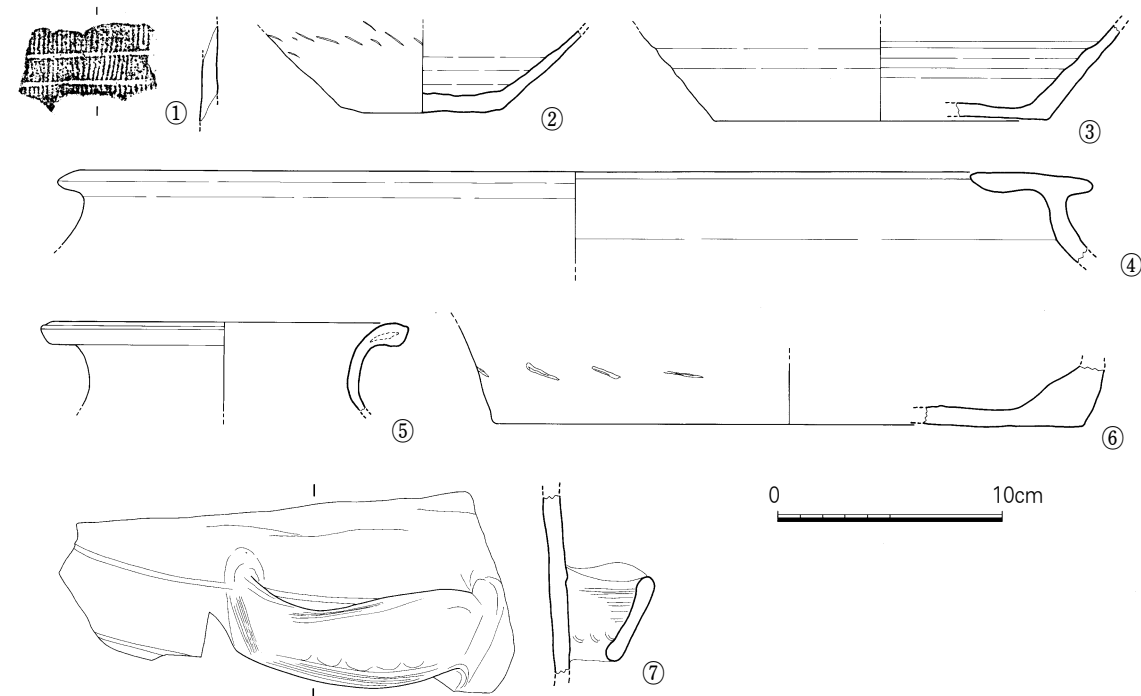
가는 모래가 섞인 회백색 연질의 태토로 외벽에 승문이 타날되었다. 두께 0.6cm, 잔존 길이 3×5cm이다.

② 토기 저부편 (도면 50 - ②, 사진 39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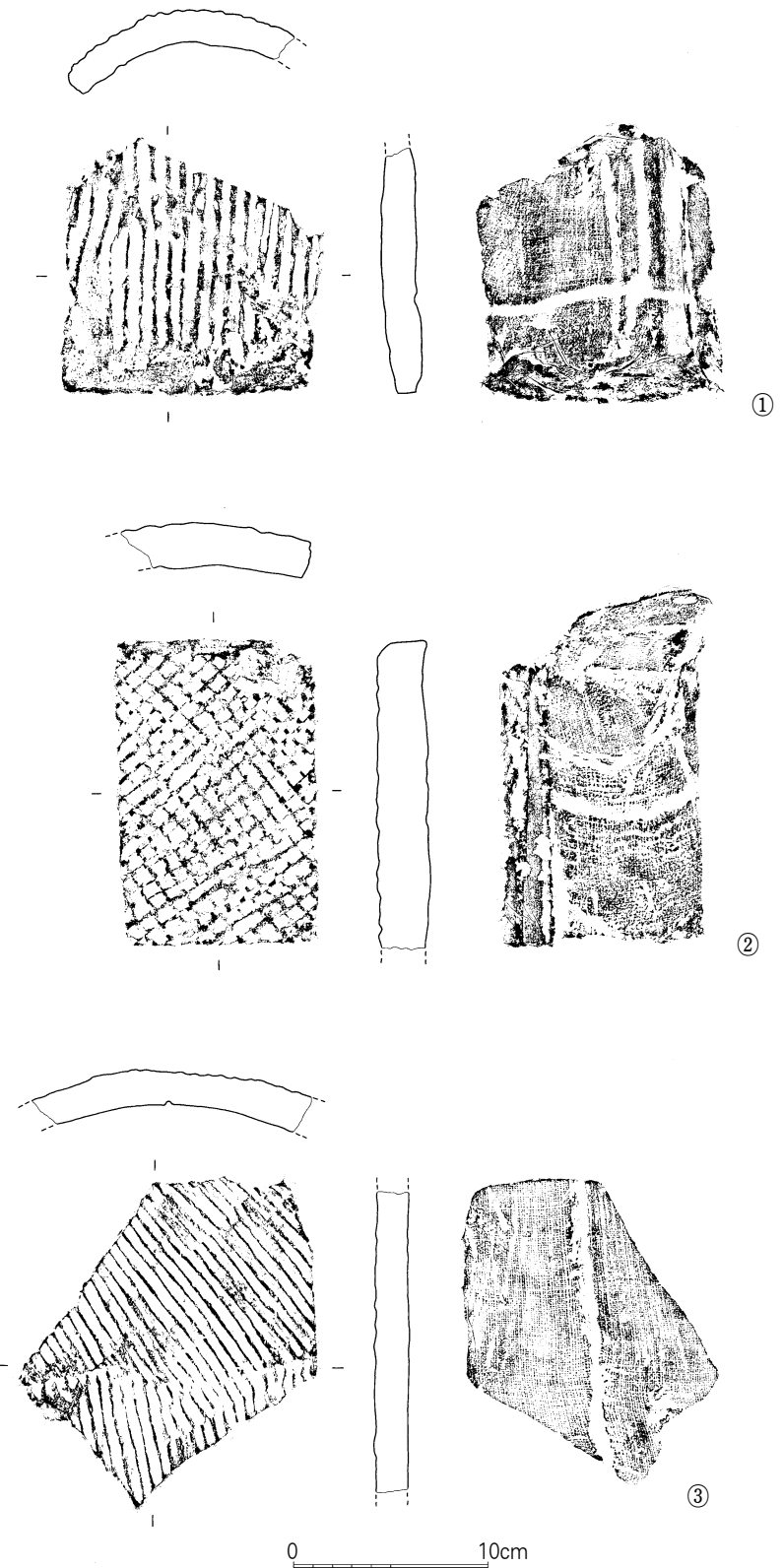
연갈색 토기의 저부편이다. 평저로서 동체부가 크게 벌어지는 기형으로 기벽 중간에 점토대의 연결 흔이 남아 있다. 외벽은 슬립을 발라 물레흔을 없앴으나 내벽과 안바닥에는 남아 있다. 외벽 바닥에는 선각으로 흐릿하게 직선을 여러 번 그었다. 잔존 높이 3.2cm, 복원 저경 6.2cm이다.

③ 도기 저부 (도면 50 - ③, 사진 39 - ③)

안기벽, 안바닥, 외벽에 물레흔이 뚜렷한 회백색 경질의 토기 저부편이다. 약간 들린 평저로서 동체부가 크게 벌어지는 기형이다. 잔존 높이 3.4cm, 복원 저경 13.3cm이다.



도면 50. 트렌치 12 출토유물



도면 51. 트렌치 12 출토기와

④ 대웅 구연부 (도면 50 - ④, 사진 39 - ④)

대웅의 구연부편이다. 추정 구경 35cm의 대웅으로서 가는 석립이 섞인 치밀한 태토로 구성된 도질이다. 구연이 내만하다가 구순부를 안으로 접어 넣은 뒤 다시 밖으로 접어 내어 폭이 5.3cm에 이르는 전을 형성하였다. 잔존 높이 4cm이다.

⑤ 호 구연부 (도면 50 - ⑤, 사진 39 - ⑤)

흑유외 광택이 나는 호의 구연부편이다. 외반된 구순이 거의 수평을 이루며 마무리되었는데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 형태가 깔끔하지 않다.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외벽은 흑회색 광택을 띠는데 시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원 구경 15.8cm, 잔존 높이 3.8cm이다.

⑥ 도기 저부 (도면 50 - ⑥, 사진 39 - ⑥)

기벽 두께와 저경으로 보아 웅의 저부 일부로 보인다. 평저로서 속심은 적갈색, 내외벽은 회청색을 띠며 외벽 하단에 저부와 기벽의 연결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흠이 규칙적으로 남아 있다. 복원 저경 23.4cm, 잔존 높이 2.4cm이다.

⑦ 파수부동체 (도면 50 - ⑦, 사진 39 - ⑦)

도기의 동체편으로 보이며 대상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내벽에는 반원형의 박자흔이 나 있고 파수의 내벽에는 손누름 자국이 나 있다. 기벽 두께 0.6cm이다.

⑧ 와 (도면 51 - ①, 사진 39 - ⑧)

요철이 뚜렷한 태선문이 타날된 흑회색 수키와의 일부이다. 흡습성이 높은 와질로서 이면에는 포문과 함께 젓가락식 분할계선, 연철흔, 합철흔이 모두 관찰된다. 두께 1.7cm, 잔존 길이 12.5cm이다.

⑨ 와 (도면 51 - ②, 사진 39 - ⑨)

적갈색의 사격자문 암키와 일부이다. 윗이 굽고 가는 포문이 섞여 있으며 와도를 여러 번 대어 파쇄면을 일부 다듬었다. 젓가락식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두께 2.5cm, 잔존 길이 15.8cm이다.

⑩ 와 (도면 51 - ③, 사진 39 - ⑩)

태선문을 각도를 달리해서 타날하였다. 굽은 석립이 섞인 황갈색 암키와의 일부로서 이면에 합철흔이 보이며 윗이 굽은 포문이 관찰된다. 파손으로 인해 와도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1.6cm, 잔존 길이 15.3cm이다.

3. 세마대지

1) 현황

세마대는 독산성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장대지의 역할도 겸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주변을 인위적으로 평탄지로 만든 후 다시 1단의 축대를 더 쌓아 세마대⁴⁷⁾를 건립하였으며, ㄱ자 형의 기단석렬로 추정되는 일부 석렬이 주변 지표에서 관찰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 세마대의 바로 아래 서쪽단에 4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트렌치의 내부 굴토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이미 세마대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생활 쓰레기 층으로 교란되어 있었으며,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렌치 15에서 지름 40cm 가량의 원형열 2기가 노출되었으며, 조선 기와, 백자 편이 수습되었다. 4개의 트렌치 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트렌치 13 (도면 52, 사진 40 - ①)

남북방향으로 1×10m로 굴토되었다. 조사결과 1980년대의 생활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이 3개 층에 걸쳐 있으며, 가장 하부층인 암반에서 조선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2) 트렌치 14 (사진 40 - ③)

남북방향으로 1×5m로 굴토 되었다. 현지표층 아래에서 암반층이 확인되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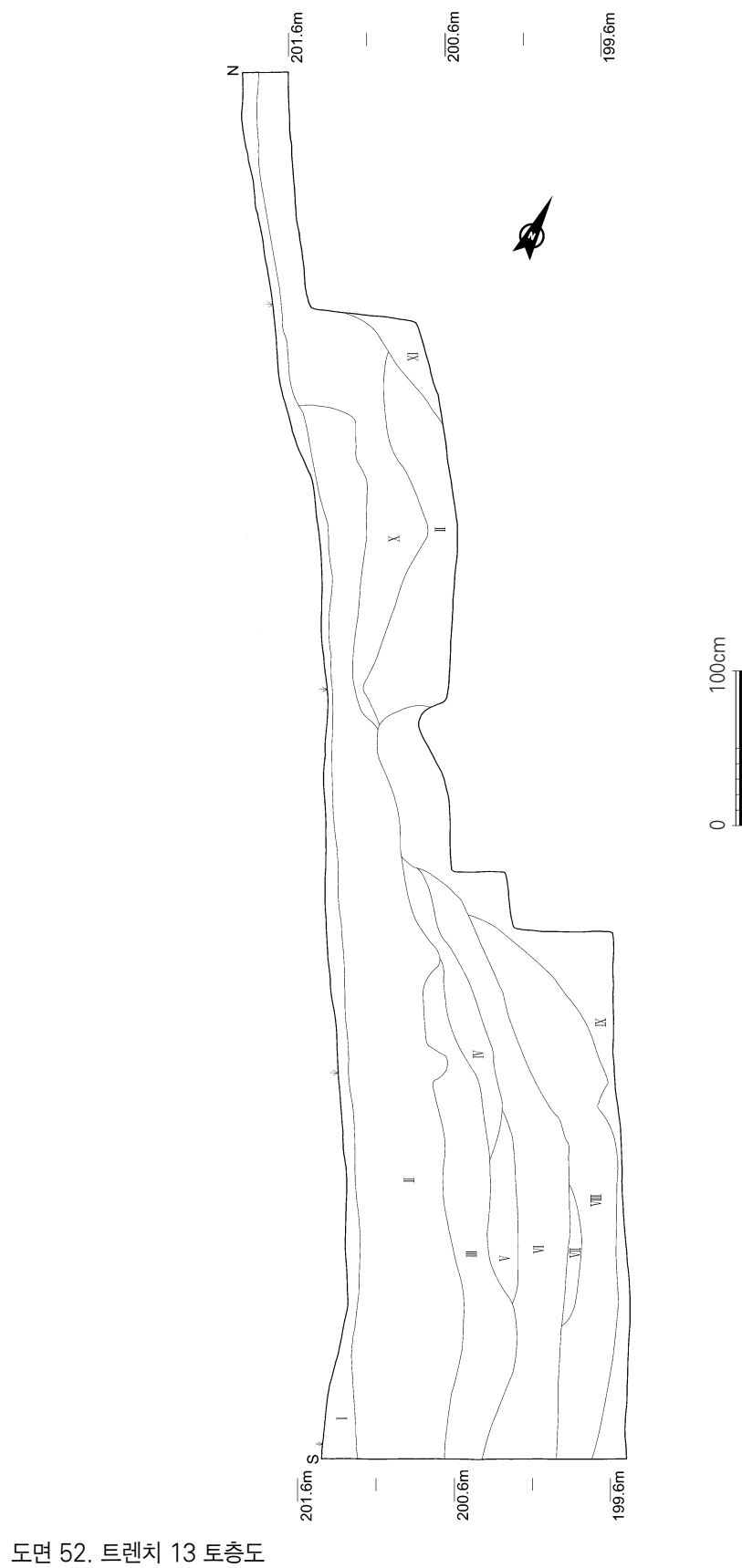
(3) 트렌치 15 (도면 56, 사진 40 - ④)

동서 방향으로 1×5m로 굴토되었다. 세마대에 설정된 4개의 트렌치 중 가장 안정된 층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표토는 흑갈색 사질 점토층이며 Ⅱ층은 황갈색 사질토층으로 중간에서 끊어진다. Ⅲ층은 적갈색 점토층과 흑색부식토층이 섞여 있는 층위로서 흑색부식토층이 주류를 이루고 적갈색 점토는 중간 중간 덩어리진 형태로 관찰된다. Ⅳ층은 적갈색 사질토가 강한 층으로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마사토가 혼입되어 있다. Ⅴ층은 회갈색 사질토층으로 약간의 점토질 성분이 보강되어 있으며 Ⅶ층은 석비레층으로 직경 40cm가량의 원형 열 2기가 노출되었다. 원형 열의 성격은 알수 없으나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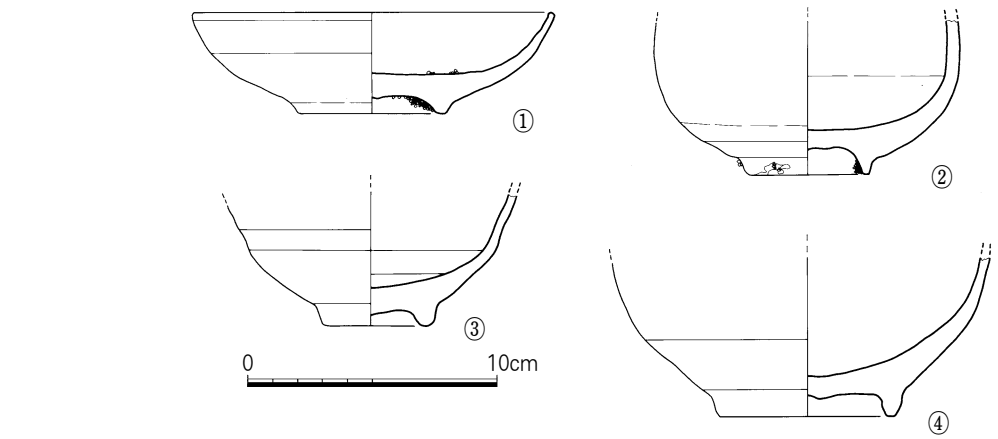
(4) 트렌치 16(사진41-③)

동서 방향으로 1×10m로 굴토되었다. 현지표 아래층에서 바로 암반층이 노출되며, 유구는 없다.

47) '세마대'라는 명칭은 근대에 와 붙여진 것으로 원래 명칭은 알수 없다. 『조선왕조실록』 『화성지』 등에 기록된 건물명 중 특별히 장대지를 지칭한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성내의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평탄지들은 모두 세마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 지역이 성내 중심지역으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독산성의 내부조사가 좀더 진행되어 각 건물지의 배치가 명확해 진다면 세마대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번호	지표	층위
I 층	쓰레기층(1970~80년대 매립)	
II 층	갈색사질점토층(적은 할석류 포함)	
III 층	명갈색사질점토층(기와 포함층)	
IV 층	암갈색사질토층	
V 층	갈색사질토층	
VI 층	밝은사질토층	
VII 층	풍화암반토층	
VIII 층	밝은사질토층	
IX 층	암반층	
X 층	암반층	
XI 층	암반층	



도면 53. 트랜치 13 출토유물

2) 출토유물

① 백자접시 (도면 53 - ①, 사진 41 - ④)

약간 내만한 구연이 사선을 이루며 내려와 굽에 이르는 접시이다. 태토는 치밀질이며 청백유를 굽바닥을 포함한 전체 기벽에 시유하였는데 일부 빙렬이 보인다. 굽은 모래 받침을 하였는데 굽안바닥에 다량의 모래가 엉겨 붙어 있고 기벽 안바닥에도 포개구이의 흔적으로 굽은 모래가 뿌려져 있다. 굽은 일반굽이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높이 3.6cm, 복원 구경 14.4cm, 굽경 6cm이다.

② 백자대접 (도면 53 - ②, 사진 41 - ⑤)

구연은 결실되고 기벽과 저부 일부만이 남아 있는 대접이다. 구경보다 기북부의 지름이 더 큰 기형으로서 치밀한 백토에 녹색을 띤 백색유를 전면에 두껍게 시유하였다. 굽안바닥을 깔끔히 파내고 시유하였으며 모래 비짐을 4곳 이상 받쳐서 구웠다. 외기벽에는 '元' 자명이 흐릿하게 도드라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명문을 나타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잔존 높이 6.0cm, 굽경 4.8cm이다.

③ 백자대접 저부 (도면 53 - ③, 사진 41 - ⑥)

수직의 기벽이 급하게 꺾여 저부에 이르는 기형으로 그 사이에 한 줄의 원각이 돌려졌다. 안바닥은 평평하며 굽은 일반굽이다. 굽안바닥을 둥글게 깎아내고 회백색유를 시유하여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경 4.2cm, 잔존 높이 5.4cm이다.

④ 백자대접 저부 (도면 53 - ④, 사진 41 - ⑦)

기벽에서 바닥까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기형으로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일반굽으로 회백색유는 전체에 시유하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잔존 높이 6cm, 굽경 7.4cm이다.

⑤ 와 (도면 54, 사진 41 - ⑧)

속심은 회갈색, 표면은 황갈색의 흡습성이 높은 와류의 암키와이다. 등면에는 승석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굵은 포문이 남아있다. 와도는 두 번 이상 그어 파쇄면을 다듬었다. 두께 1.6cm, 잔존 길이 9.5cm이다.

4. 지표수습 유물

독산성내의 평탄지와 성벽 주변에서 주로 수습되며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① 토기 완저부 (도면 56 - ①, 사진 42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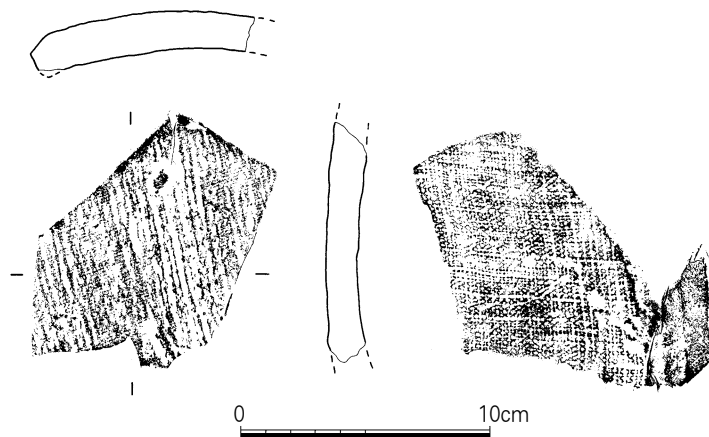
완으로 보이는 회갈색 토기의 저부 일부이다. 저부쪽에 굽을 붙이려는 듯 동심원의 홈을 파놓았으며 동체부에 안팎으로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잔존 높이 4.8cm, 복원 저경 4.6cm이다.

② 대부완 저부 (도면 56 - ②, 사진 42 - ②)

정선된 회백색 니질 태토에 고운 사립이 약간 섞인 연질로서 완의 기형에 대상의 굽이 부착되었다. 굽은 밖으로 살짝 외반된 형태이며 기벽 안바닥에는 굵고 성긴 포문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검은색 슬립을 입힌 흔적이 남아 있다. 굽경 6.5cm, 굽높이 1.8cm, 잔존 높이 3.1cm 이다.

③ 대부합 저부 (도면 56 - ③, 사진 42 - ③)

대부완이나 합으로 추정되는 연갈색조의 연질토기 저부이다. 평평한 완의 바닥에 대상의 굽을 붙이고 나팔형으로 끝단을 밖으로 말아 접은 형태이다. 굽높이 1.7cm, 굽경 8cm이다.



도면 54. 트렌치 13 출토기와

④ 토기 저부 (도면 56 - ④, 사진 42 - ④)

평저의 동이류로 보이는 저부에 3cm 길이의 帶狀 다리가 부착된 저부편이다. 굽의 안바닥과 외벽에 부착 시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리에는 외->내 방향으로 구멍을 내었으며 속심은 적갈색, 외벽은 흑회색으로 슬립을 입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 저경 25cm, 굽경 26cm이다.

⑤ 청자접시 (도면 56 - ⑤, 사진 42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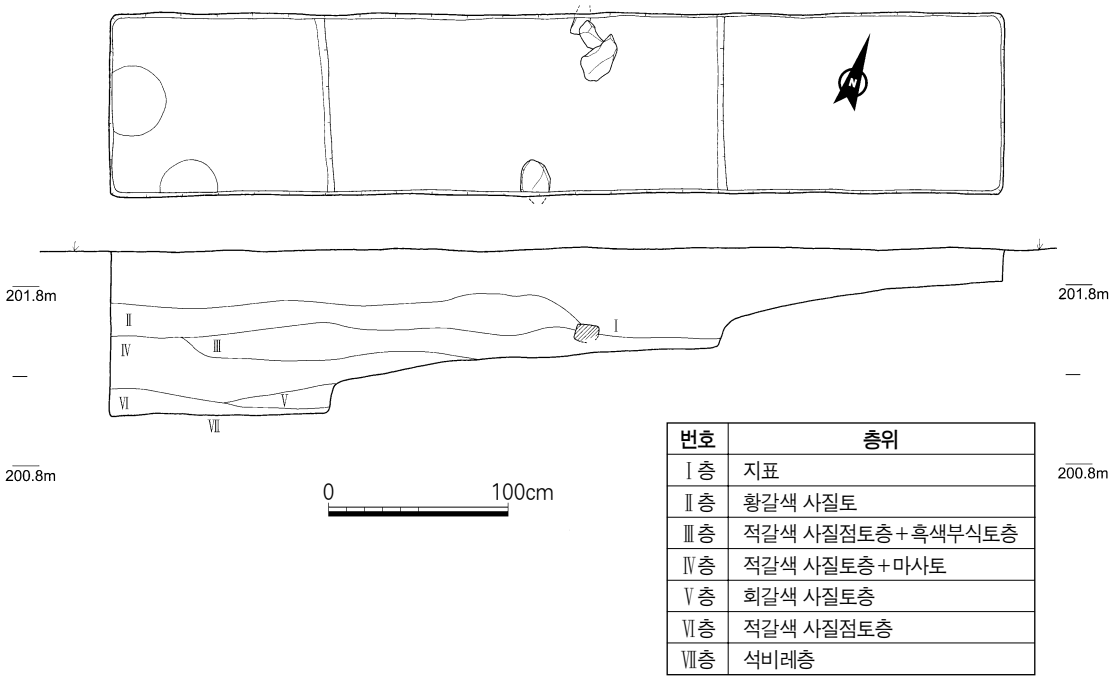
살짝 외반한 구연이 사선의 기벽을 이루며 오목한 저부에 이른다. 굽의 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어 높지 않으며 회백색유를 전체에 시유하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빙렬이 있고 용융상태가 양호하나 구연 일부는 산화되었다. 잔존 높이 4cm, 굽경 4.2cm이다.

⑥ 청자저부편 (도면 56 - ⑥, 사진 42 - ⑥)

사선을 그리는 기벽이 바닥 저부에서 직경 3.3cm의 원각을 이루며 굽과 만난다. 굽은 일반굽으로 0.3cm 가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깎아내었으며 녹색유를 시유하였다. 모래받침의 흔적이 굽의 접지면에 남아 있다. 태토에 잡물이 섞여 매끄럽지 못하다. 잔존 높이 2.8cm, 굽경 4.8cm, 굽높이 0.8cm이다.

⑦ 백자잔 (도면 56 - ⑦, 사진 43 - ①)

직립하는 구연이 한번 밖으로 외반하면서 반원 형태를 이루어 오목한 저부에 이르는 기형이다. 굽은



도면 56. 트렌치 15 평면도 · 토층도

일반굽으로 안바닥을 둥글게 깎아낸 다음 회청색유를 두껍게 바르고 번조하였는데 접지면에 굵은 모래가 많이 붙어 있다. 용융상태는 양호하며 광택이 좋고 전면에 빙렬이 나 있다. 높이 6.5cm, 굽경 6.2cm, 복원 구경 8.4cm 크기이다.

⑧ 흑갈유병 동체부 (도면 56 - ⑧, 사진 43 - ③)

병의 경부로 구연과 동체부가 결실되었다. 태토가 치밀하고 안팎으로 흑갈유가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잔존 높이 3.2cm, 경부 직경 2.4cm의 규격이다.

⑨ 흑갈유병 동체부 (도면 56 - ⑨, 사진 43 - ④)

흑갈유가 시유된 병의 경부로 구연과 동체부는 결실되었다. 경부의 안팎으로 흑갈유가 시유되었는데 안벽에는 부분 부분 덩어리져 있다. 잔존 높이 3.8cm, 경부 직경 3.4cm이다.

⑩ 청화백자 대접 (도면 56 - ⑩, 사진 43 - ②, ⑥)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좁아지다 곡선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고 굽 안바닥을 깊이 파 반안굽의 형태를 갖는다. 태토는 잡물이 많이 섞여 있으며 회백색유를 전체에 시유하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으며 안바닥에 포개구이 흔적이 남아 있다. 외벽 구연에 청화 안료로 횡선을 돌리고 ‘福’자 銘과 ‘壽’자 銘을 교대로 그려 넣었다. 굽경 4.4cm, 높이 5.3cm, 복원 구경 9.2cm이다.

⑪ 청화백자잔 (도면 56 - ⑪, 사진 43 - ③, ⑦)

반안굽형태의 백자잔으로 1/4 가량이 결실되었다.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벽이 오목한 저부와 만나는 기형으로 태토는 잡물이 섞여 있으며 백색유를 전면에 시유하였다. 안바닥에 청화안료로 ‘三’자로 보이는 명문을 그려 넣었다. 높이 5.2cm, 굽경 4.8cm, 복원 구경 9.2cm이다.

⑫ ‘儀方’ 銘 토제품 (도면 56 - ⑫, 사진 43 - ⑦)

두께 2.2cm, 지름 9.5cm의 흑회색 경질 타원형 토판에 ‘儀方’이라고 양각되어 있는데 서체는 조선 정조대에 유행하던 서체이다. 의방이란 일종의 呪語로서 明代에 단오를 맞아 의방이라 써서 기둥에 거꾸로 붙이거나 토제품의 경우 땅에 묻어서 뱀의 피해를 막았다고 전해진다.⁴⁸⁾

⑬ 청동환 (도면 56 - ⑬, 사진 43 - ⑧)

0.2cm 굽기의 청동을 구부려 만든 원형의 고리이다. 표면이 전체적으로 부식되어 있으며 고리의 단면은 각을 죽인 방형에 가까운 원형이고 환의 지름은 1.4cm이다.

⑭ 원판형 토제품

지표에서는 13점이 채집되었다. 소재는 주로 토기편이며 용기편과 기와편도 보인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소 재	가 공	규격(단위 cm)
56 - ⑭	44 - ①	흑회색 용기편	떼내고 약간 마연	0.5×3.7
56 - ⑮	44 - ②	적갈색 용기	촘촘히 떼어냄	0.5×3.6
56 - ⑯	44 - ③	회갈색 용기	촘촘히 떼냄	0.5×3.4
56 - ⑰	44 - ④	흑회색 토기	거칠게 떼냄	0.4×3.2
56 - ⑱	44 - ⑤	흑회색 토기편	거칠게 떼냄	0.5×3.7
56 - ⑲	44 - ⑥	흑회색 토기	거칠게 떼냄	0.4×3.5
56 - ⑳	44 - ⑦	흑회색 토기	떼내고 약간 마연	0.5×4
56 - ㉑	44 - ⑧	흑회색 토기	거칠게 떼내기	0.5×4.1
56 - ㉒	44 - ⑨	흑회색 토기	측면 떼어냄	0.5×5.5
56 - ㉓	44 - ⑩	무문 기와	측면 떼내고 살짝 갈아냄	2×5.2
56 - ㉔	44 - ⑪	회청색 경질와	측면 떼어냄	2.3×4.9
56 - ㉕	44 - ⑫	회갈색 무문와	측면 약간 마연	1.2×5.2
56 - ㉖	44 - ⑬	흑회색 토기편	거칠게 갈아냄	0.7×3.7

⑮ 이형 토제품 (도면 57 - ①, 사진 44 - ⑭)

용도 불명의 이형토제품이다. 반듯한 상면에 직경 1cm가량의 원문이 0.3cm 깊이로 9개 파여있으며 이면에는 결실된 접합흔이 관찰된다. 두께 2~2.8cm, 잔존 길이 18.2cm

⑯ 와 (도면 57 - ②, 사진 44 -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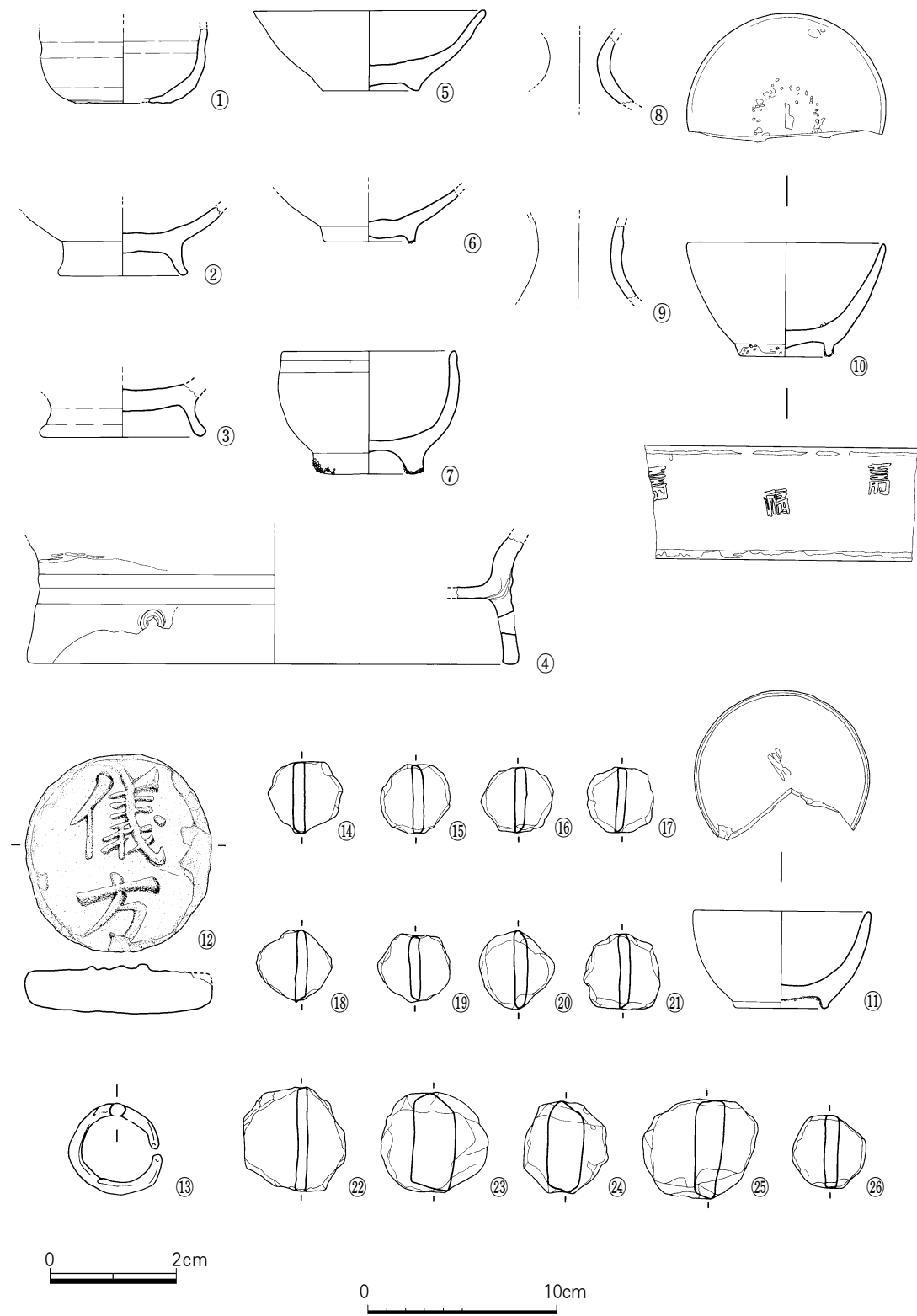
태선문이 타날된 회갈색 수키와편이다. 이면에는 포문이 정연하게 남아 있으며 젓가락식 분할계선이 관찰된다. 와도는 두 번 이상 그어 파쇄면을 다듬었다. 두께 1.0cm, 잔존 길이 13.4cm

⑰ 와 (도면 57 - ③, 사진 44 -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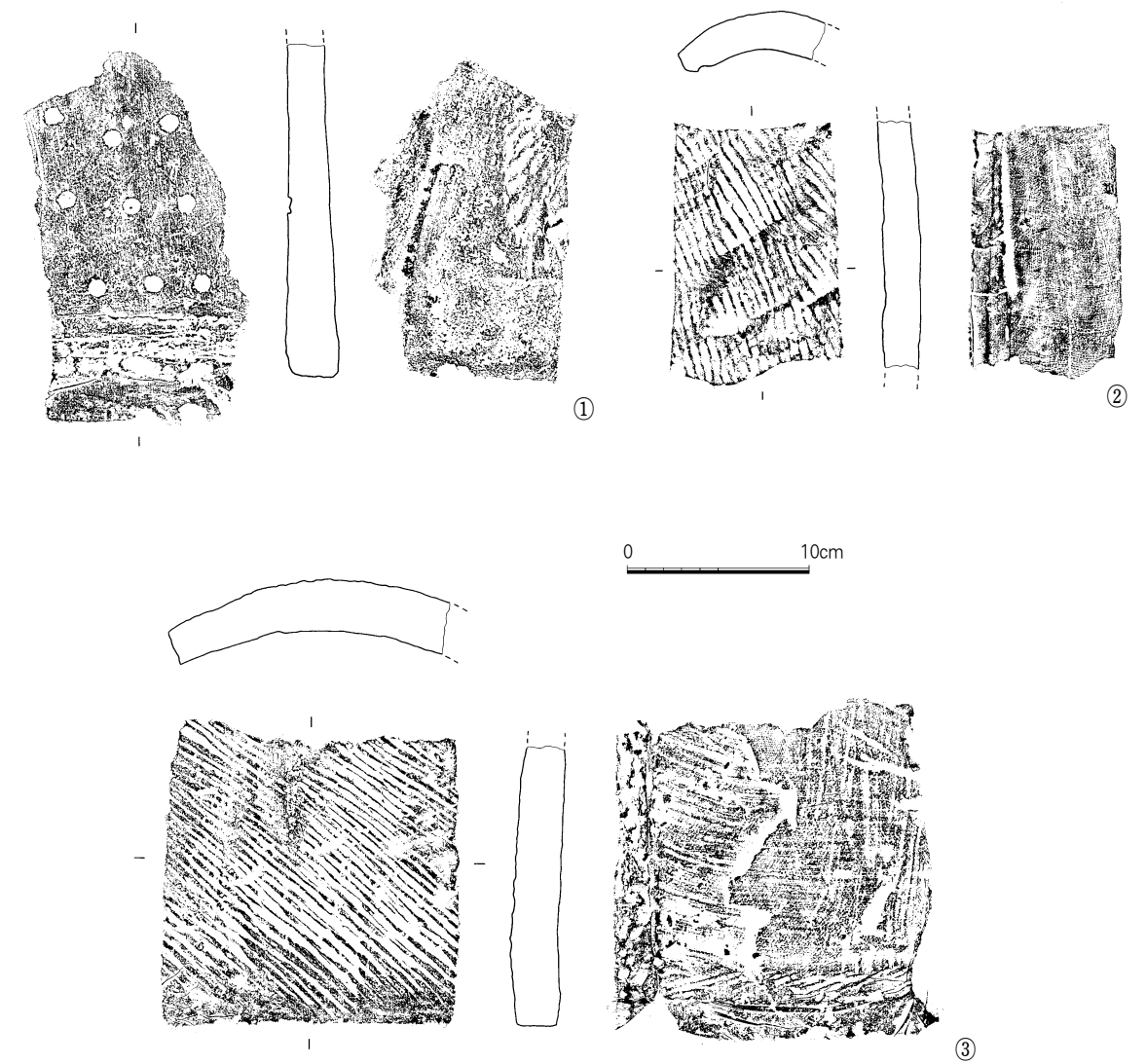
등면 전체에 선문이 타날된 암키와로 굵은 석립이 섞인 회갈색이며 이면에는 포문이 남아있다. 소지의 접한 부분이 뚜렷이 관찰되며 와도는 안에서 그어 분할하고 파쇄면을 다듬지 않았다. 두께 2.3cm, 잔존 길이 15.3cm

48) 田汝成, 『西湖遊覽志』, 『大漢和+典』「卷1」, 才+館書店, 1984에서 재인용.

端午爲天中節, 或一書五月五日天中, 赤口白舌盡消滅之句, 揭之楹間, 或採百肖製藥品, 覓蝦取以蟾書儀方二字, 倒貼之楹, 以避蛇螫



도면 56. 지표수습유물



도면 57. 지표수습기와 및 이형토제품

V. 고찰

1. 인문지리적 위치

이번에 조사된 독산성의 군사적·인문지리적 가치는 「李廷龜禿城山城記」에 집약되어 있다. 이를 우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이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서 험준하게 막힌 곳이 없고, 산이 우뚝하게 길 옆에 솟았는데, 숲이 없어서 바라보기에 밋밋하다고 독성이라고 부른다. … 사람들은 이 성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 나라 안의 요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⁹⁾

현재, 독산성이 자리한 독성은 해발 208m의 산성으로 수원과 오산 간을 에워싼 주변 평야에 우뚝 솟아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즉 평지에 우뚝 솟아 있어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상과 같은 입지는 독산성이 선사시대 이래로 黃口池川流域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역의 軍事·交通·信仰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우선 交通의 측면에서 볼 때, 陸路뿐만 아니라 水路의 요충지에 자리한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水原都護府 山川條에 “大川(횡구지천의 옛이름)은 사근천과 용인현의 구흥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바, 경기도 서남부의 하계망인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과 연결되는 하계망에 속하며, 이 하계망은 바로 서해의 南陽灣와 연결된다.

한편, 陸路에서 독산성은 兩湖인 전라도와 충청도의 要衝地에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경성에서 충청과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가는 역로는 북으로는 과천·수원을 지나 진위·평택을 거쳐 남행하였는데, 독산성은 바로 그 역로의 중간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에도 바로 동쪽으로 2.2km 지점으로 1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이런 독산성의 입지는 한마디로 수원지역의 咽喉部이자 陸路와 水路가 집결되는 병목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도4 『大東輿地圖』의 수원지방도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독산성은 요충지에 자리한 까닭에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이는 西厓 柳成龍의 관방론이 잘 대변해 주는데, 그는 독산성이 이른 바 京右, 즉 수도 서울의 서남쪽을 지키는 요해처로 최적임을 강조하였다.⁴⁰⁾ 실전에서 독산성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갈파한 인물은 權慄로 그는 선조 26년(1593) 7월에 勤王兵 2만인을 모집하여 북상하다가 이 성에 웅거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이 때 권율이 독산성을 要害處로 웅거한 사실에 대하여 莊憲世子가 ‘이 성이 들 가운데서 우뚝 솟아 이와 같으니, 실

은 솟은 곳이 특별한 뜻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적이 만약에 멸시하고 가볍게 범하면 반드시 낭패할 것이니 권장군의 승리가 까닭이 있다’라고 하였는데,⁴¹⁾ 이 역시 요해처로서, 그리고 수도 서울을 지키는 관문으로서의 독산성의 입지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산성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또 다른 인물로는 宋奎斌(1696~1778)을 들 수 있다. 그는 『風泉遺響』에서 독산성의 방어전략에 관하여 상론하였는데,⁴²⁾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수원에 있는 독성산성의 지형을 살펴보니, 마늘모양의 봉우리 하나가 큰 들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데, 삼면은 절벽이고 길이 트인 남문 쪽이 다소 평탄한 듯하다. 그러나 이 곳 또한 말을 달리면서 육박전을 벌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왜구들이 서울에 가득히 주둔하고 있을 때에, 도원수 權慄은 호남의 勤王兵을 이끌고 이 성에 와서 주둔하였는데, 수만 명의 왜적들이 종일토록 이곳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조총 한 방도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물러갔다. 성을 올려다보면서 공격하기가 어려움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 이 성은 경기 지방의 큰 진영이 되었는데, 이 곳의 지형과 도로가 삼남지방을 연결하고 도성의 藩屏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이 성을 서울의 군영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갑자년(인조, 1624) 李适의 난리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이 성에서는 군이 아침에 출동,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여 즉시 적을 막아내는 공을 세움으로서 聖祖의 큰 포상을 받았다. 지형의 중요함이 이와 같으니, 이는 진실로 보잘 것 없는 藩鎮에 비할 바가 아닌데, 이 중에서도 애석한 것은 호서와 호남에서 상경하는 길은 평평하기가 마치 솟들과 같고, 금강 이북에는 적침로를 차단할 만한 한 쪽의 城堡도 없다는 점이다. 오직 이 성만이 漢水 이남의 관문이 되고 있으며, 또 호서와 호남 두 길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도 독산성이 호남과 호서를 연결하는 길목인 사실과, 수도 서울 방어뿐만 아니라 왕실 護衛를 위한 울타리인 점과, 수성방어에 최적의 지형적 요건을 갖춘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독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은 京右의 방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임진왜란을 직면하여 강조되고 있다. 즉 倭敵을 主敵으로 삼고, 서울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실이 간취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主敵을 北敵으로 삼았던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⁴³⁾ 한성백제시기에는 군사적 중요성이 조선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을 짐치게 한다.

이상과 같은 군사적·교통적 중요성과 독산성이 자리한 禿山은 신앙적으로도 중요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산성내에서 확인된 性穴이 수십개 만들어진 암석을 통하여 짐칠 수 있다. 특히 독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외삼미동, 수청리에 성혈이 있는 지석묘들이 보고되고 있는 사실은⁴⁴⁾ 독성이

41) 『水原郡邑誌』山城.

42) 『風泉遺響』「水原禿城山城形便」.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역 風泉遺響』, 군사문헌집11, 1990.)

43) 이는 『水原郡邑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듯 기특하게 보지 아니하지만’은 언급에서도 엿볼 수 있다.

39) 『萬機要覽』軍政篇, 關防, 京畿.

40) 『西厓集』雜著 記丁酉事.

당시 주변지역의 중심되는 지역이었고, 평원에 돌출한 산의 모양은 산악승배와 연결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추측은 시굴조사 결과 무문토기가 소수지만 수습되었고, 또 최근 산성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는 예가 증가하는 사실과 연계할 때, 앞으로 연구검토가 요구된다.

2. 『三國史記』에 보이는 禿山城(혹은 獨山城)의 比定問題

禿山城의 고고학적 조사와 복원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禿山城이 『三國史記』속에 보이는 禿山城에 비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사료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A：十一年 夏四月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秋七月 設禿山-拘川兩柵以塞樂浪之路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조)

사료 B：十八年(373)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제3, 내물왕)

사료 C：十八年(408) 夏四月 立王子巨連爲太子 秋七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八月 王南巡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제6, 광개토왕)

사료 D：二十六年(548)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城下

與麗兵一戰 大破之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성왕)

사료 E：三國有名未詳地分…瓶山柵 普述水 烽峴 禿山柵 狗川柵 走壤城…

(『삼국사기』 권37 잡지 제6 지리)

우선, 사료 E에서의 走壤城은 현재의 춘천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⁴⁵⁾ 그런데, 사료 A의 기록에서 靺鞨의 공격이 瓶山柵에 있자, 狗川柵과 禿山柵을 설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瓶山柵-狗川柵-禿山柵 세지역이 인접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사료 E에서 세 지역이 병기되어 있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위의 사료들에 기초할 때, 禿山柵은 지금의 춘천이 자리한 북한강 중상류지역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독산책이 말갈을 막는 군사적 요해처인 사실로도 방증된다. 또한 사료 C에 보이는 고구려가 광개토왕 18년에 축조한 독산성의 위치와도 부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광개토왕이 나라의 동쪽에 6城을 축조하고 평양의 민호를 옮긴 후 남쪽을 순수하였다고 한다면, 6성의 위치는 평양의 동남쪽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은 「광개토왕비문」에 언급된 영락 6년(396)에 한강이북으로 比定되는 백제의 58성 700촌을 攻取한 사실과 연결하여 추측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광개토왕은 영락 6년에 한강이북의 현 경기도 지역을 점령한 상황에서, 동쪽에 독산성을 비롯한 6城을 축조하였다고 한다면, 영토확장지역은 지금의 북한강유역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禿山城을 북한강 유역으로 비정할 때에, 사료 B의 백제 禿山城主의 신라투항 기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위 기사는 백제의 독산성주가 300 여 인을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는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라와 백제의 외교마찰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백제본기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단 독산성은 백제의 변방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백제와 가야의 國境線을 피하여 경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측에 근거할 때, 남한강-소백산맥을 통하는 경로보다는 태백산맥-동해안을 통한 경로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앞에서 비정한 독산성을 북한강 유역에 비정한 결론에 따를 경우, 백제 동북변경의 독산성주가 북한강지류-대관령-강릉-동해안으로 이르는 경로를 따라 경주로 투항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현재 오산에 소재하는 禿山城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禿山城으로 비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이 禿山城이 백제시대의 산성이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앞 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독산성은 군사전략상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발굴조사에서도 백제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선사시대 이래로 오산·수원일대의 軍事據點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⁴⁶⁾

3. 문헌으로 본 조선시대 독산성

1) 규모와 시설

조선시대 水原府邑誌 등의 문헌기록에 언급되어 있는 독산성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표를 통하여 禿山城은 宣祖 이래의 수 차례로 수축을 거듭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처음의 修築은 임진왜란 전쟁 당시에 경기 관찰사 柳根(1549-1627)에 의해 4일만의 공역으로 이루어졌으

46) 이병도는 수원을 일대를 마한의 牟水國으로 비정하고, 광개토왕의 백제정복 城名 중의 牟水城으로 보았다. (李丙燾, 「三韓의 諸小國問題」 『韓國古代史研究』(修訂版), 博英社, 1985, 263쪽.) 그러나, 영락 6년에 광개토왕이 점령한 백제의 58성 700촌은 한강이북의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李仁哲,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현재의 오산성을 삼한시대의 牟水城으로 보는 견해 역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44) 주2) 오산시, 앞의 책, 1998, p119~125.

4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춘천도호부.

며,⁴⁷⁾ 대대적인 개축은 1792년에 이루어진다. 이 때의 수축은 『風泉遺響』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백여년 간의 평화로 인해, 성을 보수 관리하지 않아 1770년 대에 심하게 훼손된⁴⁸⁾ 데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독산성의 기본적인 규모와 구조는 그 시점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5년 暗門을 새롭게 설치할 때에 일부 수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의 규모에 관해서는 1594년 수축 시에 829보였으며, 1792년 개축 시에 175보를 확장하여 1004여 보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⁹⁾ 따라서 주척 6척이 1보인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수축 시의 규모는 둘레 1000m, 면적 16,400평 정도였고, 개축 시의 규모는 둘레 1230m, 면적 20,000평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⁵⁰⁾

《표1》 문헌기록에 보이는 독산성의 규모

문헌	편찬시기	규모	문루	성첩	城高	수문	장대	城内民戶
『海東地圖』 水原府	1750년대	829步	南西兩文有樓閣/東北兩門無樓閣					城内居51戶
『風泉遺響』	1799년 (宋奎斌)					우물 6-7개소		
『輿地圖書』 「水原府邑誌」	1785년경	5리		303첩	3장			
『正祖實錄』卷36 16年 10月 3日 (戊辰)	1792년	1004보 -신축732보 -수축272보		309첩 (개축)		3개소	新築南將臺移基三尺改建	
『萬機要覽』	1808년	1800보 (1593 석축)						
『華城誌』	1831년	1010보	南西門有樓/ 東北門無樓/ 1805년 暗門 건립	309첩			城上有將臺三間(1787건립)	城内126戶
『大東地志』	1866년	1592년 修築古城						
		1602년 수축 (府使邊應星)						
		1800보 (1796 개축)	門 4					
「鎮南樓重修記」	1635년							城内200戶를 넘음

47) 『宣祖實錄』卷55, 27年 9月 19日(甲午)

48) 『風泉遺響』「水原禿城山城形便」
“주먹만한 돌과 흙덩이로 낮게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의 높이가 겨우 몇 자에 불과하여 女牆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銃眼이 너무 지나치게 크며, 砲穴이 어지럽게 뚫어 있어 아이들 장난과 같다.”

49) 『萬機要覽』과 『大東地志』에 보이는 1800여보는 현재의 성벽의 측량치인 1100m와 현격한 차이를 있어 일단 誤記로 보고자 한다.

50) 현재의 측정치인 1095m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의 복원성벽이 안쪽으로 물려 쌓여져 원성벽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벽시설은 문지 4곳과 암문 1곳이 있으며, 성벽의 높이는 3장이고 성벽 위에는 309개의 城堞이 설치되었다. 이 때 설치된 여장의 크기는 성벽의 둘레를 성첩수로 나누면 대략 3m 정도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水口는 세 곳이 있었으며, 그와 관계하는 우물은 6-7기 있었으나, 수량이 매우 부족하였다.⁵¹⁾

성내에는 1792년 이전까지는 대략 50여 戶가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20여 호가 성내에 거주하였다. 성내 주요 건물지로는 運籌堂과 三門, 鎮南樓, 吏廳, 將校廳, 官廳, 四倉, 五倉, 軍器庫, 武庫, 東庫, 西庫, 保別庫, 寶積寺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⁵²⁾ 건물의 규모는 창고가0 60칸, 무기고가 26.5칸으로 대형건물이었고, 나머지는 6-9칸의 소규모였다.

2) 건물의 배치

독산성의 건물의 크기와 배치에 관해서는 『華城誌』와 『水原郡邑誌』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표1 참조) 이를 토대로 당시의 건물 배치를 간단히 추정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추정배치도에 근거할 때 남북축을 중심으로 운주당과 진남루와 같은 중심건물이 놓이고, 양 건물 사이의 동서축을 중심으로 하여 아전청, 장교청, 관청, 사창이 횡으로 늘어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독산성 건물의 추정배치도

							運籌堂						
							行廊	三門	行廊				
	西倉				官廳		장교청		아전청				
								三門					
	軍器庫												
							鎮南樓						

51) 『風泉遺響』「水原禿城山城形便」.

“성 안에는 6~7곳의 작은 우물이 있기는 하나, 조금만 가물면 곧 물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민가들도 평상시 성문 밖에 나가 물을 길어다가 조식을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다.”

52) 『華城誌』 券2, 山城.

3) 附城과 烽燧

문헌기록에는 독산성 附城의 존재와 봉수의 설치에 관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F : “…禿城에는 附臨하는 山이 있어 防禦使 邊良傑이 성 위에 築土 하고 平墳해서 집을 짓고窓을 내어서 石車와 砲軍이 그 틈새로 적을 쏠 수 있으니…”⁵³⁾

사료 G : “(1690년)…본부에서 남으로 5리 안에 독성산성이 있고 그 봉우리가 가장 높은 데, 이곳에 烟臺를 둔다면 남쪽으로 괴태곳이에 응하고, 서쪽으로 천주산에 비 처서 삼남에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일각에 곧 도달할 것이니…수원은 서울에 가까운 곳인데, 봉수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허술하니, 독성산성에 연대 를 더 설치하라”⁵⁴⁾

사료 H : “(1728년)…본부에서 남으로 10리 쯤 떨어진 곳에 독성산성이 있는데, 이곳에 그 중간 봉수를 설치하여 죽산의 좌찬봉수와 서로 응하게 한다면,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수원에서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廟堂으로 하여금 품쳐하게 하라.”⁵⁵⁾

이상의 기록은 현재의 독산성을 주변에 본성과 연결되는 부성이 존재할 가능성과 함께 봉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특히 독산성과 연결되어 있는 양산봉은 봉수대가 존재하였을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사료 F에 언급된 附城은 현재의 독산성과 연결하여 토축으로 평탄지를 조성하여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지표조사와 예상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 존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역사고고학적 검토

독산성에 대한 조사는 1982년 보수와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⁵⁶⁾ 1999년에는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산성 내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⁵⁷⁾ 따라서 이번 시굴조사를 제외하고는 정비와 복원을 위한 학술적인 종합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독산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자료를 정리해 보면, 독산성의 기본적인 성격 파악은 가능하다. 이에 주제별로 나누어서 간단한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53) 『宣祖實錄』 권85, 30년 2월.

54) 『增補文獻備考』, 卷123, 兵考 第15, 烽燧.

55) 위의 글.

56) 京畿道, 『禿山城 洗馬臺址 調査 및 修理報告』, 1982.

57) 주1) 한신대학교 박물관, 앞의 자료, 1999.

1) 初築時期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를 통하여 독산성의 초축시기를 결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 독산성이 현재의 경기남서지역을 방어하는 데에 가장 요해처인 사실은 일찍이 삼국시대 초기부터 관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개연성을 매우 높게 한다. 특히, 성의 서쪽을 끼고 흐르는 황구지천은 바로 對중국교역의 거점인 남양만과 이어지고 있어, 독산성의 정치경제적인 중요성까지도 아울러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인문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고, 5세기대까지 한강유역이 백제의 영역이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할 때, 독산성의 초축시기는 일단 한성백제시기로 볼 수 있겠다. 현재 원상이 보존되어 있는 성벽 기저부가 잘 다듬은 장방형의 석재를 品字形으로 하여 축조된 사실은 위의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성내부에서 백제의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사실 역시 독산성이 삼국시대 전기에 백제에 의해서 축조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한편, 삼국시대 이전의 청동기시대에도 禿山은 중시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남사면에서 性穴이 있는 암석이 확인되고, 성 배부에서 무문토기편이 소수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추측된다. 최근 산성의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고, 그들이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입지하는 사실들과 연결할 때, 청동기시대에도 초보적인 군사시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平面配置

독산성은 입면으로 볼 때, 3단으로 공간이 분할된다. 제1단은 성벽이 돌아 간 體城部이며, 제2단은 산사면에 관청과 민가건물이 입지하였던 거주공간이며, 제3단은 洗馬臺地가 자리한 정상부이다.⁵⁸⁾

우선, 정상부에는 현재 세마대가 복원되어 있으며, 세마대지를 중심으로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장축 114m, 단축 73m 정도이며, 가장자리 일부에서는 석축이 확인된다. 현재 세마대지는 평탄면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평탄면보다는 한 단이 높다. 복원된 세마대가 원위치를 약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확한 위치 고증이 요구된다.

중간단에 해당되는 제2단의 거주공간에는 현재 천수답과 같이 층을 이루면서 산사면을 따라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는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관청건물은 진남루와 남서2치 구간의 평탄면과 구릉에 자리하였으며, 민가는 암문과 남서1치 사이의 평탄면과 구릉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⁵⁹⁾ 그런데 이번 시굴조사에서 진남루와 남서2치 구간에 대하여 트랜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청건물로 볼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청건물지와

58) 이 세마대지에 대하여, 주변을 둘러 석축이 확인되기 때문에, 본성과 구별되는 내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주43) 경기도, 앞의 글, 1982, p20.

59) 주1) 한신대학교 박물관, 앞의 자료, 1999.

민가거주지역의 정확한 비정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성벽의 규모와 구조

독산성의 규모는 복원성벽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1,095m이다. 그러나 현재의 복원성벽이 안쪽으로 물러나 쌓여져 원 성벽의 길이는 이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輿地圖書』를 비롯한 인문지리지의 기록이 1004여 보인 점으로 미루어, 1792년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둘레는 대략 1300m 전후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하는 수축 이전의 규모는 『海東地圖』에 829보라고 기록되어, 대략 1060m 전후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벽의 높이는 『輿地圖書』에 3丈으로 기록되어 대략 6-7m 전후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대략 3-5척 높이의 여장이 303개 설치되었는데, 보수 시에 전돌이 다수 수습되어 여장의 상부를 포방전으로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女牆에는 『風泉遺響』에 기록된 바와 같이 銃眼과 砲穴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시설로는 동서남북의 성문 4곳과 암문 1곳을 두었는데, 이 중에서 남문과 서문에는 門樓가 있었으나 동문과 북문에서는 문루가 없었다. 그리고 암문은 1792년 수축 당시에는 없었으나 1805년에 추가로 축조되었다.

배수를 위한 수문은 3곳이 있었다고 전하며, 그와 관련하여 우물은 6~7기 있었으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보수·정비 시의 간단한 조사에서는 남서1치와 암문 중간부분에서 水口 1기와 우물 1기, 그리고 북문 내외에서 우물 2기 등이 확인되었을 뿐이다.(김성태)

5. 遺物의 考察

이번 禿山城 試掘調査에서 수습된 유물은 비록 수량은 많지 않으나 무문토기부터 백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있으며, 그 중 조선시대의 도기류, 백자류, 기와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도기류에는 도질도기와 오지도기를 포함하여 보았는데 기형은 대형항아리, 동이, 시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조선시대의 유물 이외에도 소량의 백제토기편과 대부완, 주름무늬병 등 新羅後期樣式 토기편 수점이 확인되었으며, 철정 등의 철기류가 소량 수습되었다, 그리고 ‘儀方’ 명 토제품과 주황색 마노구슬 1점 등 특이한 유물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토기류 중에서 이른 시기의 유물들은 유구에서 遊離되거나 攪亂層에서 수습되었고 트렌치 내의 문화층에서 수습된 토기편은 대부분 도질로서 자기류와 같은 층위에서 수습되었다. 산성이라는 유적의 성격 때문인지 저장용이었을 대형옹기편이 흔하게 보이고 있고,⁶⁰⁾ 취사용이었을 동이나 시루류의 편들도

60) 『風泉遺響』, 「水原禿城山城形便」.
문헌 기록에 의한다면, 물이 부족했던 독산성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대형 옹기류가 많이 필요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 도기 구연부 각종

A			
B			
C			
D			
E			
F			

다수 보인다. 독산성 도기류의 구연부 속성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 다음의《표 3》이다. 이들은 인근의 수원 古邑城 출토 도기류 구연부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⁶¹⁾ A, B, C형은 추정 구경 30cm~38cm로 대형옹기류의 구연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으며 D, E형식은 22cm~30cm 크기의 구경을 갖는다. 주로 동이나 시루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F형식의 경우 추정 구경이 17cm~32cm로 호나 옹 등 가장 다양한 변형을 가지면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거의 대부분이 층위가 교란되어 있어 고려나 조선으로의 시기적인 구분, 혹은 출토 비율이나 속성 등은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있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⁶²⁾

특기할 유물로 시루 바닥의 원형 구멍과 비슷한 크기의 圓板形土製品이 다량 수습되어 주목된다. 원판형 토제품은 토기편, 도기편, 와류 등을 등그렇게 떼어 내고 주변을 거칠게 혹은 촘촘히 떼어내 다듬거나, 떼어 낸 부분을 그대로 두거나, 부분적으로 갈아내어 모서리를 부드럽게 가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재료상으로 보면 토기편에 의한 가공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드물게는 자기류의 굽부분을 가공한 예도 관찰되었다. 대부분 원형을 지향하며 가공되었으나, 그 중에는 方形에 가까운 모양도 관찰되어 제작시에 먼저 방형으로 다듬은 다음 네 모서리를 죽여나가는 방법으로 제작하기도 했던 것 같다.

이번 시굴에서만 70 여 점 이상의 원판형 토제품을 수습하였는데 지표와 트렌치 내부를 가리지 않고 1 점에서 20 점에 이르는 다양한 수로 무리지어 발견되었다. 남한산성 행궁지, 봉업사지 등 유적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대개의 유적에서 수습되고 있는 이 토제품은 수습 사실만이 보고되어 있을 뿐 용도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어 자료의 정리 및 용도에 대해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주 관아지의 경우 건물지나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판형토제품이 수습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독산성의 경우도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다면 그 출토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⁶³⁾

독산성 출토 원판형토제품의 지름은 3.5cm에서 5cm에 걸쳐고 있어 같이 출토되는 시루류의 바닥구멍 크기인 2~5cm 크기에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원판형토제품과 시루바닥 구멍의 크기가 유사한 점은 그것이 조리시에 시루구멍 막기에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假說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으리라 보인다. 그 밖에도, 방추차의 손쉬운 대응으로서, 혹은 병류의 뚜껑으로서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도기 이외에 무문토기 동체편, 백제토기로 보이는 승문이나 격자문의 토기 동체편 등이 수점 확인되었으나 기형을 확인할 수는 없는 작은 조각들이다. 그러나 최근 대모산이나 파사성, 반월산성 등의 고지대에서 주거지가 확인되는 예가 많으므로 이어질 발굴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 후기양식인 대부완 저부, 인화문 토기편, 주름무늬병편 등도 여러 점 확인되었다.

Tr.3의 조선시대 시루 저부와 동일한 층위에서 수습된 短頸廣口壺(도면24-㉔, 사진19-㉔)는 平底이

고 구연부 바로 아래의 어깨부분이 가장 직경을 이루고 있으며, 흑회색으로 잘 磨研된 外器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성들은 조선시대 도기류의 그것과는 이질적인 반면, 풍납토성이나 한강 유역의 初期百濟住居址에서 출토되는 短頸廣口壺類와 유사하게 보인다.⁶⁴⁾ 그러나 백제토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구연 부분이 直立하지 않고 깊숙이 內彎하고 있어 형태상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

자기류는 조선 중·후기에 만들어진 백자접시 및 대접류가 다수를 차지하며 약간의 청자와 흑유자기류도 수습되었다. 보고서에 수록한 자기류는 총 81점에 이르는데, 이 중 청자류는 11점으로 13.6%, 백자류가 62점으로 76.5%, 흑유자기류가 8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다.

청자류 중 해무리굽 종류는 보이지 않고 No.36 구간에서 수습된 소형 화문접시가 눈에 띈다. 元香寺址 출토의 소형 청자 접시류와 유사한 기형으로서 구경이 10cm 미만이고, 안바닥과 화문이 얇게 양각되어 있으며 器壁이 섬세하게 표현된 꽃잎형태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청자접시를 12세기 중반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⁶⁵⁾ 이와 유사한 형태의 奉業寺 출토 청자 접시가 12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어 있고, 수원 고읍성 출토 청자류에서는 그보다 1세기 퇴화한 형태의 접시가 보이고 있다.⁶⁶⁾

독산성에 관련한 기록으로 고려시대의 것은 전무한 실정이고 이번 시굴에서도 고려시대와 관련한 유구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입지적 중요성으로 보나 조선시대의 對倭寇 방어에 있어 독산성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보아 독산성이 수원인근의 유적과 함께 고려시대 수원도호부의 입보처였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화문 청자접시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시굴조사에서 확실하게 고려시대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아 차후의 발굴조사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

백자류 중에서는 기형, 잔존한 정도 등의 특징을 고려해서 선별된 총 62점이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순백자가 68.1%, 청화백자류가 29.8%, 철화백자류가 2.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기형에 있어서는 대접류가 53.2%, 잔류가 35.5%, 접시류가 17.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속성은 속이 깊은 대접류가 주종인 점, 굽은 모래받침의 포개구이 흔적, 죽절굽의 형태를 주로 갖는다는 점 등에서 17후반~18세기 지방요에서 생산된 자기류의 특징을 볼 수 있다.

14점이 수록된 청화백자를 보면 기형은 대접과 잔이 주류를 이루는데, 청화안료로 안바닥이나 외기벽에 ‘福’, ‘無’ 혹은 ‘壽’ 자가 표현되고 안바닥이나 구연의 외벽 상단부에 원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의 도자류의 명문 기법 중 墨書銘이나 彫琢法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명문 청화백자류는 18세기 전반기 이후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던 지방청화백자류로서 독산성의 民戶居住와 관련되는 유물로 판단된다.⁶⁷⁾ 이러한 형태는 수원 고읍성의 발굴에서도 다수 수습되어 독산성과 수원

61) 한신대학교박물관, 2000, 『水原 古邑城』, p155~157.

62)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도기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고려시대의 도기에 관하여는, 韓惠先,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6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楊洲 官衙址』, p90~92.

64) 최종택, 『漢江流域採集 百濟土器類』,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p26~27, p82~83.

65) 소상영, 『여주 元香寺址 발굴조사 약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1999.

66) 경기도박물관, 2002, 『奉業寺』, 338~374쪽.

한신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48쪽.

고읍성과의 연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⁶⁸⁾ 그밖에 철화류는 2점의 예가 보이고 있으나 기형을 짐작하기 어려운 小片에 불과하다.

도자류에 비해 철기류의 숫자는 10점 이내이다. 무기류는 보이지 않고 『華城誌』등의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民戶의 거주기사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철정과 가위, 혹은 刀子片으로 보이는 생활유물 위주의 철기류 들이 소량 보이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海東地圖』에 의하면 성내에 51호의 민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대인 1792년에 대대적인 개축이 있는 이후의 기록에서는 민호가 증가하여 성내에 126호가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어질 발굴에서는 더욱 많고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수습될 것이라 믿어진다.⁶⁹⁾

주목을 끄는 유물 중의 하나로 ‘儀方’ 명 토제품이 있다(도면56-12, 사진43-7). 흑회색의 단단한 타원형토제품에 ‘儀方’ 명이 도두라져 표현되어 있는데 田汝戎에 의하면 이는 뱀을 막는 액막이법이라고 하였다. 즉,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봄에 천중절이라고도 불리는 단오를 맞아 붉은 글씨로 ‘儀方’ 이라 써서 기둥에 거꾸로 붙이거나 토제품인 경우 땅에 묻어 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⁷⁰⁾ 이는 도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전비방비법의 하나로서 또한 같은 맥락에서, 깊은 산에 들어갈 때 ‘儀康’ 이나 ‘儀方’ 을 외우면 악한 귀신, 짐승, 독충 등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의방’ 명 토제품과 함께 눈에 띄는 특이한 유물로 고분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는 瑪瑙製 구슬 한 점이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외견상으로는 호린 적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관찰되는데 마노계열 중에서도 가장 오래 전부터 사랑 받아 온 Sardonyx 계열로 보인다. 표면의 대부분이 긁히고 손상되어 있으며 가운데가 관통되어 있어 끈으로 연결하여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류의 문양은 조선시대 기와의 주문양인 청해파문이 주종이고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속성을 보이는 종류는 작은 편들로서 소량 확인되었을 뿐이며 완형와의 경우 거의 조선기와로 보인다. 등문양은 단순한 선문, 다양하게 응용된 집선문, 청해파문, 차륜문, 승석문, 사격자문, 태선문, 무문 등이 확인되었다. 단독문양 보다는 선문+거치문, 청해파문+화문, 청해파문+집선문, 청해파문+차륜문, 청해파문+반원문 등 중복되는 문양이 많이 보이고 있어 조선후기 기와문양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기와의 등문양은 통일신라기 말부터 등장한 어골문이 고려시대에 주로 나타나다가 조선 전기에는 다양한 집선문 단계를 거쳐 15세기 부터는 청해파문이 나타나는데 본격적으로 청해파문와가 등장하는 때는 16세기 이후로 보인다.⁷¹⁾ 독산성 청해파문와의 경우 청해파문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문양적 변화를 꾀하고 있어 17세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독산성 改築 기사

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들 와류는 陽山洞 瓦窯址에서 수습된 와류와 유사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 개축시 필요한 기와류를 양산동 와요지에서 조달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⁷²⁾

막새와로는 유일하게 TR.32+15에서 수습된 황갈색 연화문 수막새가 보인다(도면7-①, 사진7-⑦). 도두라진 선으로 연꽃의 잎모양만 묘사하고 가운데에 鬼目紋 형태를 가진 자방을 결합시킨, 연화문수막새와 귀목문수막새의 복합형식으로서 성주사 출토의 기와와 비교 결과 고려초·중기 정도로 편년된다. 그러나 출토품이 한 점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제작상에 보이는 지방색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⁷³⁾

銘文瓦로는 유일하게 등면에 ‘水’ 자문이 타날된 線紋瓦片이 수습되었다. 유일한 막새와인 연화문수막새편과 함께 TR.32+15에서 수습되었다. 비교적 고운 황갈색 태토의 암기와편으로서 일반적인 銘文瓦와는 달리, 따로이 區劃을 마련하지는 않고 선문의 등문양과 겹쳐서 바로 명문을 打捺하였다(도면 7-②, 7-②). ‘水’ 자문을 타날한 의도가 방수를 목적으로 한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짐작할 뿐, 이런 예는 드문 것이어서 주목된다.(허미형)

67)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3, 『軍浦 山本洞 靑華白磁 窯址』, 88~91쪽.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175~180쪽

68) 한신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153.

69) 역사고고학적 고찰 부분의 《표 1》 참조

70) 주48) 田汝戎, 앞의 책.

7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彌勒寺-발굴조사보고서 II』, 273~274쪽

충남대학교박물관, 1998, 『聖住寺』, (삼도 32) 참조.

미륵사와 성주사에서 16세기 이후에 본격적인 청해파문와가 나타나고 있다.

7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1,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p76~130.

73) 주71) 충남대박물관, 앞의 책, p171 ~191.

Ⅶ. 맺음말

이번 조사는 독산성의 정비와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였다. 따라서, 독산성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관건이 되는 중요한 고고학적 정보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를 통하여 중장기 발굴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초는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성벽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성벽조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단편적인 조사로 볼 때 지형에 따라 축조법을 달리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구간별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성벽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원상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성벽의 기저부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초축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가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정상부 평탄면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현재 250여 평에 달하는 평탄대지는 가장자리 일부분에 석축이 있는 점과 2곳의 출입구가 확인된다. 이는 석축 혹은 성벽으로 중간단인 산사면 구역과는 공간이 분할되어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주요건물이 위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로, 관청건물지와 민간 거주지역의 확인과 함께 그 배치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헌과 대조하여 추정건물배치도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조선시대 후기의 산성내의 군영시설에 역사고고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수구와 우물 등과 같은 시설물의 확인이 요구된다. 특히 세 곳의 수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배수시설을 정확히 구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향후 복원을 위한 학술적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로, 주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요구된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주성을 보조하는 부성이 존재하였고 봉수가 양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여섯째로, 세마대지의 정확한 고증이다. 현재 복원된 세마대지는 원위치에서 약간 벗어나 자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조사에서도 그에 따른 조사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일곱째로, 현재 복원성벽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의 성벽의 높이와 형태에서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아 ‘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부분이나마 원형대로 복원하여 독산성이 진정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독산성을 복원정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적 고증에 기초한 복원정비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진



사진 1. 독산성 원경 ① 동쪽에서, ② 남동에서



사진 2. 성벽 잔존상태 ① 북벽, ② 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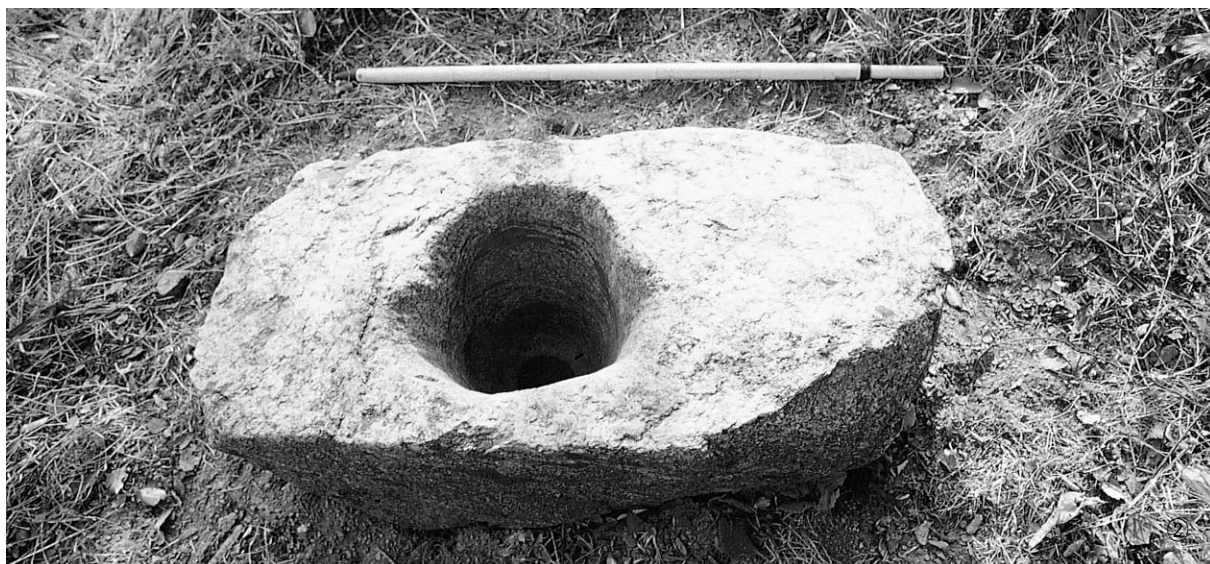


사진 3. ① 성돌의 치석흔적, ②, ③ 성내 각종 건축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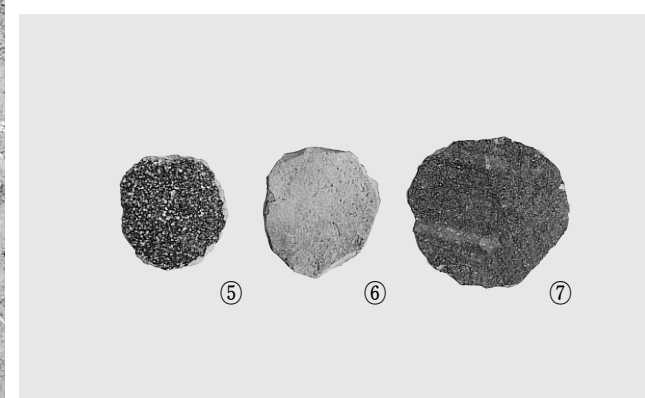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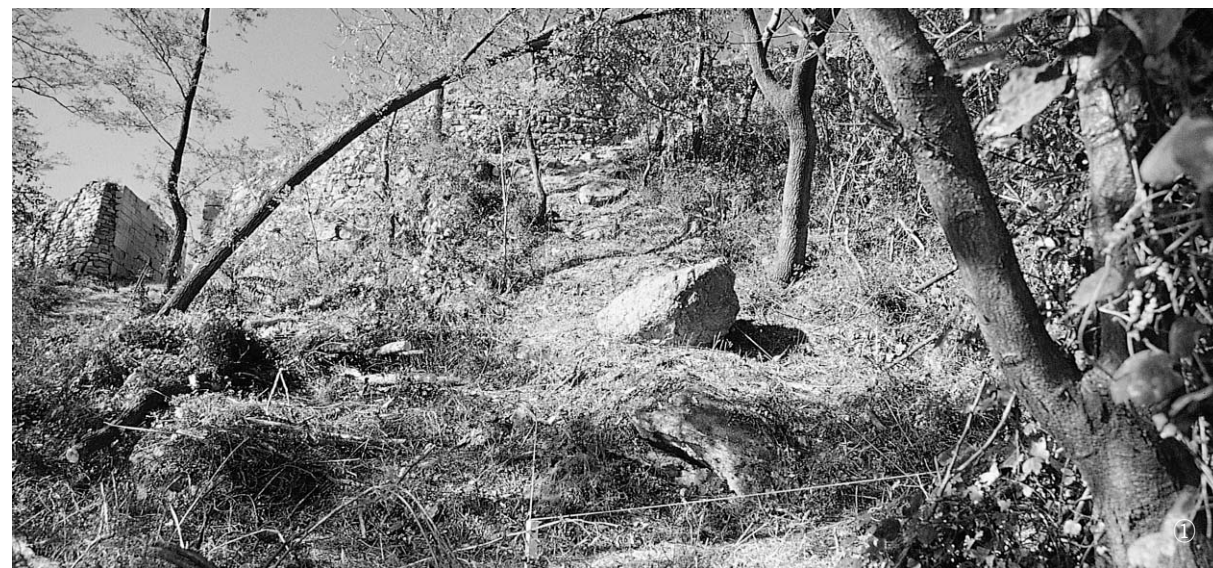


사진 4. 성벽 0+0지점 ① 발굴 전 전경, ② 발굴 후 전경, ③, ④, ⑤, ⑥, ⑦ 출토유물



사진 5. 성벽 32+15 ① 발굴 전 전경, ②, ③ 발굴 후 전경



사진 6. 성벽 32+15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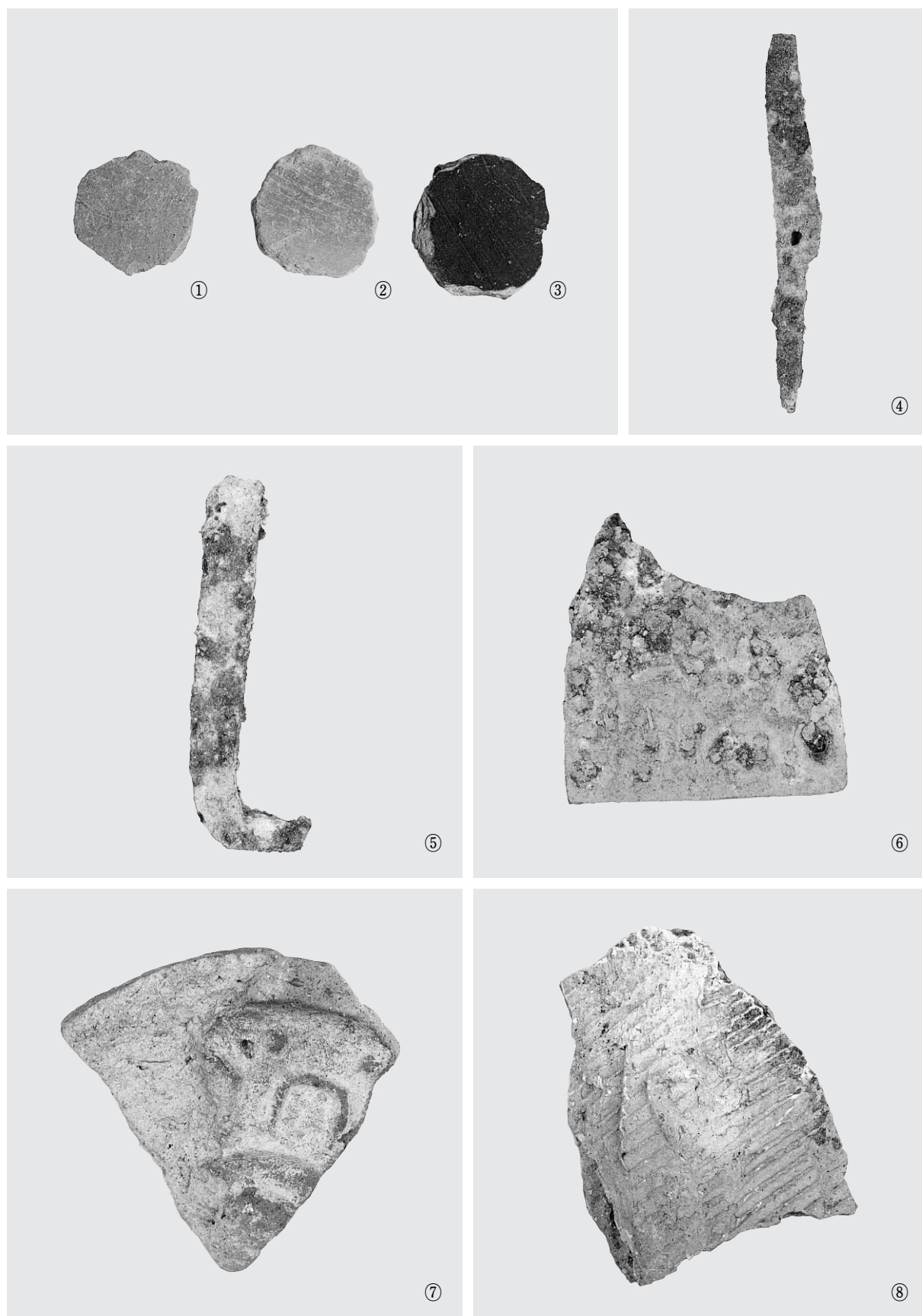


사진 7. 성벽 32+15 출토유물



사진 8. 성벽 9+17 ① 전경 ②, ③, ④ 출토유물, ⑤ 트렌치내 초석세부, ⑥ 내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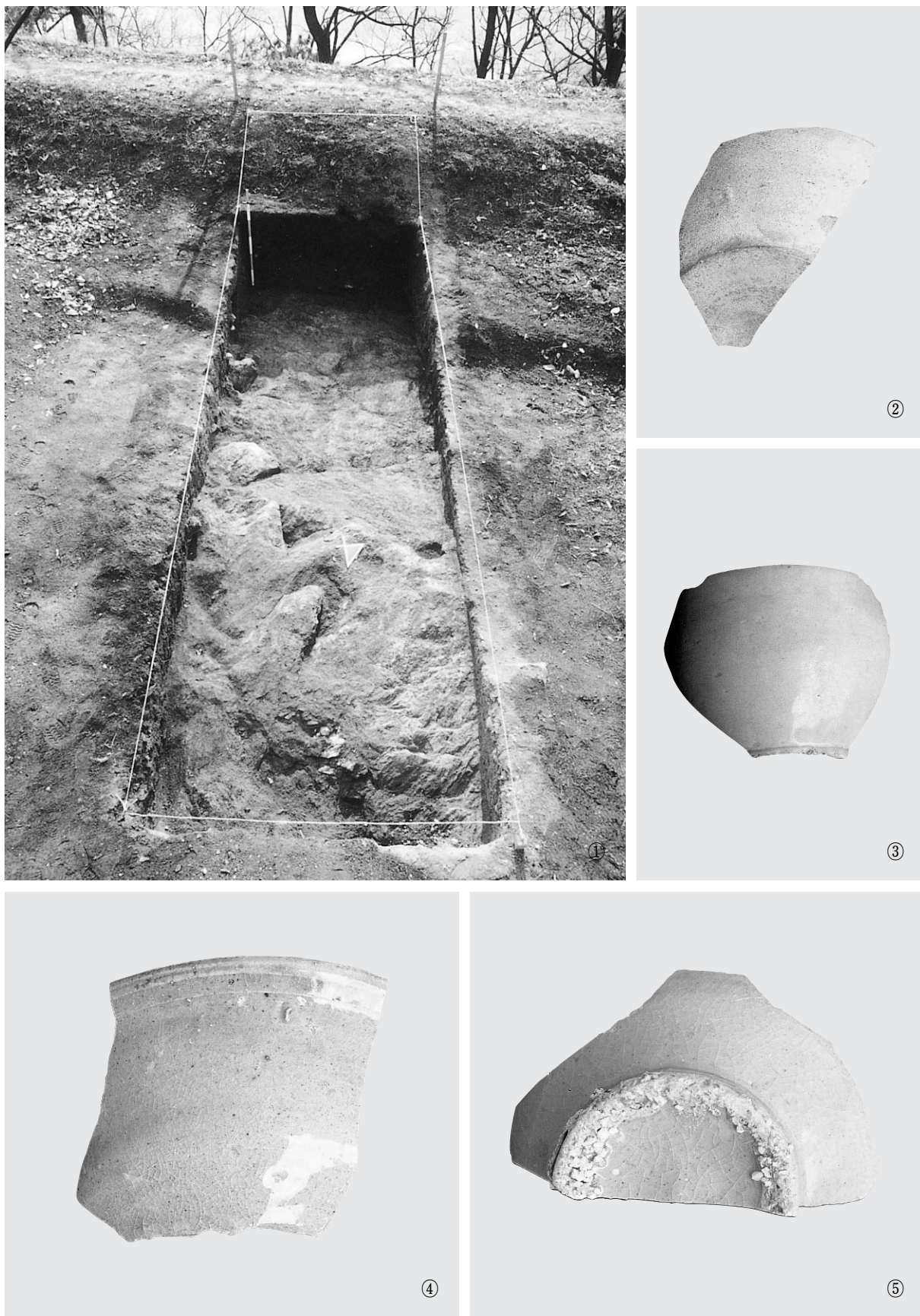


사진 9. 성벽 20+5 ① 전경 ②, ③, ④, ⑤ 출토유물



사진 10. 성벽 25+0 ① 발굴 전 전경, ② 내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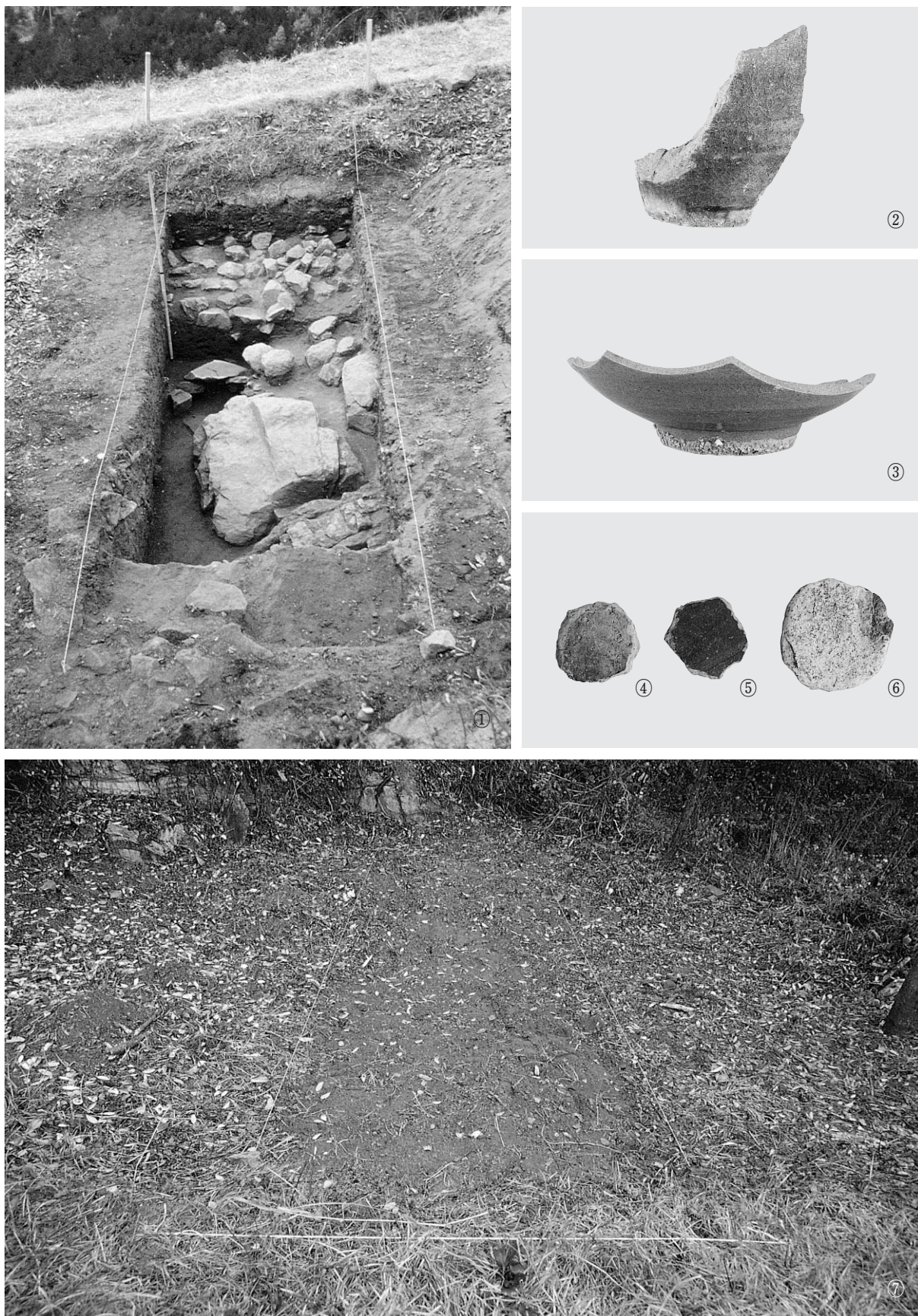


사진 11. 성벽 25+0 ① 전경, ②~⑥ 출토유물, ⑦ 성벽 36+3 발굴 전 전경



사진 12. 성벽 36+3 구간. ① 발굴 후 전경, ② 내벽 세부



사진 13. 성벽 36+3 지점 ①, ② 토층, ③, ④, ④-1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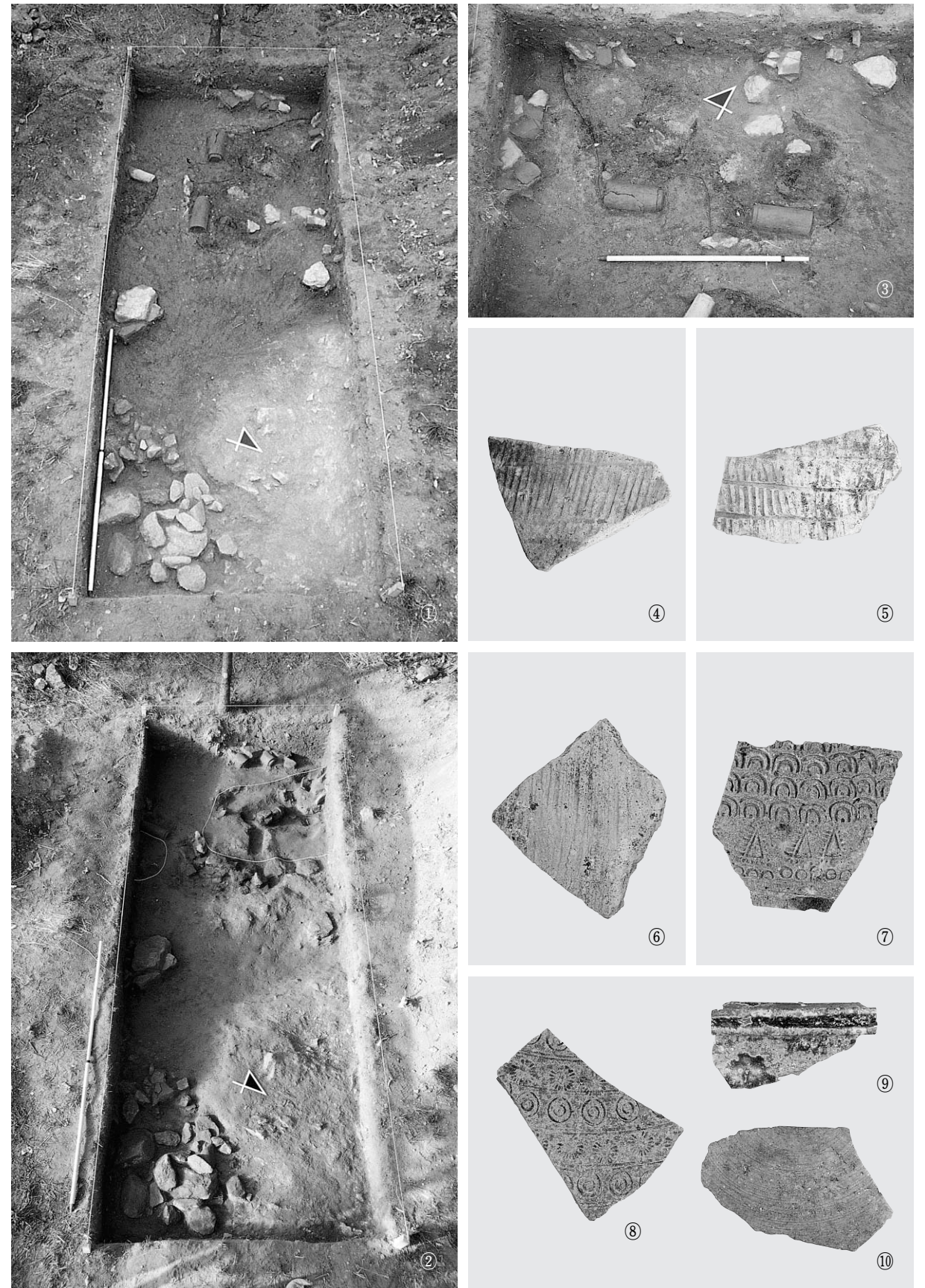


사진 14. 트렌치 1 ①, ② 전경, ③ 세부, ④~⑩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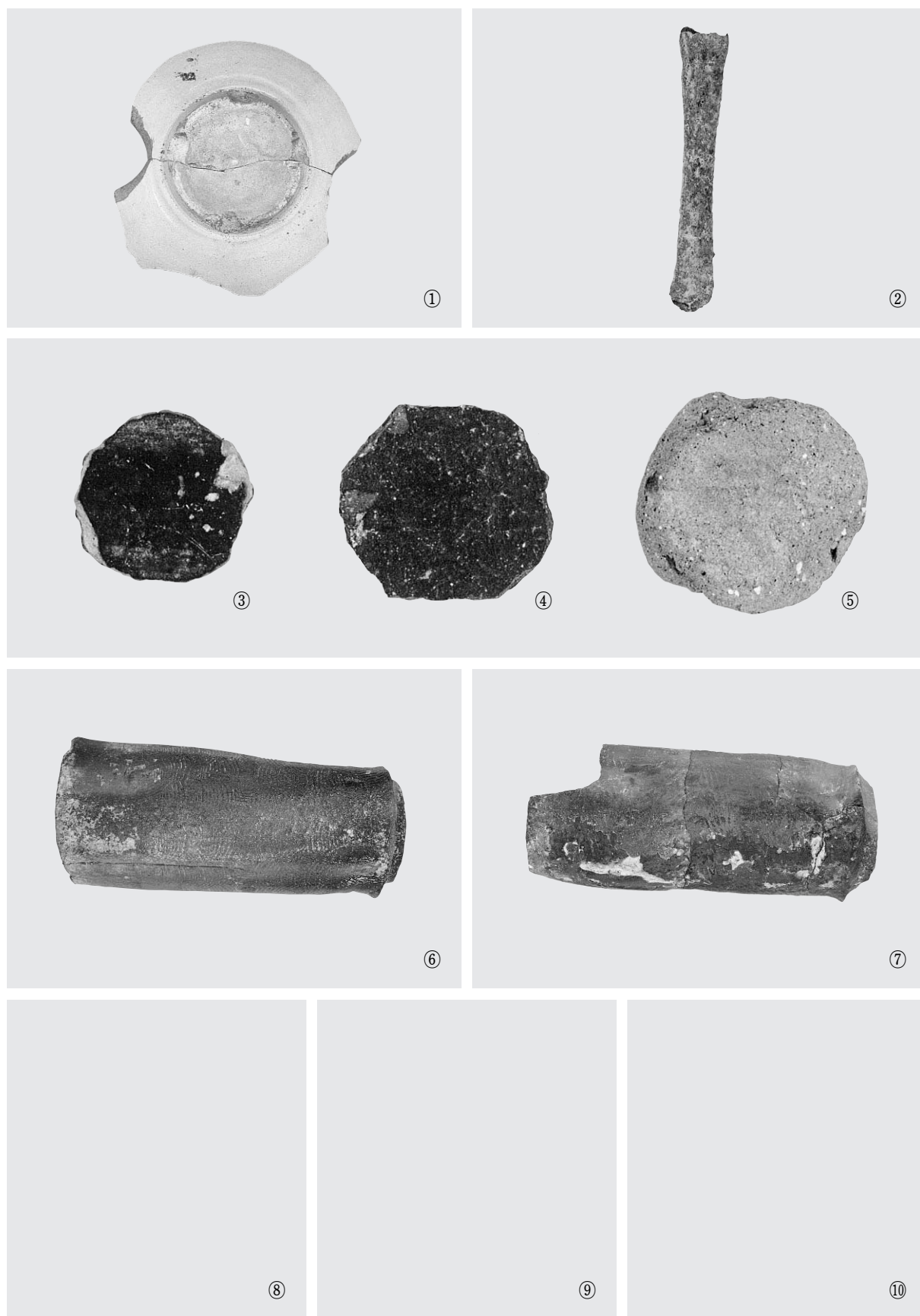


사진 15. 트렌치 1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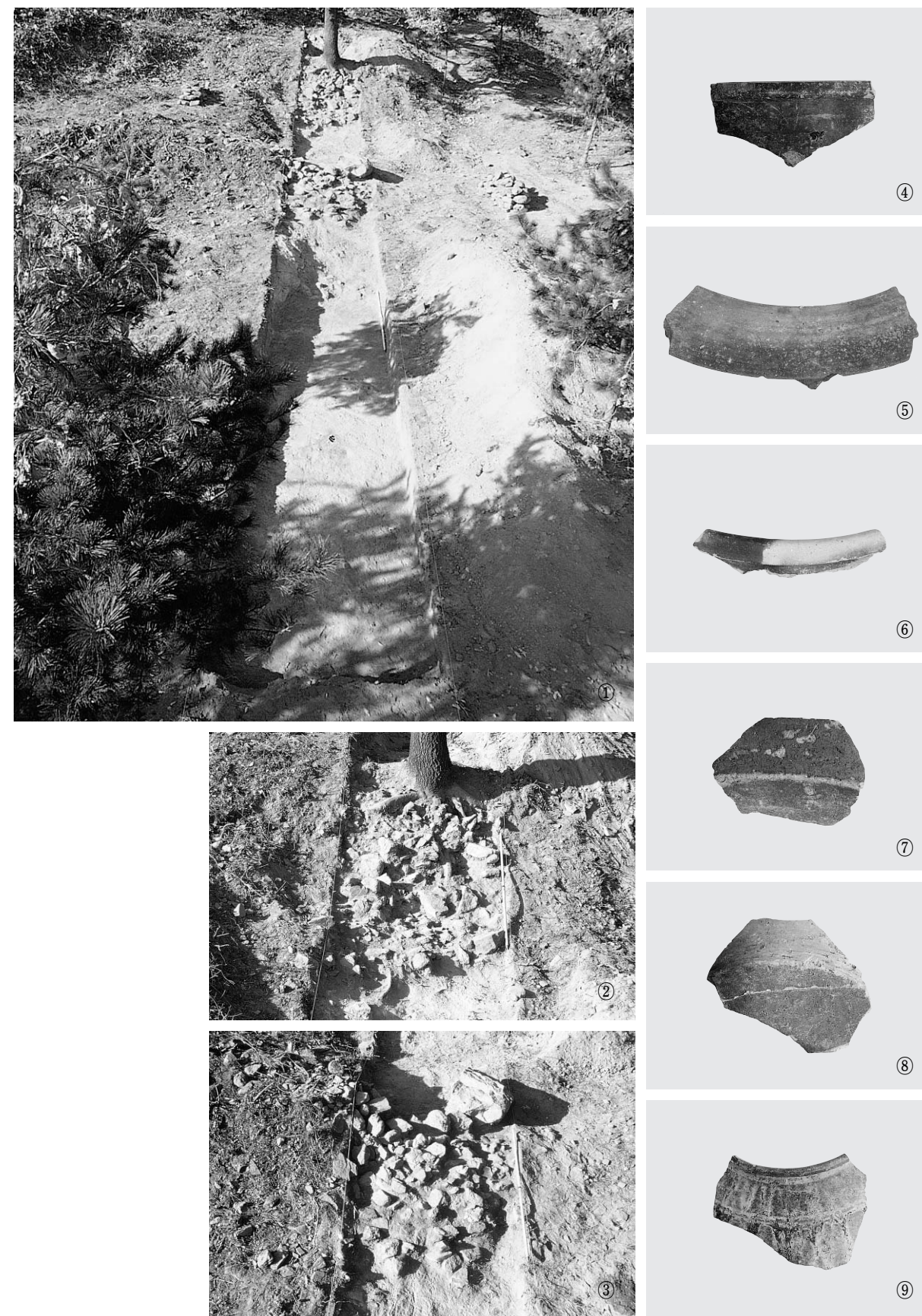


사진 16. 트렌치 2 ① 전경, ②, ③ 세부, ④~⑨ 출토유물



사진 17. 트렌치 2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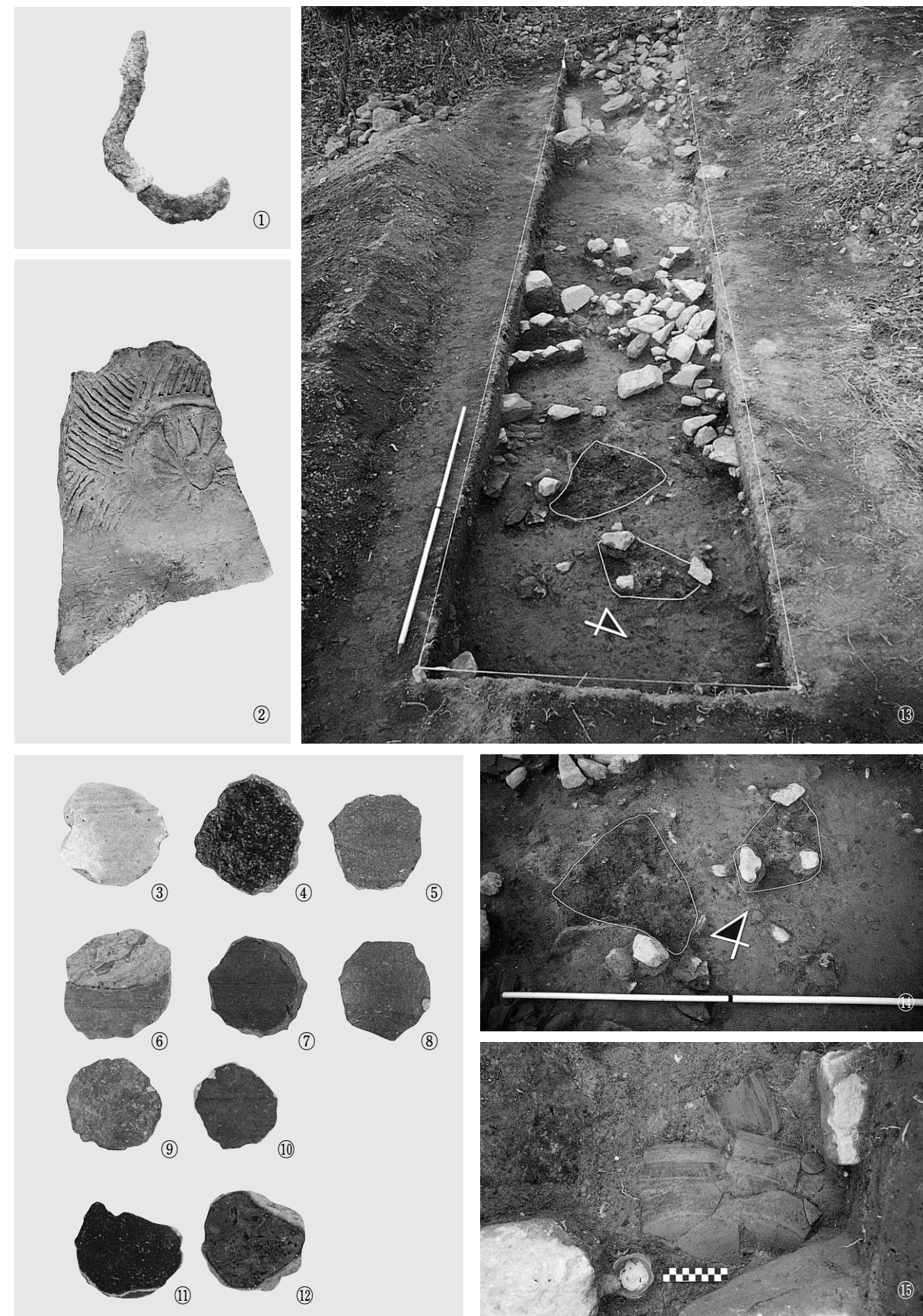


사진 18. ①~⑫ 트렌치 2 출토유물, ⑬, ⑭ 트렌치 3 전경 세부, ⑮ 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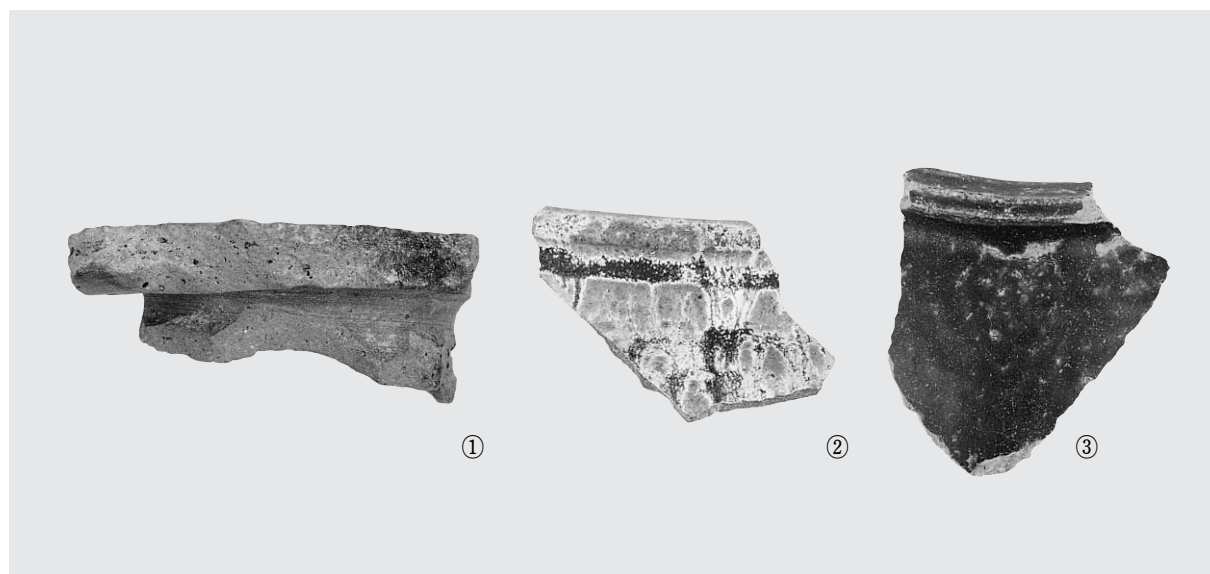


사진 19. 트렌치 3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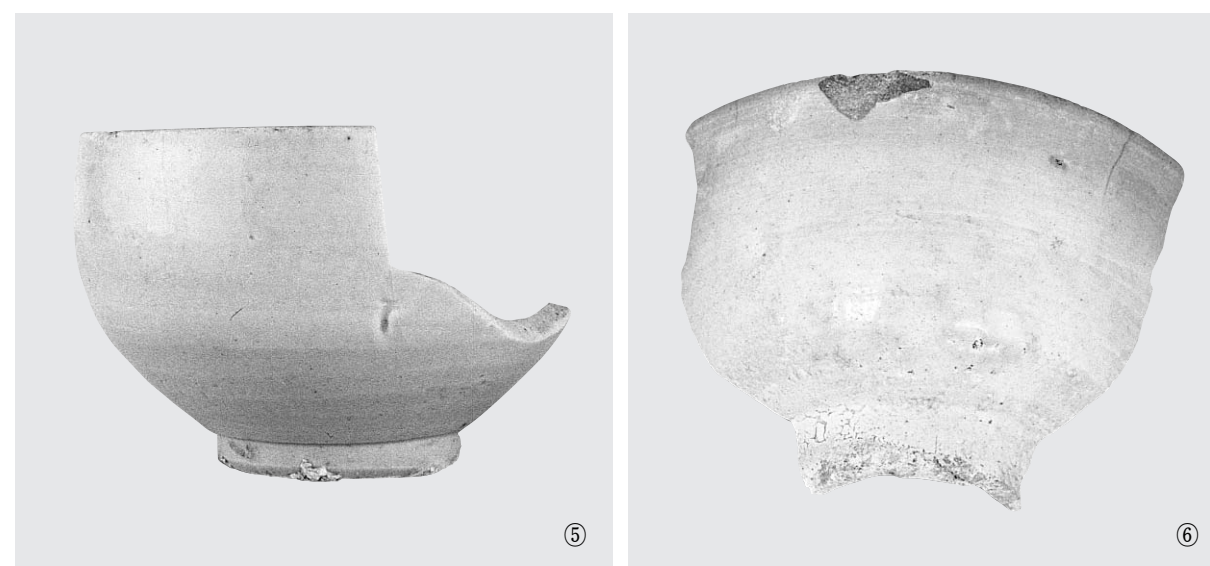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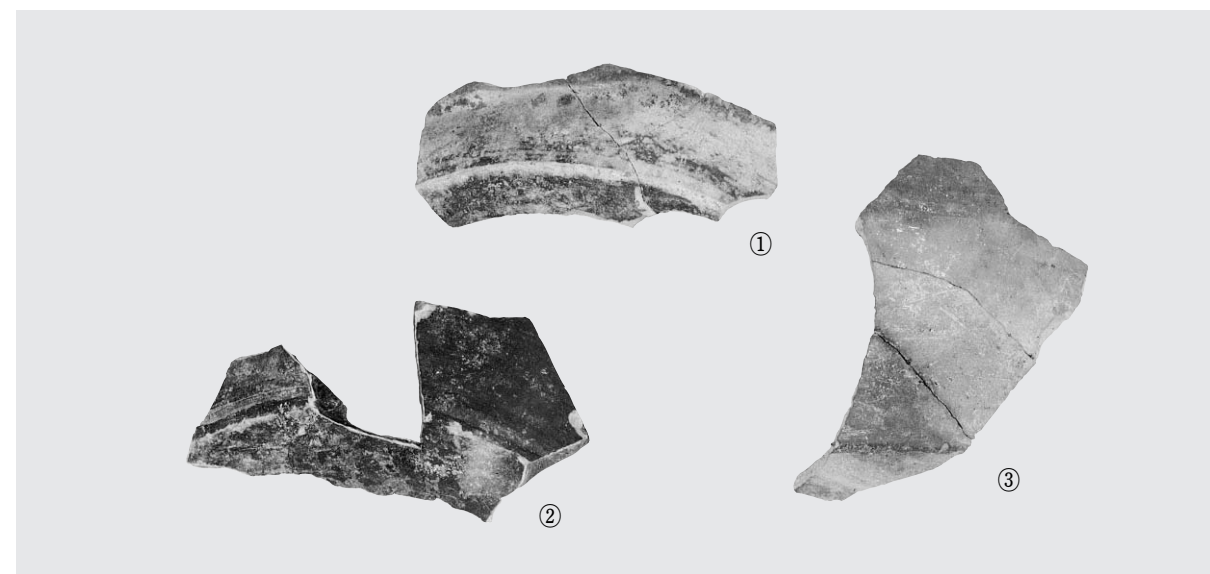


사진 20. 트렌치 3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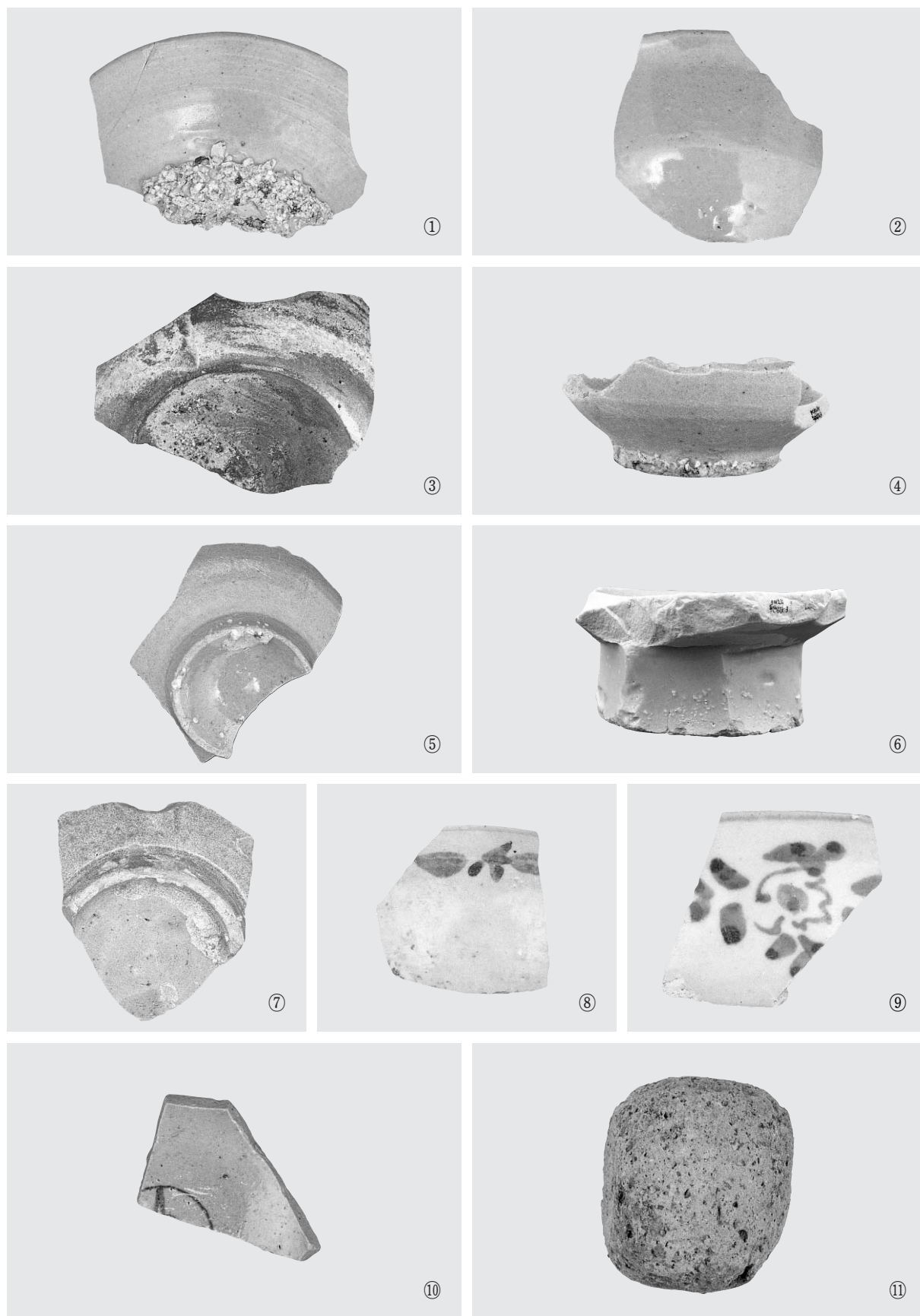


사진 21. 트렌치 3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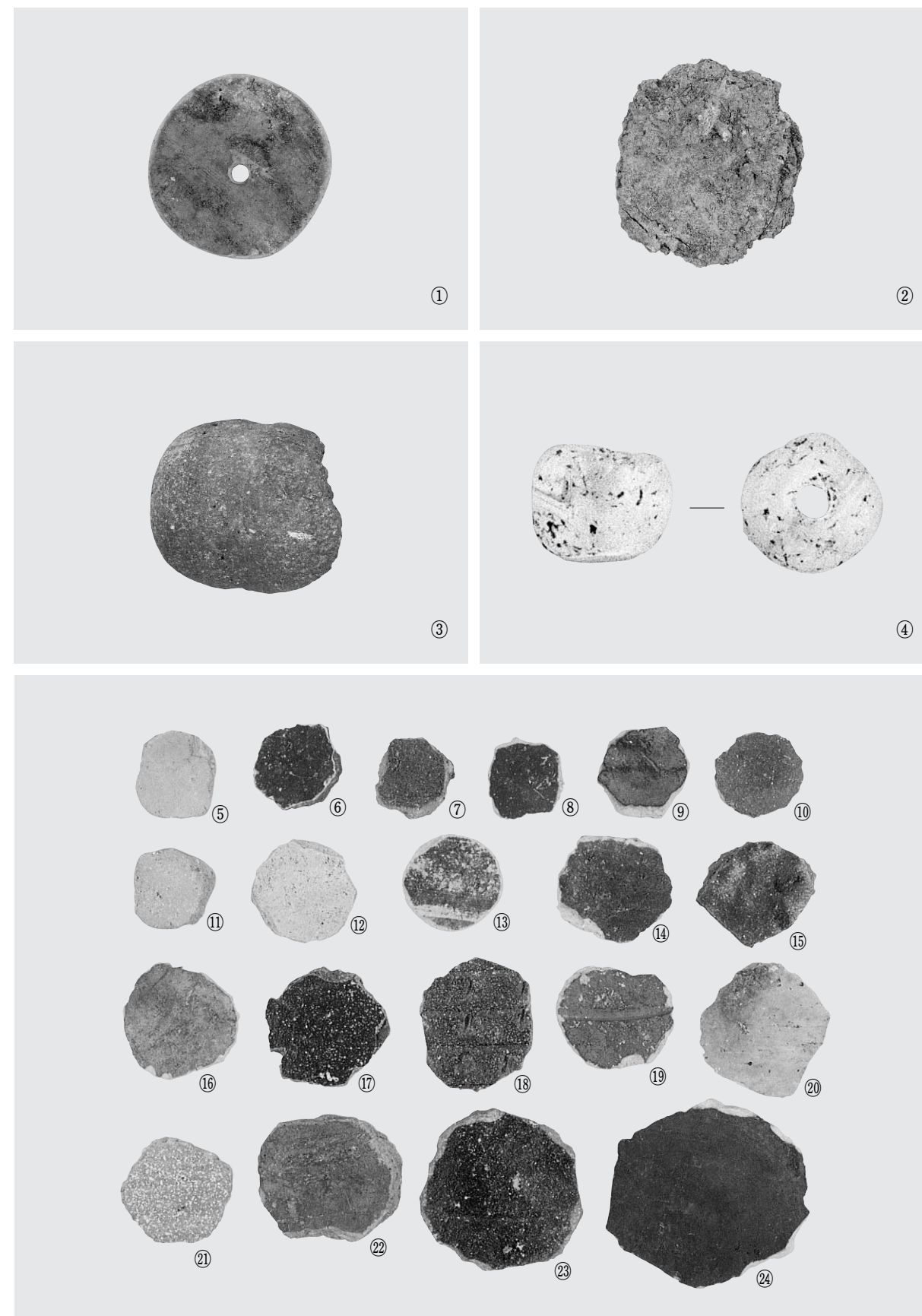


사진 22. 트렌치 3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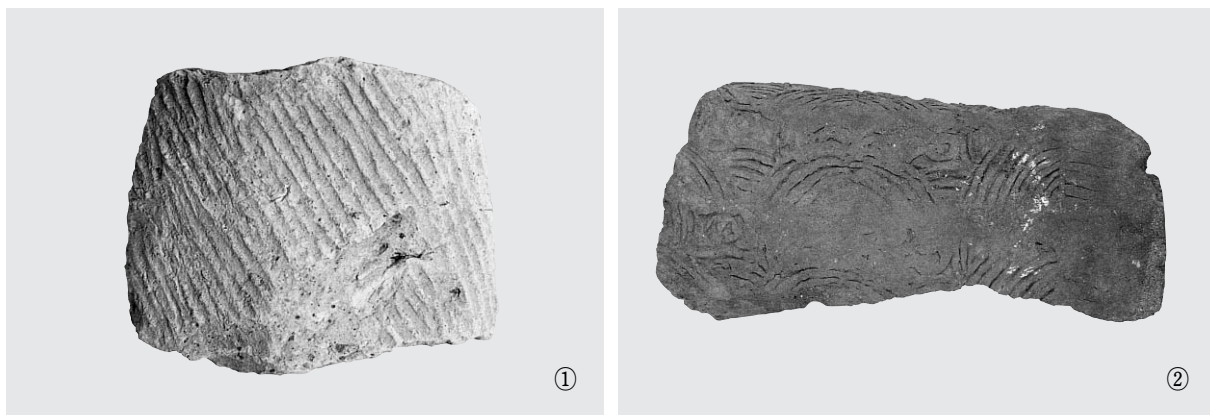


사진 23. ①, ② 트렌치 3 출토유물, ③ 트렌치 4 전경, ④ 트렌치 4 세부, ⑤ 유물출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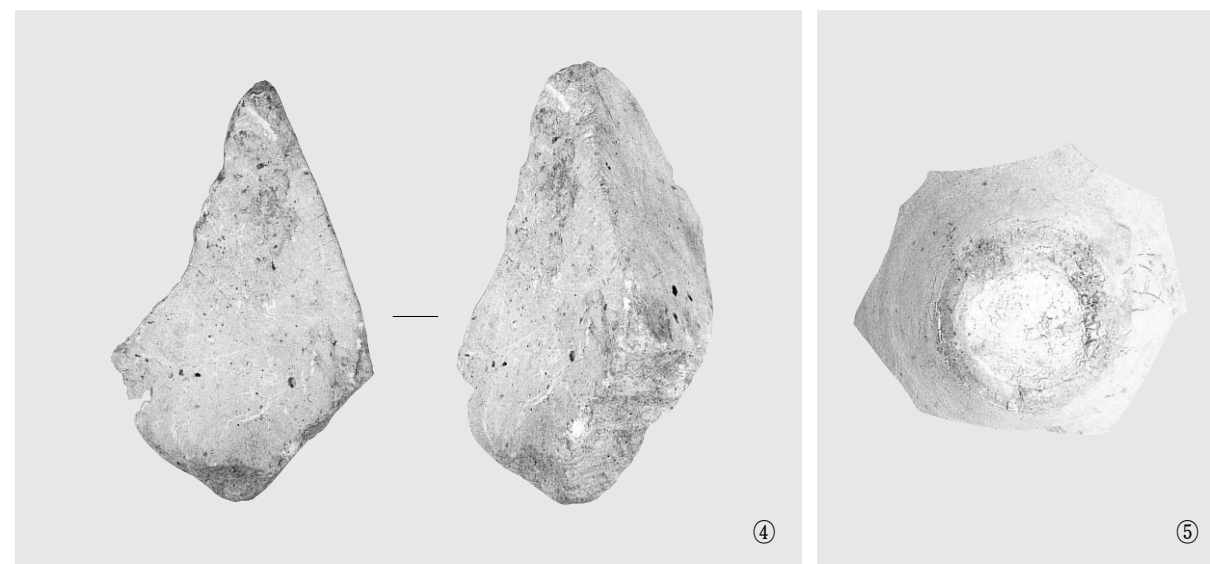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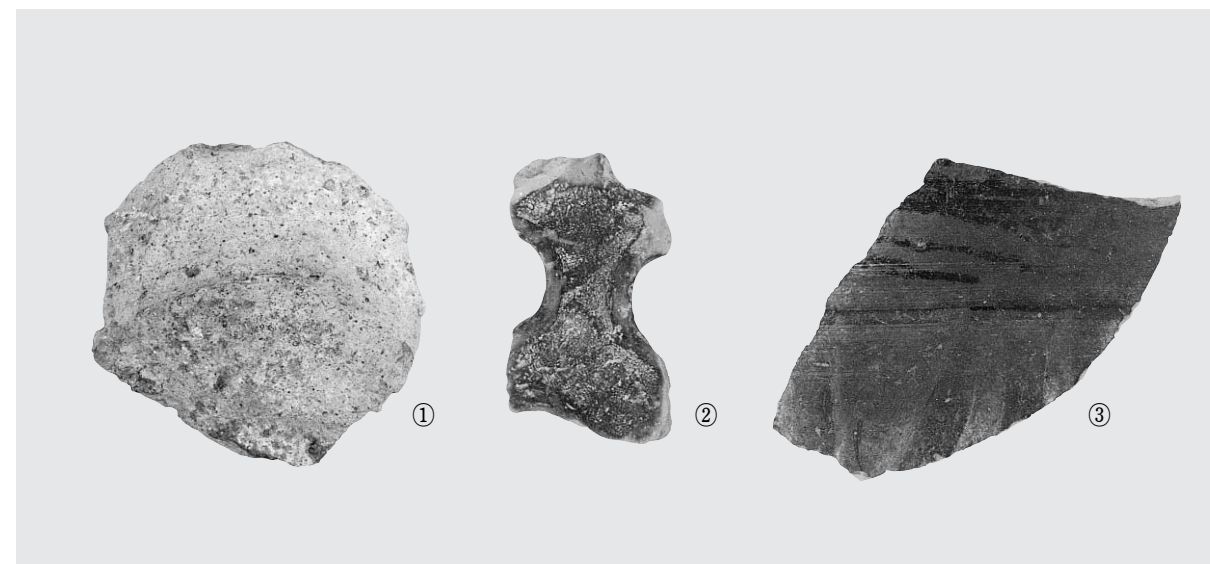


사진 24. 트렌치 4 출토유물



사진 25. 트렌치 4 출토 유물



사진 26. 트렌치 5 ① 발굴 전 전경, ② 발굴 후 전경, ③ 유구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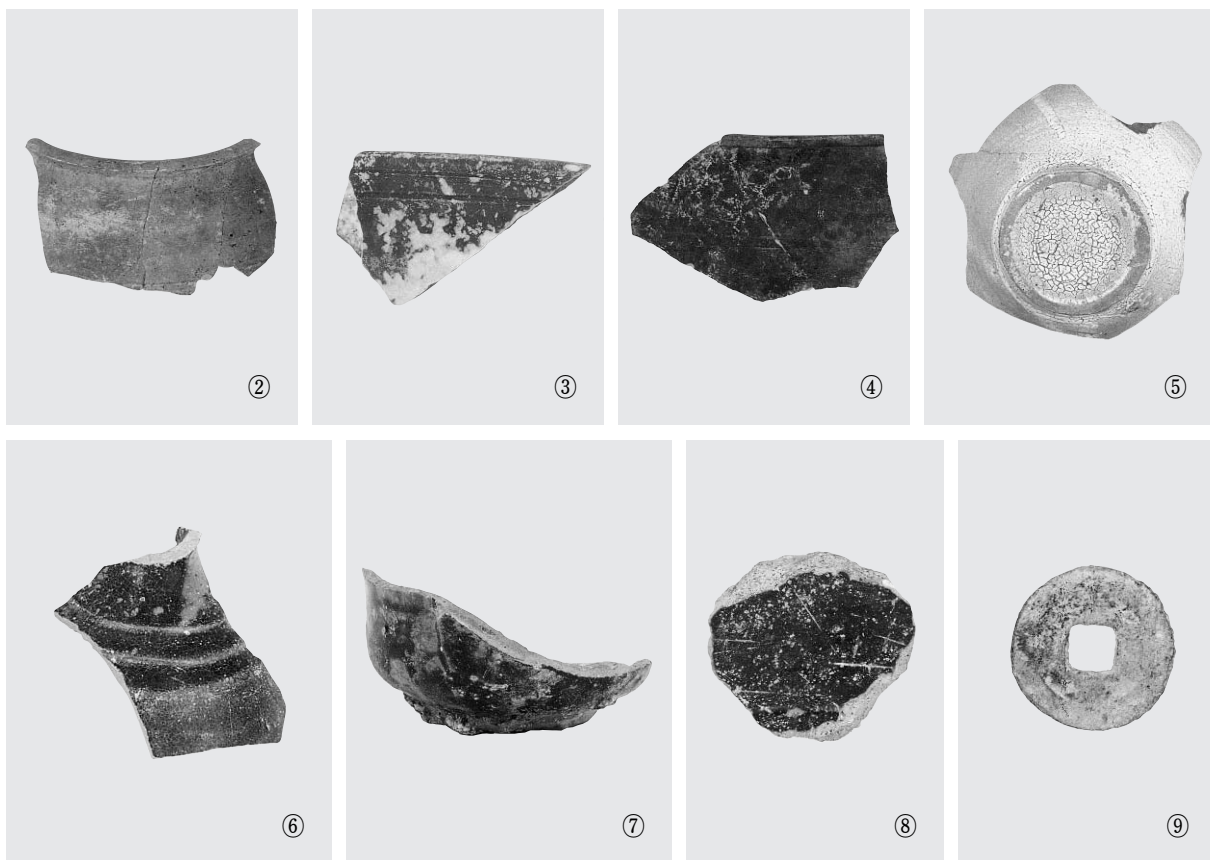


사진 27. 트렌치 5 ① 유구세부, ②~⑨ 출토유물



사진 28. 트렌치 6 ① 전경, ②, ③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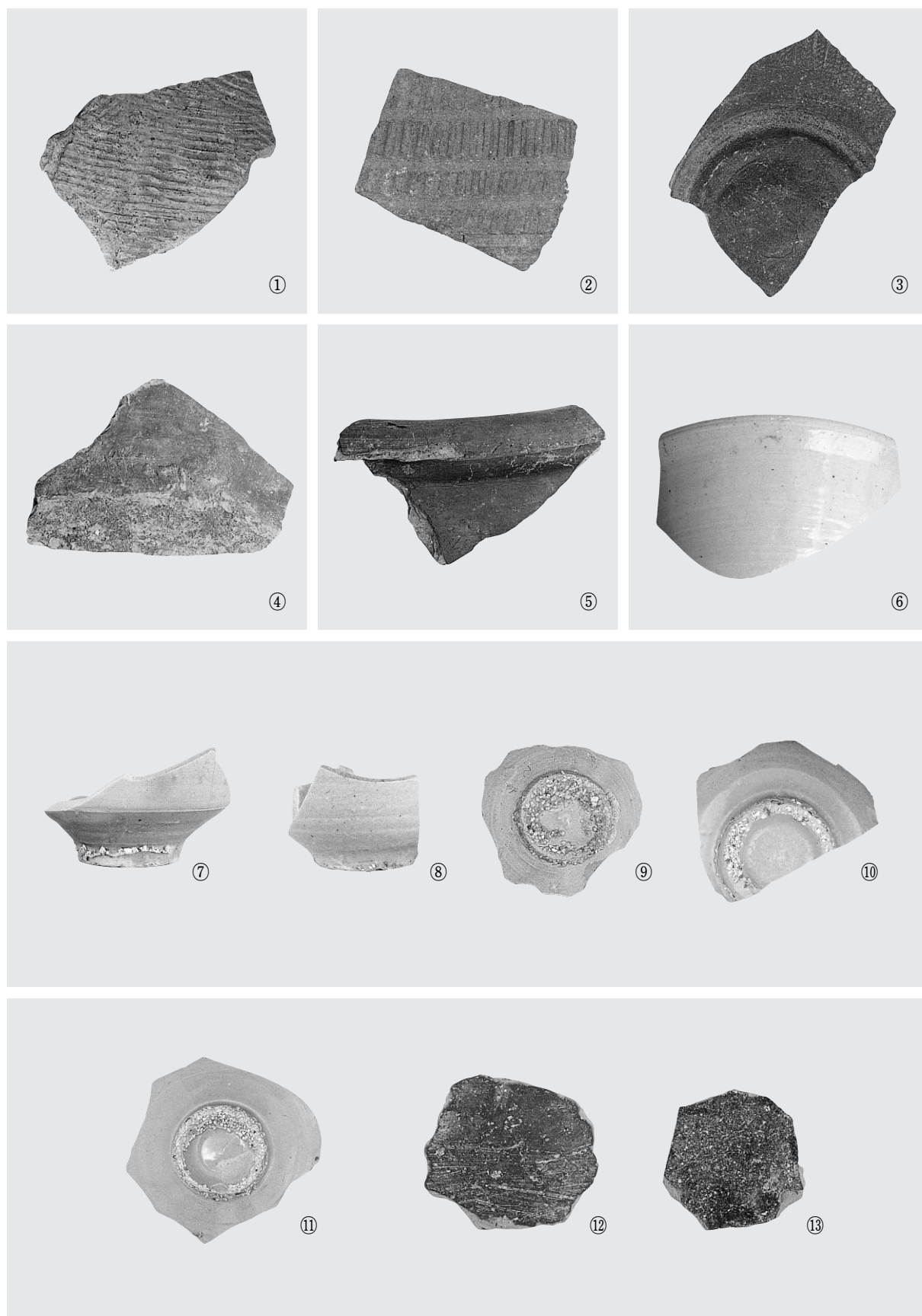


사진 29. 트렌치 6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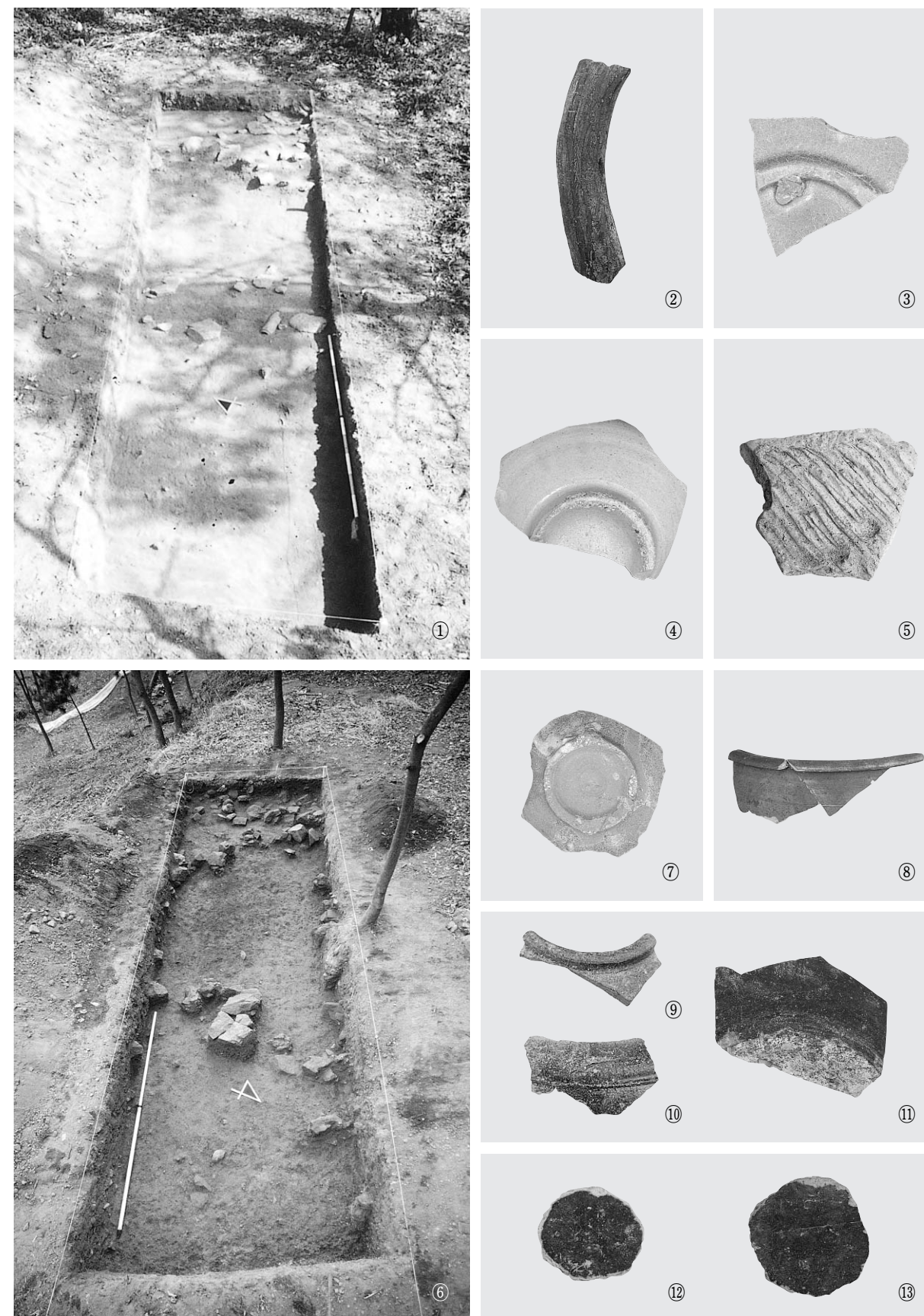


사진 30. 트렌치 7 ① 전경 ②~⑤ 출토유물, ⑥ 트렌치 8 전경, ⑦~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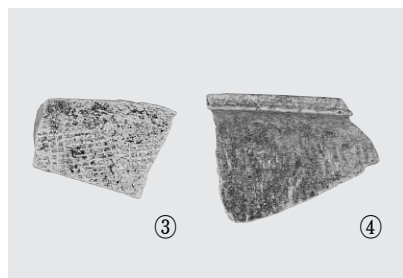


사진 31. ① 트렌치 9 발굴 전 전경, ② 발굴 후 전경, ③~⑪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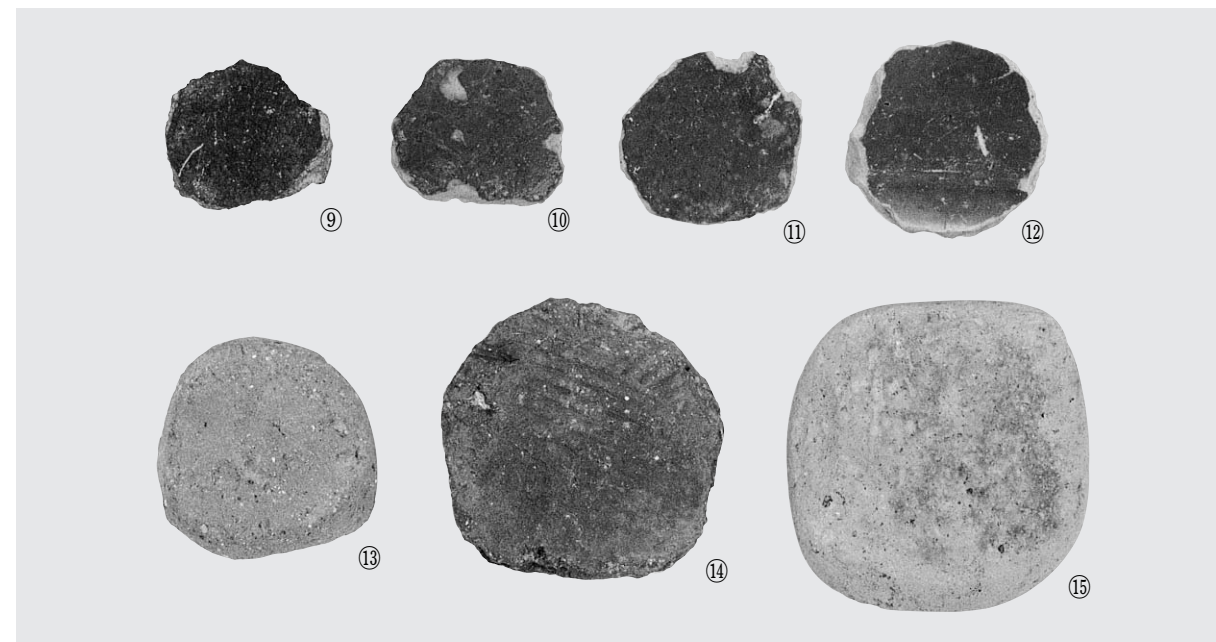


사진 32. 트렌치 9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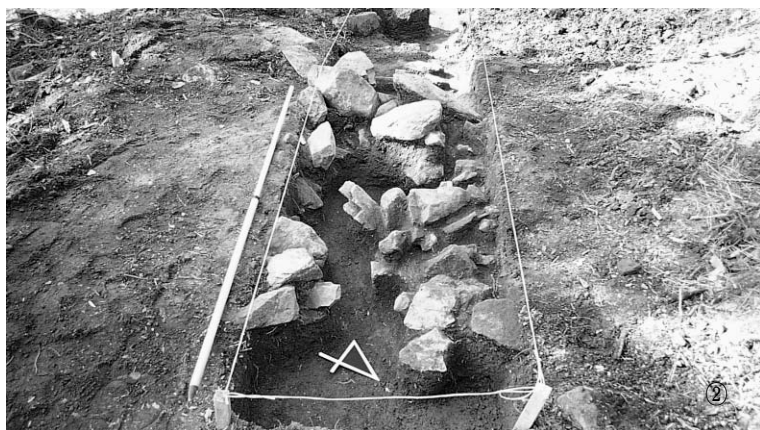


사진 33. ① 트렌치 10 전경, ② 세부, ③~⑥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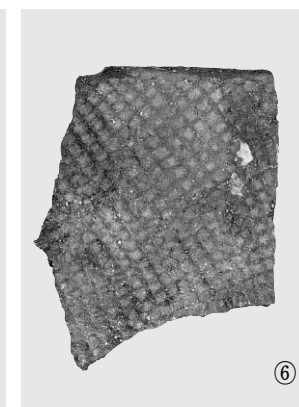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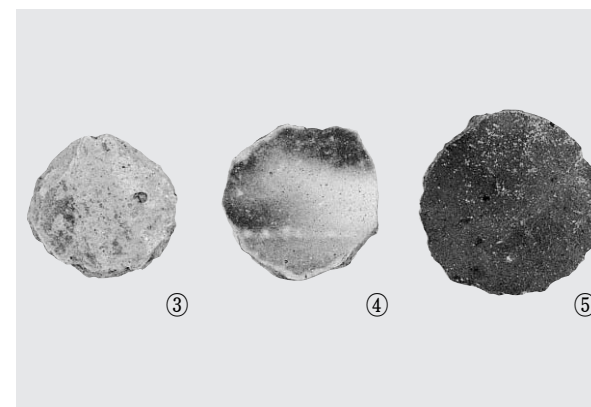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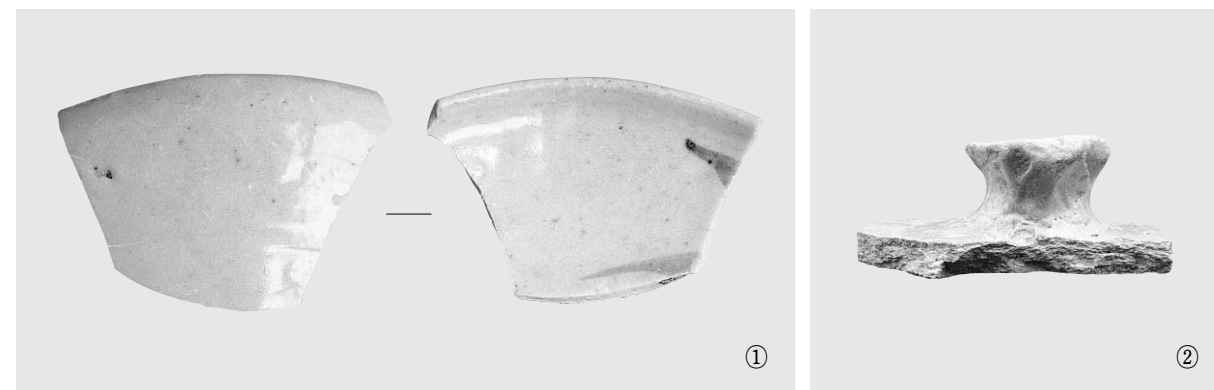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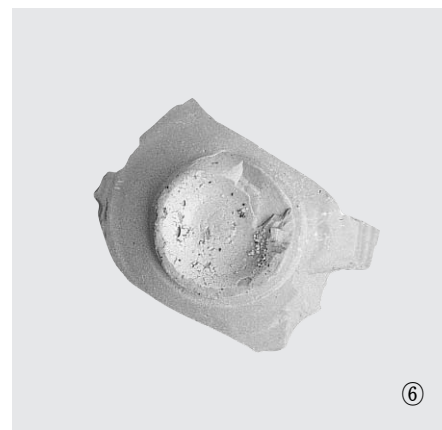


사진 34. 트렌치 10 출토유물 ①~⑦, ⑧ 트렌치 11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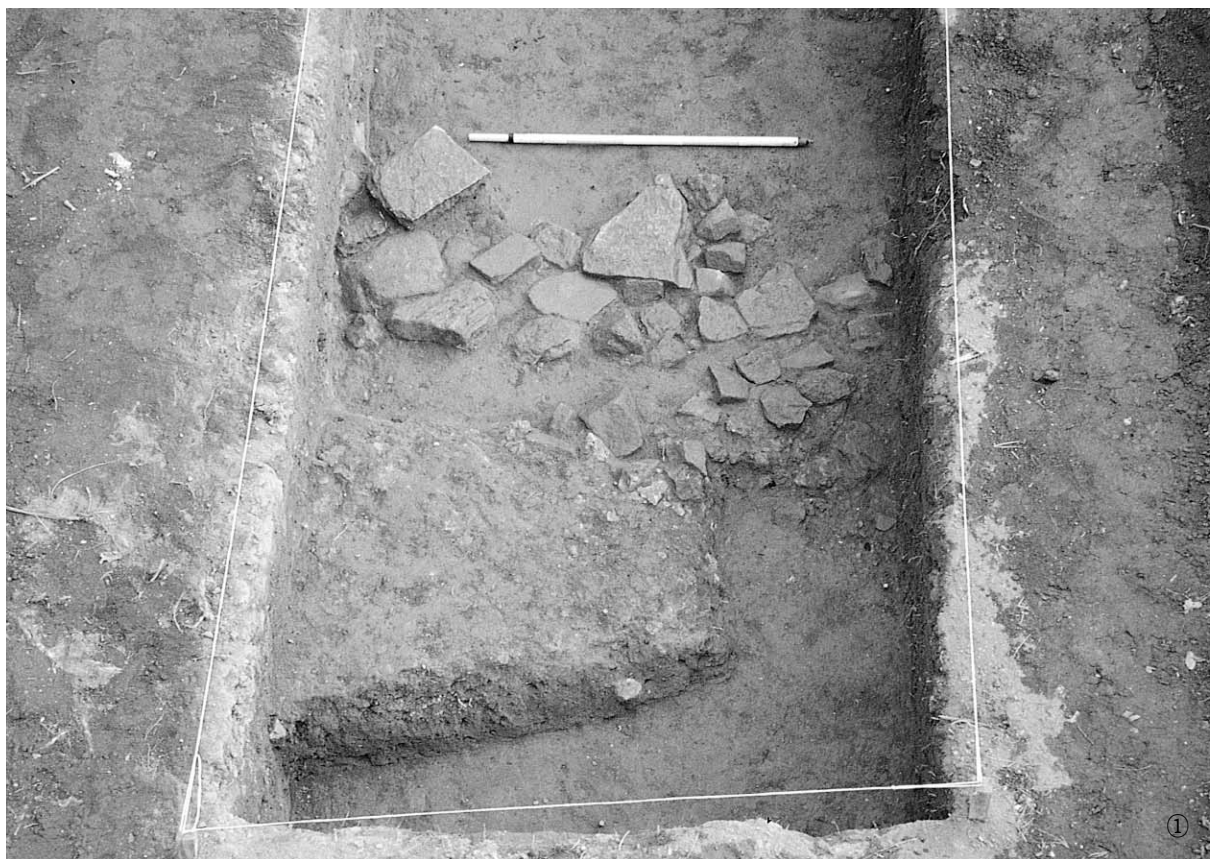


사진 35. 트렌치 11 ①, ② 유구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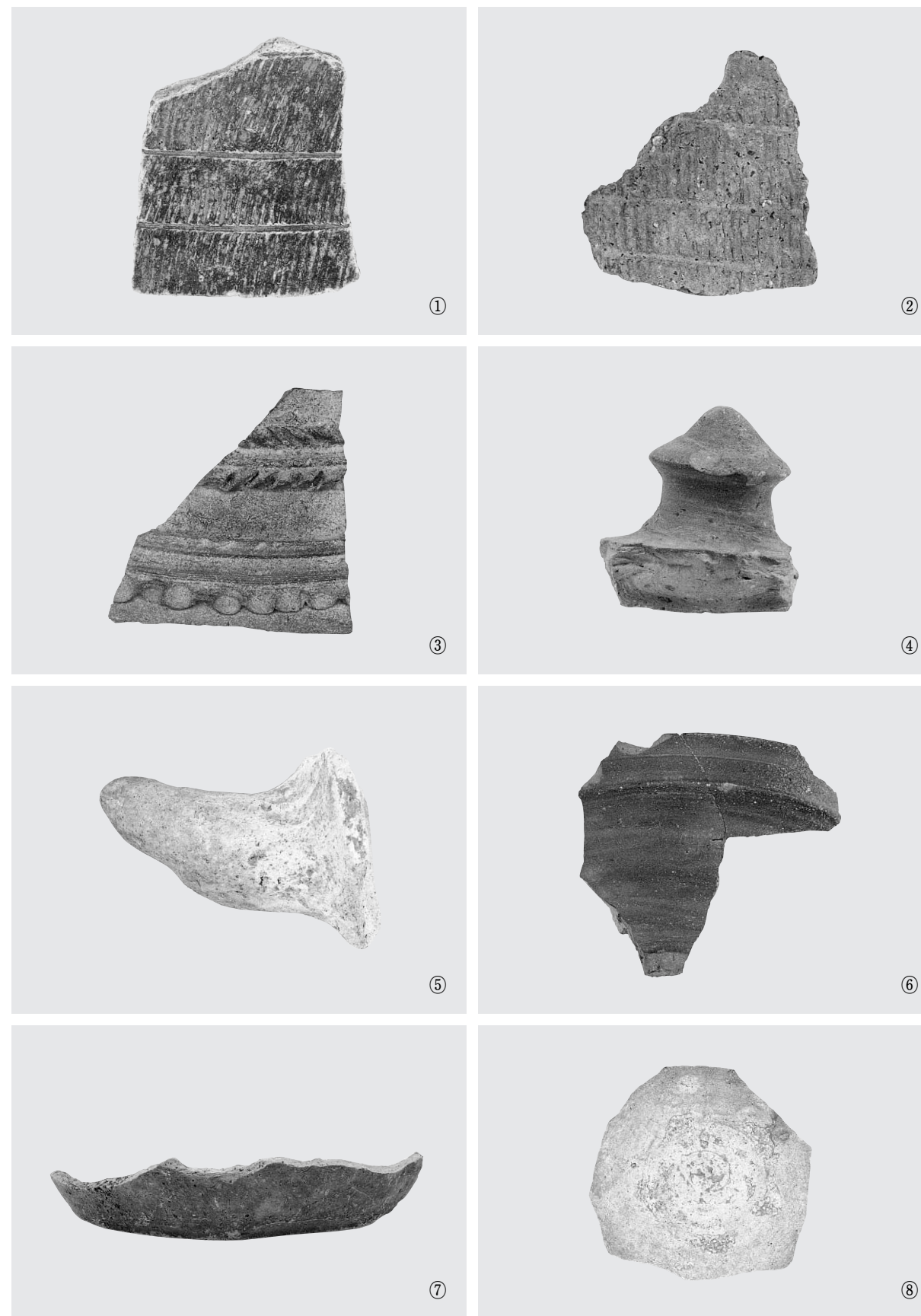


사진 36. 트렌치 11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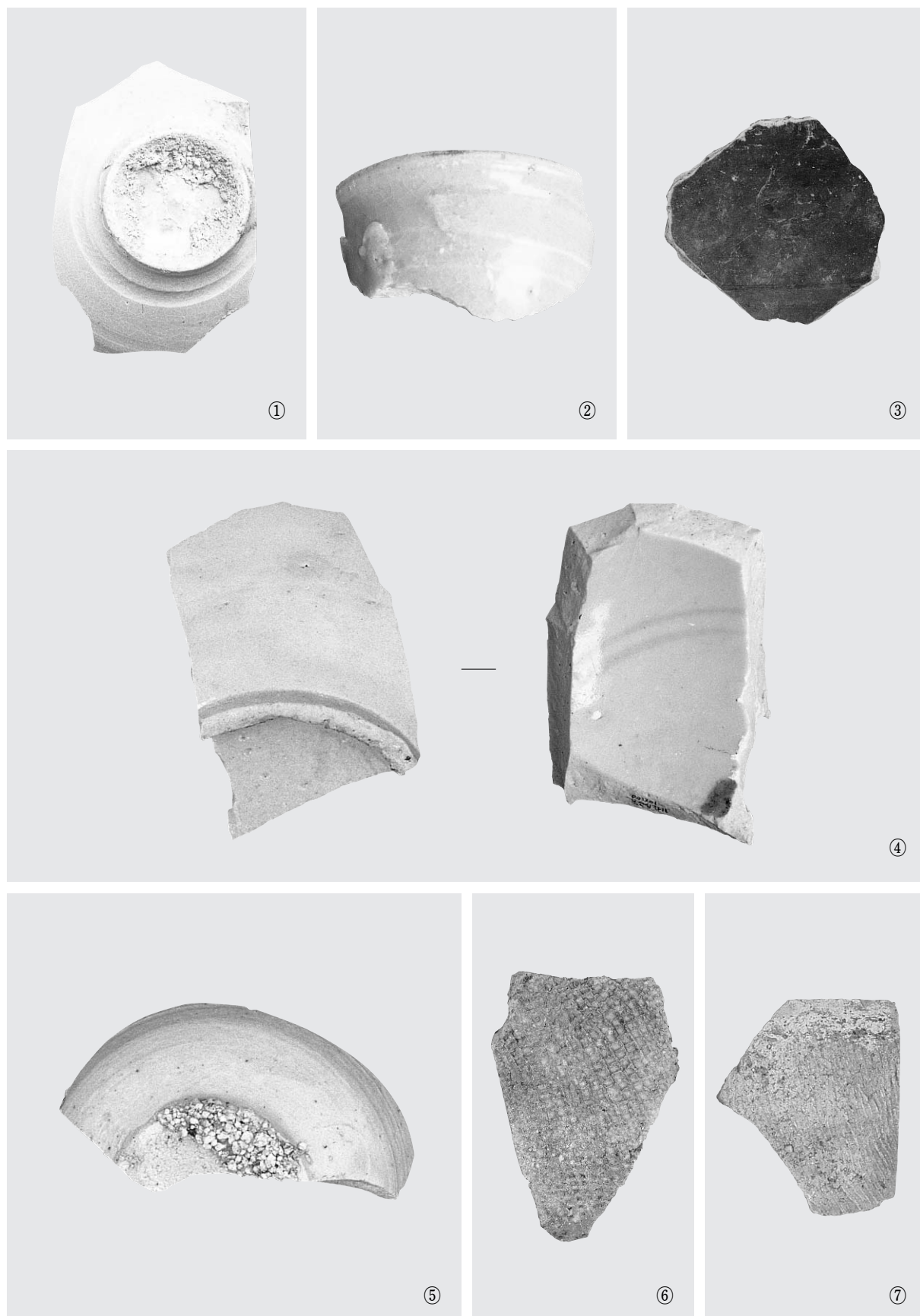


사진 37. 트렌치 11 출토유물



사진 38. 트렌치 12 ①, 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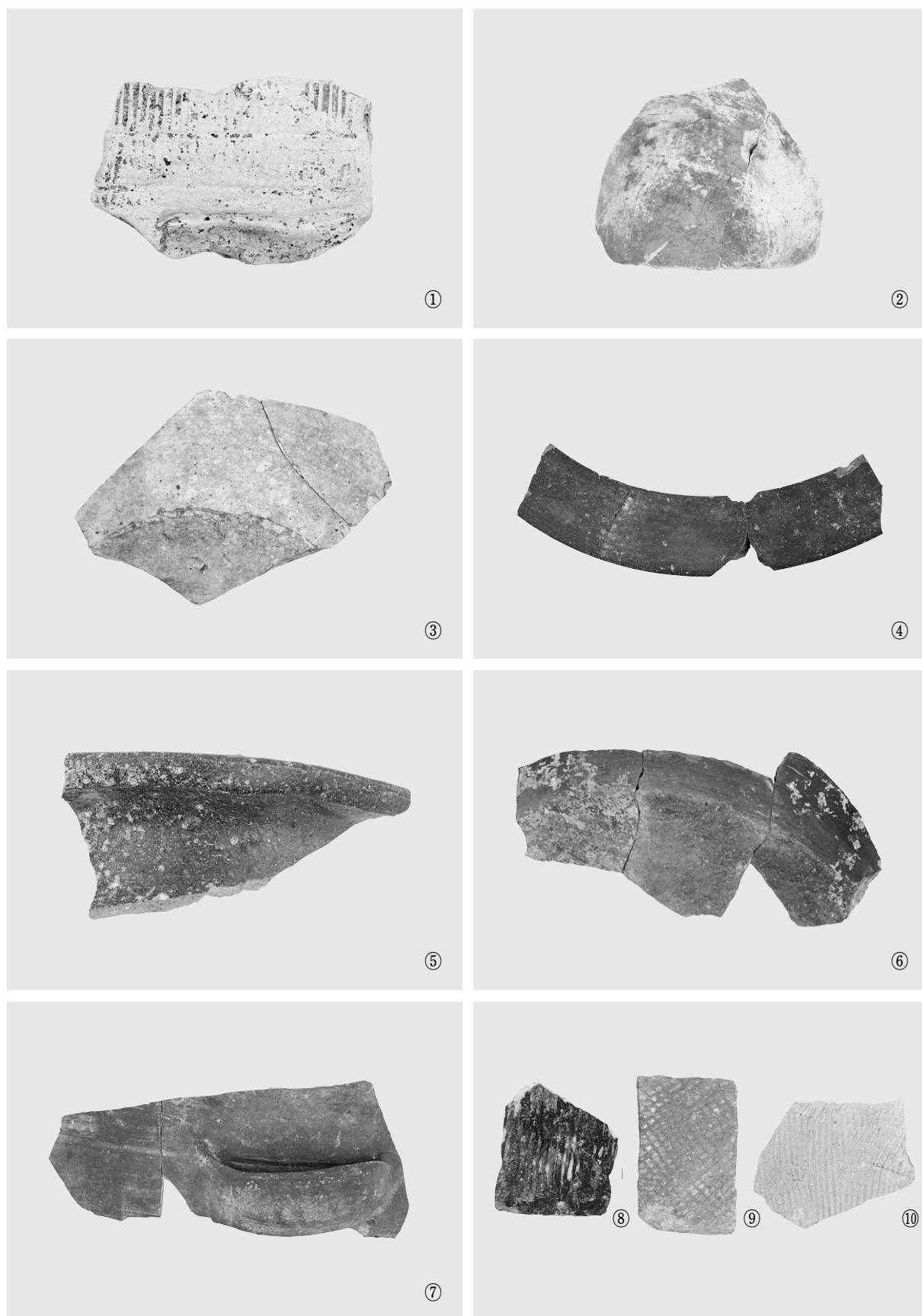


사진 39. 트렌치 12 출토유물



사진 40. 트렌치 13 ① 전경 ② 토층세부 ③ 트렌치 14 전경 ④ 트렌치 15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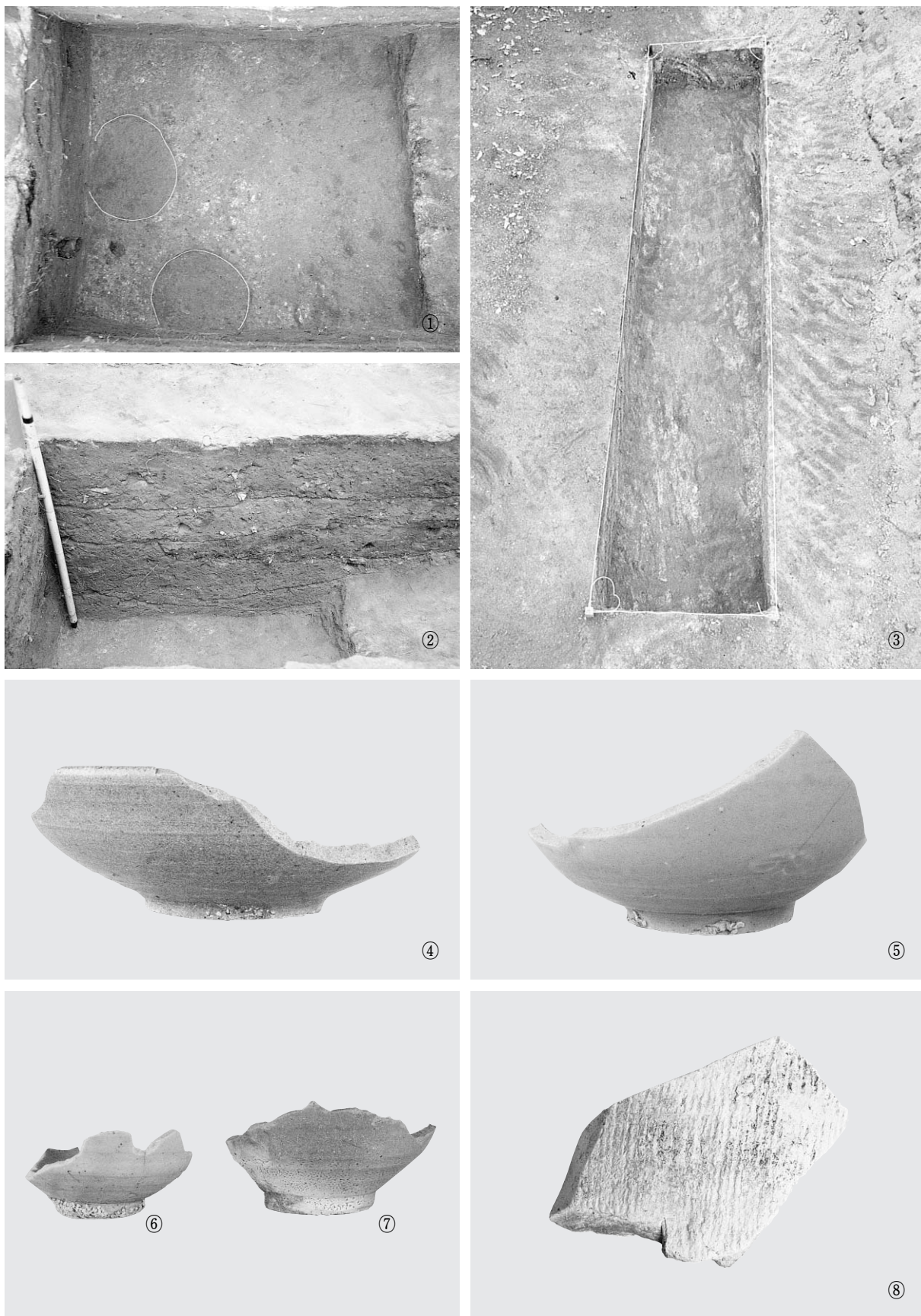


사진 41. ①, ② 트렌치 15 세부 ③ 트렌치 16 전경 ④~⑧ 세마대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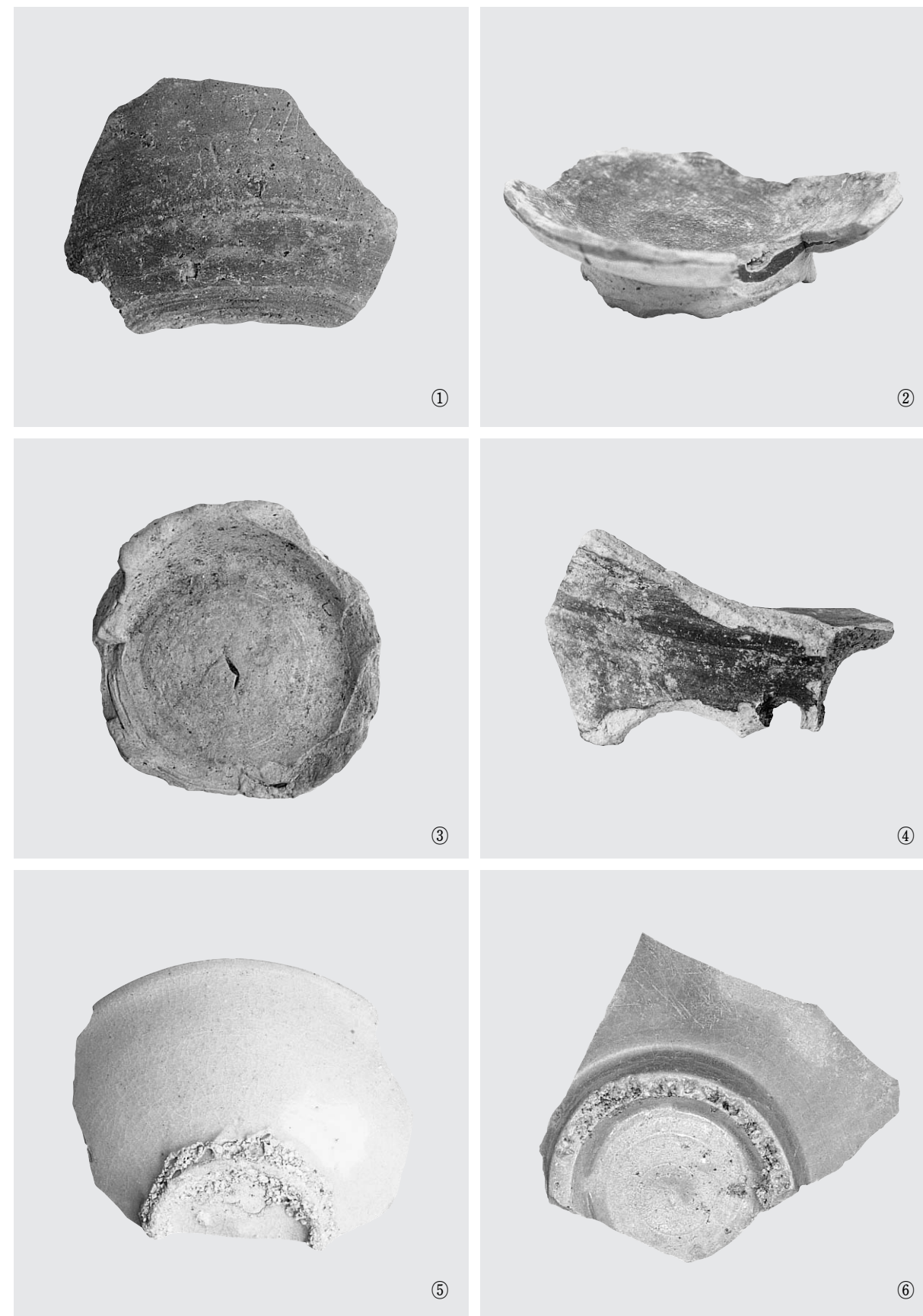


사진 42. 지표수습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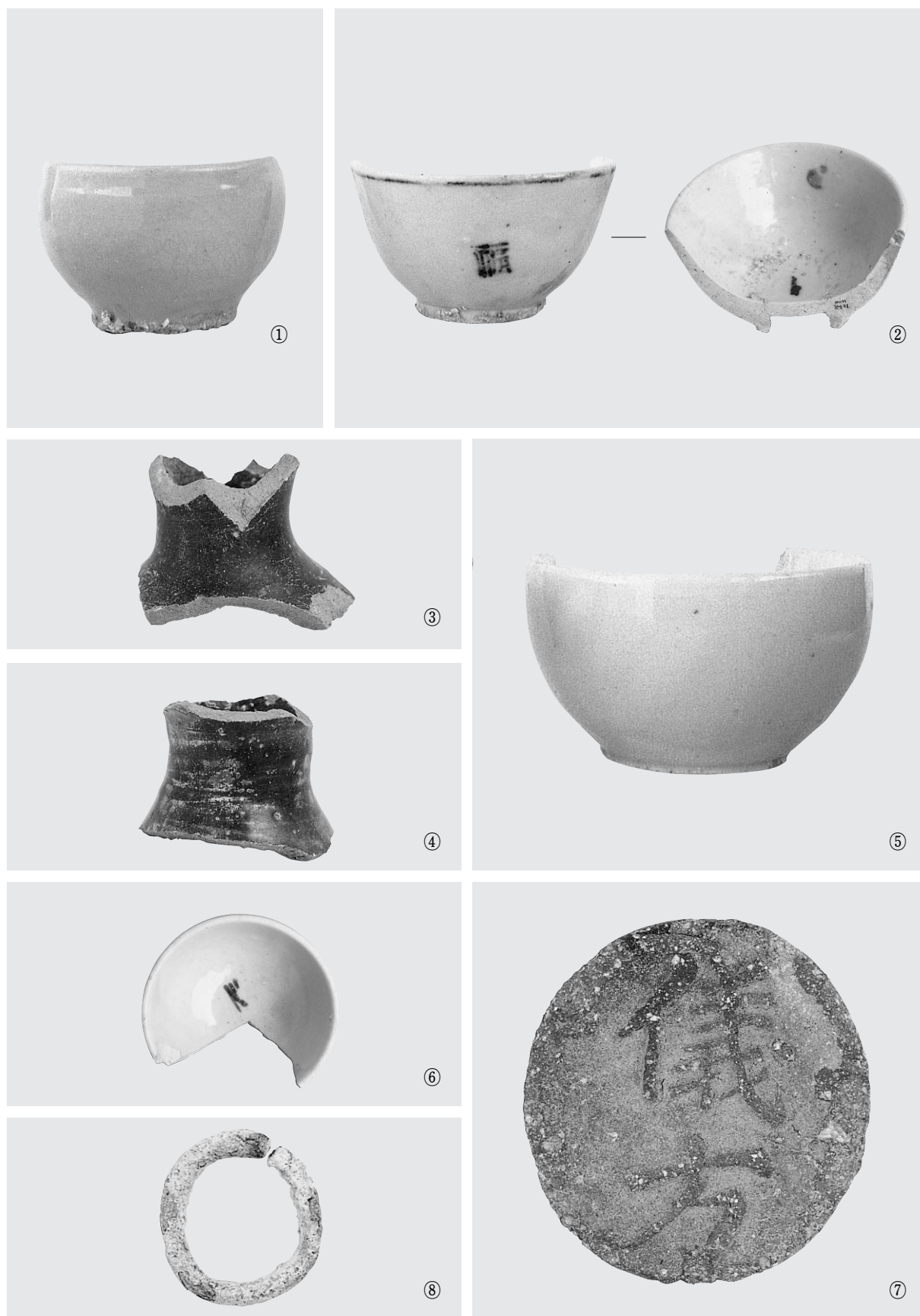


사진 43. 지표수습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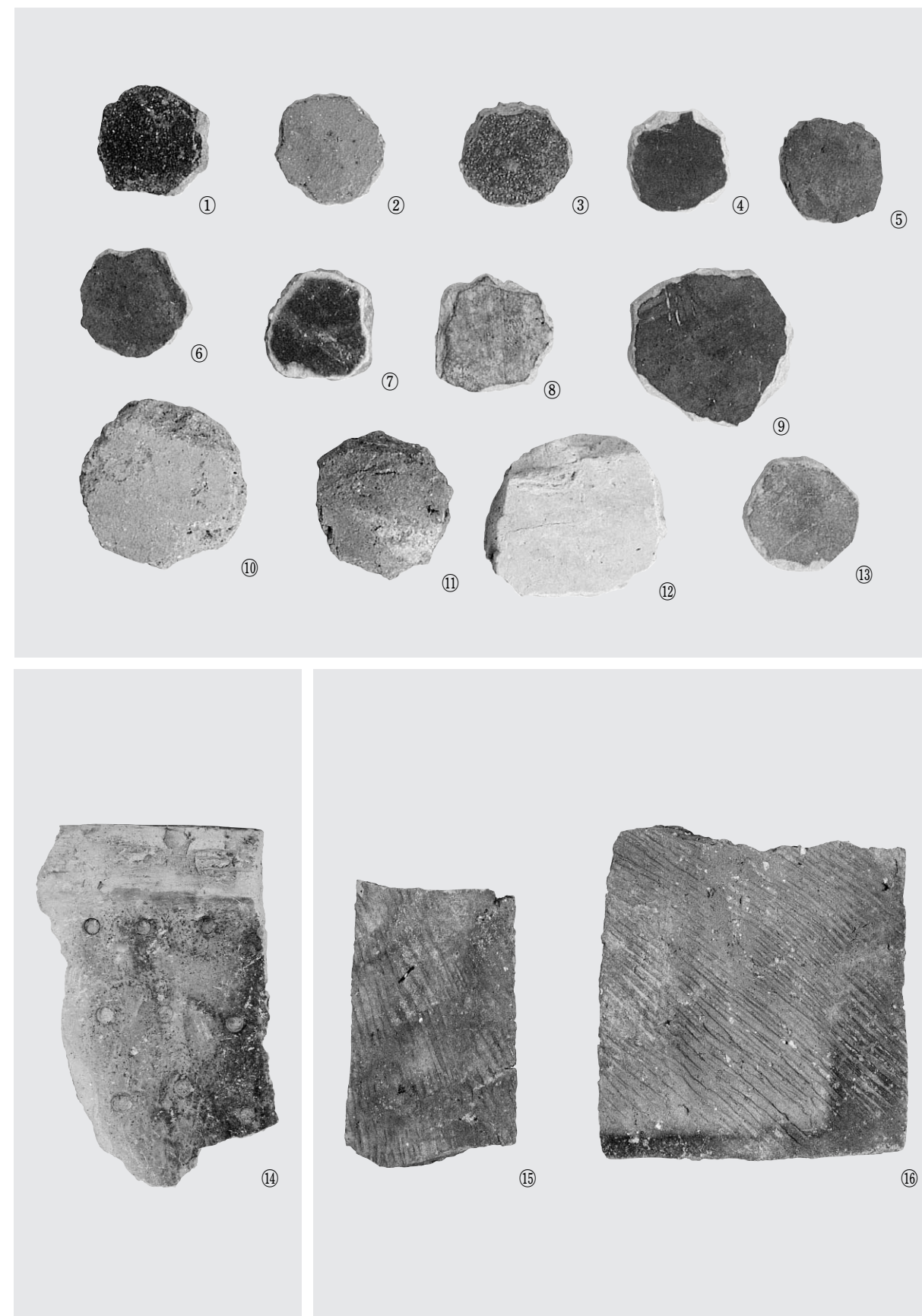


사진 44. 지표수습유물

『조선왕조실록』 독산성 관계기록 요약



사진 45. ① 변응성 선정비, ② 우물지 1, ③ 우물지 2

調查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오산 독산성 · 세마대지 시굴조사보고서		發 行 日	2001年 4月 30日
發 刊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 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T E L	(031) 258 - 55034	FAX	(031)258-7116
執筆 · 編輯者	김아관 · 허미형			
調 査 緣 由	독산성내 정비를 위한 기초학술자료 습득			
調 査 擔 當 者	김아관 · 이창원 · 김환일 · 윤승희			
遺 蹟 所 在 地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번지			
調 査 面 積	약 10,000㎡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산성	삼국시대~조선시대		백제토기편 및 고려청자 편 조선백자편 등	현재의 복원성벽 아래 원 성벽의 잔존이 확인됨

▶ 현장 조사

- 조 사 : 김아관, 이창원, 김환일, 윤승희
- 유구실측 : 윤승희, 노성민, 김태홍
- 유구사진 : 김환일
- 유물사진 : 오철민, 김태련

▶ 보고서

- 원 고 : 김성태, 김아관, 정해득, 허미형
- 편 집 : 허미형, 고현수, 이도열
- 유물실측 및 제도 : 허미형, 이도열, 김태홍
- 교 열 : 장경호, 김성태, 윤한택, 김아관

學術調查報告 18冊
오산 독산성 · 세마대지 시굴조사보고서
2001年 4月 20日 印刷 2001年 4月 30日 發行 編 輯 : 畿甸文化財研究院 發 行 :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5106
印刷處 : 京畿出版社 住 所 : 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